朝鮮日報
夕刊
二日(日)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 『女性』 『少年』

社說

新年과我等의主張(一)

一、朝鮮人教育問題

一

新年에 我等은 朝鮮人敎育의 擴張을 期키 爲하야

첫재 學齡兒童의 義務敎育을 主張한다。現在 朝鮮에 初等學校에 就學한 兒童은 公私立普通學校 各種學校 簡易學校를 通하야 七十五萬、全學齡兒童을 四百萬으로 잡고 겨우 二割밧게 收容되지못햇다。當局은 今後 五個年을 期하야 現在의 約倍數인 百五十萬을 收容하고 爾後 五個年에 約百五十萬을 收容하야 合 三百萬을 收容한다 하지만 設使 이計劃이 實現된다 하드래도 全學齡兒童의 四分의三밧게 收容되지 못하고 就學한 兒童은 大部分이 內容 不充實한 四年制의 普通學校가 아니면 二年制의 簡易學校에서 滿足하지 안흐면안된다。

二

그러므로 初等敎育의 完全을期키 爲하야는 最少限 六年制의 義務敎育을 實施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니 이것은 先進社會의經驗을 미루어 알것이다。當局은 十年後 就學을 希望하는 兒童은 全部 收容할만한 施設이된다하지만 이것에 그치지 안코 年强制를 하야서라도 義務敎育을 實施할것이다。이에對하야 或은 朝鮮人의 經濟力을 云云할지모르나 敎育이얼마나 重大한가를 생각하면 國家의 負擔으로서도 實現할것이다。

三

둘재 中等學校의 男女校를合하야 約 倍數로 增加할것을主張한다。現在朝鮮人이 主로 入學된 高等普通學校는 公私立을 合하야 四十三 그 收容人員은 男子에잇서서 志願者의 四分의 一、女子에잇서서 二分의 一을 不適한다。今年에 드러 高等普通學校를 二、三個 增設한다하지만 年年히 增加하는 志願者를 收容키에는 너무 不足하다。年年 入學時期마다 試驗地獄의 아우성을 드를때에는 實로 사람으로서 寒心함을 禁할수업는 感慨를 늣기게된다。

前學務局長 富永氏는 이入學競爭이 京城에만 甚하다하야 地方學生의 京城校志願을 制限하라는 意思를 보혓거니와 이것은 마치 今井田 前政務總監이 朝鮮學生의 高普志願을 實業校로 轉換하도록 勸奬한것과 마찬가지의 非現實的 方針으로서 到底히 容認할수업는일이다。高普를 志願함도 京城校를 志願함도 다 應分의必要가 잇서서 하는것이며 또昨年의 例로보드래도 地方高普의 志願者가 四倍를 超過하지안헛는가。그러므로 中等校는 最低限 現在의 二倍로 增加할것이며 十年內에는 적어도 現在의四倍를 增設할것이다。

四

셋재 吾等은 專門、大學에서의 入學生의 差別撤廢實施와 專門學校의 增設을 要求한다。官立專門、大學에 朝鮮人對 日本內地人의 入學率이 一對三乃至四인것은 公然한 內規로 되어잇거니와 이러한 不合理가 아직껏 存續되어오다는것은 一大問題다。鹽原學務局長은 이의 撤廢를言明한바 잇스니 그實現을 期待하는同時에 그 實現如何를 注視하려한다。그리고 設使 이것이 實現된다 하드래도 朝鮮人의 專門、大學志願者는 相當히 多數하야 方今 日本內地에 留學한 專門、大學生만 四千餘人을 算하니 現在한 數交의 專門校 增設도 決코 餘裕잇는것이 아니다。더욱 醫工農商의 實業學校는 勿論이어니와 文學、美術、音樂의 文化學도 特히 朝鮮文化의 硏究機關으로서의 朝鮮文學及史學科를 設置함도 必要하다。

上海市테로化

元旦을期로支那人便衣隊 邦人을目標로各處에投彈

【上海一日發同盟至急報】元旦을 期하야 便衣隊一團의 테로行動은 猖獗히 激化하야 共同租界數個所에서 邦人을 目標하고 血과 硝煙을 솟게되야 我憲兵隊는 事態를 極度로 重視하고 即時 非常召集을 行하야 百餘名의 憲兵을 現場에 派遣하야 警戒配備에 當하엿다

【上海一日發同盟】一日午前十一時 五十分頃 曹家渡公大第三工場正門前의 道路上으로부터 同工場을 向하야 約三名의 便衣隊가 手榴彈三發을 投擲하고 抗日삐라를撒布하고 逃走한 事件이잇섯는데 모두 建物에는 맛지못하고 二發은 道路上에서 炸裂하고 一發은 不發되엿으나 附近에잇든 支那人小兒二名이 負傷하엿다 이時間에 工場에는 伊太利步哨兵이 當番中이엇는데 爆彈은 步哨에서 十數間떠러저서 爆發되야 被害는 업섯다

【上海一日發同盟】漢口路通行中의 軍隊와 日華紡 內外綿 公大三邦人紡績工場의 四個所에서 거이同時間에 發生한 爆彈事件은 元旦의 上海市民에게 異常한 衝動을 주엇다 犯人一黨은 아직 逮捕되지안코 그背後關係에 對하야도 아직 明瞭치아니하나 南京路先施公司와 蘇州河運輸船을 目標한 手榴彈事件과 密接한 關連을 가지는 組織的이오 또 計畫的犯으로 看做되고 더욱 使用된爆彈은 모두 最新式手榴彈인 點으로보아 人民戰線派의 抗日테로 計畫이 結局實行에 옮긴것이라 解釋된다

內外棉에도投彈

【上海一日發同盟至急報】一日午後○時半頃 星兒路內外綿會社本部 裏門을 向하야 便衣隊가 手榴彈을 投擲하야 彈은 裏門에서 西方 二呎의 路上에 炸裂하엿는데 多幸히 被害는업섯다

工務局非常手段布告

【上海一日發同盟】租界內에 잇서서 反日的 事件頻發에 稽하야 共同租界工部局은 一日夕刻에 次의 布告를 發하엿다 租界內에 重大한 非常時局이 繼續되는이때 武器에 依한暴行이 頻發하야 重大한 事態를 發生하고 잇서 이에依하야 租界工部局으로 서는 어떤 非常手段을 取함을 必要로하게되엿다

一、何人이라도 租界內의 軍隊를攻擊하는者는 當該軍隊에引渡될것이다

二、租界內에서 武器에 依하야 犯罪하는者는 租界의庇護는拒絕되고 租界로부터 放逐한다

三、租界警察은 無許可로 武器를 携帶하는者를 搜査하고 모도 家宅을 搜索하는權利를가진다

四、『테로리스트』逮捕에 引導하는 情報를 當局에게提供하는者에 對하야는 五千弗까지의 賞金을준다

英艦事件結局解決?

【倫敦三十日發同盟】레디이빠ㅡ드號事件에關한 帝國政府의 回答全文은 三十日午後一時에 英國外務省으로부터 公表되엿는데 當局은 아직何等의 意見을 述치아니한다 同回答은 시골에 滯在中인 첸버린首相과 이든外相과도 聯絡한後 檢討될 模樣인데 最後的의 態度決定까지는 時日을 要할것이오 그때까지는 如何한 批評을 避하리라 觀測된다 여러가지 點으로보아 英政府當局이 事件의 經過에 對하야 不滿이 업는것은 아니나 結局이點에 對하야 日本政府가 取한 處置에 滿足한다고 하야 事件을 解決케하리라 觀測된다 米國이 파네이號事件을 解決한 今日에 英國으로서도 그外에 方法이 업스리라 觀測된다

蘇聯大使館全燒

【南京一日發同盟至急報】一日午後一時五十分頃 南京駐劄蘇聯大使館에서 突然 發火하야 黑煙이 濛濛히 타올라 同二時半頃에全燒하엿다 右는 蘇支密約에보여잇는 國民政府의 抗日容共의特殊機關으로策動의 本據이든 記錄을 湮滅할 目的으로 放火한듯하다 그리고 同大使館에는 二三日前까지蘇聯國旗가 揭揚되고 밤에도 잇다금燈火가 켜잇섯다고한다

犧牲者氏名

【漢口一日發同盟至急報】漢口跳彈事件犧牲者는 左와갓다

花谷部隊 本間義治 特務兵 右足蹠通傷

同 磯部德吉 特務兵 頭部腹部 左足部 彈片手榴彈創重傷

高崖部隊 野村明 特務兵 腹部彈片貫通創

竹田部隊 福井正幸 上等兵 右手彈片創

同 大林幸夫 一等兵 左足部盲貫創

海軍航空隊 各地爆擊

【上海三十一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

一、海軍航空隊는 昨十二月三十日河南省衛都洛陽을空襲 同飛行場에待機中의 敵機擊後三機를爆破하고 格納庫及兵舍數棟을 爆破하엿다

二、又他部隊는濰浦、隴海各沿線要地를攻擊 兗州、徐州、沂州、海州、日照에서 各各敵機自動車、貨車、密集部隊、敵陣地等을爆擊하엿다

人事‧集會

▲丁來吉氏(延專敎授) 一日午後三時五十分新村自宅에서逝去

▲金勝文氏(東亞日報東京支局長) 入京人事次二日本社來訪

▲李秉熙氏(本報釜山支局顧問)三十一日釜山府草梁町二九一番地의二自宅에서逝去

日伊通商協定調印

【東京電話同盟】日伊通商航海條約追加協定은三十日午後六時半에 外務省에서 堀田大使와 치아노外相과의 間에 正式調印을 보앗는데 同追加協定은 에디오피아 併合後 我國의 對에디오피아 貿易確保를 目的으로한것으로 昨年末 伊太利 當局의 希望에 依하야 我方과 伊太利의 에디오피아 併合을 實質的으로 承認한以來 當時의 駐伊大使 杉村陽太郞氏와 伊太利 當局의 間에 折衝이 續行되고 今年五月 堀田大使의 就任後 兩國間의 意見이 大體로 一致하야 그後 條約文의 文句修正그他를 終了하고 完全한 意見의 一致를 보앗슴으로 今回正式調印을 하게된것이다 本協定의 根幹은 現行協定의 一部를 東阿의 實情에 則應하야 援用할것과 對에디오피아 輸出을 求償主義에 基하야 全額에依하야 決定한것과의 二項目이오 同協定의 成立은 防共協定에依한 日伊相互間에 『모랄써포一트』가 어떤具體的具體化를 보인것이다 이를 契機로하야 滿伊間에도 新通商協定의 締結을 볼것으로 日伊兩國의 親善關係에依하야 近近實現하게되리라 觀測된다

그리고 本條約은 批准條項에 따라 批准書交換後에 正式效力을 發生하는것으로 近近樞密院에 御諮詢한後 批准書를 交換하게될것이다

【東京三十日發同盟】日伊通商條約追加協定은 三十日午前十時半(日本時間午後六時半) 기지宮大臣室에서 駐伊大使堀田正昭氏와 伊太利外相 치아노伯間에 調印되엿다 이날 大臣室에는 堀田大使를 隨同한 小野書記官을 關係하고 午前十時十分기지宮에 到着、伊太利側으로는 기아노通商局長 비에지條約局長其他가 立會調印하엿다

靑島權益繼續破壞

【上海三十一日發同盟】支那兵이 繼續하야 我權益을 破壞하기때문에 三十日의 靑島는 暗黑한밤을 보내다 日本의 權益破壞의 猛火는 밤새도록 盛燃하엿다 焦土抗戰策에 미친支那軍의 다음目標는 또我紡績事館居留民會學校 病院等에及하리라 觀測된다

小磯朝鮮軍司令官 新春試毫

元旦午後一時半 泰安을完全占領

韓復榘軍의重要據點

【濟南一日發同盟】濟南에서迫擊되야 南方으로 潰走한韓復榘軍이 重要據點으로하야 部隊를集結하고잇는 泰安은我龍榮部隊의 猛追擊에 一日午後一時半에마침 我軍의掌中에歸하엿다

肥城에入城

【濟南一日發同盟】一日早曉에界首(泰安北方三里)의 堅壘를 攻拔하고 朝日을拜하면서 初榮部隊는 同日午後一時半에 泰安을 占領하엿다 一方 沼田部隊도撤夜强行軍으로 前進하야 界佛站(肥城北方二里)의 堡壘에 依據한敵軍을 夜襲하야 戰果를거두고 午後一時半에 肥城에 入城하엿다 이리하야 濟南出發以來 二日半만에 敵의抵抗을 制壓한셈이다

英政府大體로滿足

【倫敦卅日發同盟】레이디빠ㅡ드號事件에關한 帝國政府의回答은目下 英國外務省에서 이든外相以下의손으로 愼重히檢討되고잇는데 英國政府는 帝國政府의回答에 大體로 滿足한 模樣이다 事件의 經過에對한 說明에對하야는 兩國政府에意見의 相違는잇스나 英國政府는 日本政府가率直하게 그責任을承認하고 陳謝하고 關係者에對하야 各各必要한 措置를取하는同時에 將來의保障을 約束한일에 對하야는 好感을 보이고잇다 何如든 英國政府의 回答은 今週末頃으로 發表되리라

八面鋒

正月一日 上海서는 爆彈事件이 생기고。◇ 南京에서는 蘇聯大使館의 失火事件이생기다。◇ 新年에 들리는 凶報의 一相。◇ 今年엔 年賀狀이 昨年보다 六割이나 줄엇고 年始宴會도 取消案하다고。◇ 어젓든 社會의 時代相。◇ 比律賓 遠征간 拳鬪選手가 各處에서 다 勝利햇다고。◇ 新年에 들리는 快消息。

世界政局의趨勢【三】

徐椿

그러고

第三은 世界의 物資、換言하면 人類의 衣食住를 各民族間에 될수잇는대로 普遍的으로 供給할 保障을 與하는것이다。

故로 世界를 開放하야 人類共存에 必要한 衣食住를 供給하며 此에 依하야 不自然한 屈服과 그 差別的境遇와를 改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急務이다。(中略)所謂 世界의 解放、障壁의 撤廢는 人類生活의 標語며 同時에 戰爭防止、平和維持의 唯一原理가 될수밧게 업다。

(中略) 特히 우리日本은 廣大한 人口와 物資의 缺乏에 苦惱하는中으로서 國民生活의 困難은 漸次로 그度를 노피고잇다。(中略)그러타고 억지로 無制限的開放을 主張하는것은 아니다。적어도 物資의 移動을 自由로하야 人類生活의 脅威를 一掃하며 經濟上 人爲的으로 現存한 障壁을 撤廢하야 差別的不平均을 可及的調節하는것이 急務임을 確信한다」云云

이것을 보면 所謂 『國家生存權原理』의 何者임을 明瞭하게 알수가 잇는 同時에 日本帝國은 벌서 一九二二年 와싱톤會議當時에 잇서서 人類生活의 安定、障壁의 撤廢、世界의 開放에 對하야 하우쓰大佐의 所謂 『가진나라』들에 對하야 呼訴한바 잇음을 알것이다。그後 十四年을 經過해서 發表된 하우쓰大佐의 所論은 故原敬氏의 所論과 文句를 달리할지언정 그 內容을 構成하는 根本原理에 잇서서는 符節을 合함과가티 相同함을 알것이다。

故原敬氏의 絶叫에도 不拘하고 하우쓰大佐의 警告에도 不拘하고 必要以上의 資源、過分한 資源을 所有한 그所謂『가진나라』英米佛蘇는 各民族間의 不均等을 自然의 天則으로 誤認하는 迷夢으로부터 깨지못하고 日獨伊三國의 要求를 頑强히 無視해왓다。

그러나 天運循環의 大法則은 어떤 멧나라의 迷謬의 甘夢을 長久히 繼續함을 不許한다。그리하야 只今 世界는 바야흐로 하우쓰大佐의 悲觀的結論의 方向으로 『코ㅡ쓰』를 取하야 轉移進展을 開始했다。即、此를 바꾸어 말하면 英米佛蘇의 가진나라는 日獨伊等 못가진나라에 對하야 平和的方法으로 資源을 讓步하려는 생각이 아직껏 업섯다。그 必然의 結果에 依하야 하우쓰大佐의 所謂『刻下의 混沌과 破局』이 更一層 進展하고 잇는것이다。

世界는 再昨年、昨年의 兩年을 費하야 못가진 三大國民의 鞏固한 結束을 보게된것이다。三大國民의 大同團結은 하우쓰大佐로도 豫想치 못햇든것이다。反對側에 선 英米佛蘇는 어찌되엿는나?하면 全部의 團結을 보지못햇슬뿐만아니라 一二의 旣存團結體勢도 寒酸弛緩되여 잇슴을 본다。

約言하면 過去一個年間의 世界政局은 三大國民의 勝利의 歷史의 記錄이다。獨逸의 라인再武裝、伊太利의 에디오피아 併合、푸랑코新政權의 成立、日獨伊三國間의 防共協定、上海南京의 陷落、中華民國臨時政府의 成立等等은 다 日獨伊三國間의 直接間接、且 隱顯間의 協心共働의 表跡인 同時에 三大國民의 赫赫한 勝利의 記錄이다。

그中에서도 日本帝國의 勝利가 가장 컷다는것은 玆에 特記할만한 일이다。

그럼으로 只今은 歪曲된 生存權原理는 是正時代다。生存權原理는 只今 理論時代를 버서나서 實現期에 드러섯다。그리고 이 新時代는 實現過程으로 보아서는 아직 初步다。故로 世界政局의 이趨勢는 今後 相當한 年月을 두고 繼續할것으로 볼것이다。(了)

極東第二軍港?

蘇聯極東政策前進乎

【淸津電話同盟】大泊 淸津間航路의 島谷汽船 半貨物船 正福丸은 一日朝에 淸津에 入港하엿는데 同船의말하는바에 依하면 前航海까지는 射光七里의 沿岸 浦潮北東百七十里로 合밧게업든 蘇聯의 라치미灣에 今回에처음으로 射光七十里의 航空燈台가 新設된을 보앗다 同燈台는 三十秒間에 放光하고 同灣入口는 一哩半 幅二哩요水深도 여는곳이 十二米半인 天然의 良港으로過去 帝政時代부터 第二의 浦潮로하야 軍港의 豫定地로엿든곳인데 생각컨대 蘇聯의極東政策이 一步 前進되엿다고 觀測할것은 아닌가한다

今日本紙新年號合二十四面

謹賀新年

京城組合銀行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株式會社 第一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安田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三和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株式會社 漢城銀行
株式會社 東一銀行
株式會社 海東銀行
株式會社 朝鮮貯蓄銀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京城會社團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電氣株式會社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三菱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鐵道株式會社
株式會社 朝鮮取引所
朝鮮郵船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
不二興業株式會社
日滿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信託株式會社
株式會社 住友本社京城販賣店

高仁文

京城府蓬萊町一의二〇
明治製菓京城支店
電本② 〇七四五 三七六七

京城高等音樂學院
院長 沈影燮
電光③三五六二番
京城府嘉會町二〇八

東洋オフセット印刷株式會社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一番地
電話本局 ② 長四五〇〇番 長五三四〇番 〇二六二四〇〇番 〇三七六番
振替口座京城一七九番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鮮滿拓殖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
京城紡織株式會社

京城府太平通
朝鮮製錬株式會社

㊑ 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
京城驛前(古市町四三ナラサキビル三階)
電話本局長 三八九一 九四四番

朝鮮特産製造販賣 金源商店 맛칭장전 (但地方都賣特利五割奉仕)

鮮滿貿易委託販賣 模信商店
京城府新堂町二三〇番地
主 徐丙模
電本五七六七番

洋品百貨 往十里百貨店
京城府上往十里町二四三
金永培

合名會社 順興精米所
京城府下往十里町六六四番地
代表社員 韓順文
電話本局三七四七

穀物貿易委託販賣 ㊐ 東洋精米所
京城府下往十里町八五五番地
主 崔光圭 崔哲完
電本三七六五番

高級酒造 崇仁釀造場
京城府安岩町一六ノ三
電光一九一八番

金炳學
京城府安岩町八二番地

天和醫院
京城府上往十里町七七四
內外科 產婦人科
醫師 鄭雲 產婆 李蘭

三光醫院
京城府新堂町二四七ノ七
電本七四六一

兄弟酒店
京城府崇仁町一九九番地
電光三二〇四番

世一コンクリト工業所
主務 李哲和
京城府淸凉里町一四三

朝鮮鍮子株式會社 京城工場
京城府淸凉里町

株式會社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工場長 李丙吉
工場 京城府淸凉里驛前
自宅 京城府鍾路六丁目二三八ノ六三

崇仁面事務所
職員一同

金顯濟
京城府舊鐵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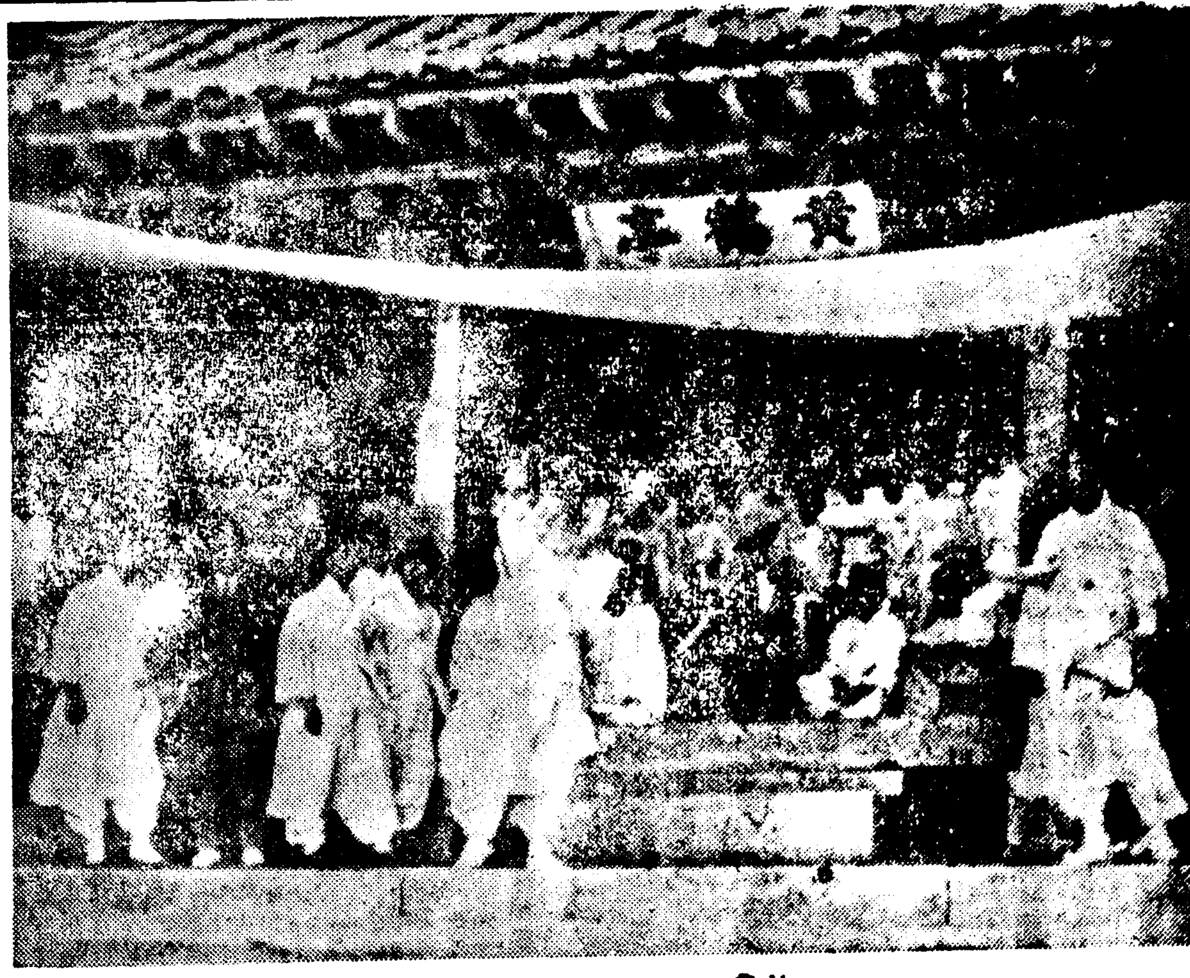
㋚ 三成運送店
京城府往十里町驛前
崔鍾成

㊥ 丸中運送店
代表者 朱銀成
京城府往十里驛前
電話本局三〇六六番

金昌植
京城府回基町一九番地

世一醫院
京城府淸凉里町

淸凉寺 申慈英
京城府淸凉里町



六弓手의百發百中에 台覽, 德國親王, 驚嘆

—三十九年前御前試射를하든光景—

近世名弓 "成翁의回舊談"

B 弓術篇

목은조선이남기고간 이땅의 활은 "기사"(騎士)이야기를거 설히온다음파가티 이야기를거 축한다

이와가티 리조말엽에 조선의 궁술이 거진업서지다시피 하엿섯는데 고종(高宗)기해(己亥)년에 궁술을 장려하야신체를발육식히라는 륜음(綸音)이 내린때로부터 다시금 경향에 궁도가 부흥하게되여 지금에 이르는것이지오 그런데 그때 궁도가 다시 부흥되든서술에내 가직접본것을 이야기하여 보리까? 그때가 기해년이니까 꼭 삼십구년전일이겟소 그때서양 덕국(德國)의 친왕(親王)이조선시찰을 와섯지요 덕국이니까 지금의독일(獨逸)나라겟지오 그친왕의 이름이 누구이던지는 모르겟소만 좌우간 이덕국친왕이 와서 덕수궁(德壽宮)에서 리태왕(李太王)께 배현(拜見)하엿는데 그가 못기를 조선에 고유한 무술이 잇거던 구경시켜달라고하엿답듸다 그런즉 그때에잇던 병경의 총가지고 훈련하는것이야 별고유한것이 못되기때문에 조선에는 고래로 궁술(弓術)이전해온다고하야 이궁술을 보이기로 뽑엿다고합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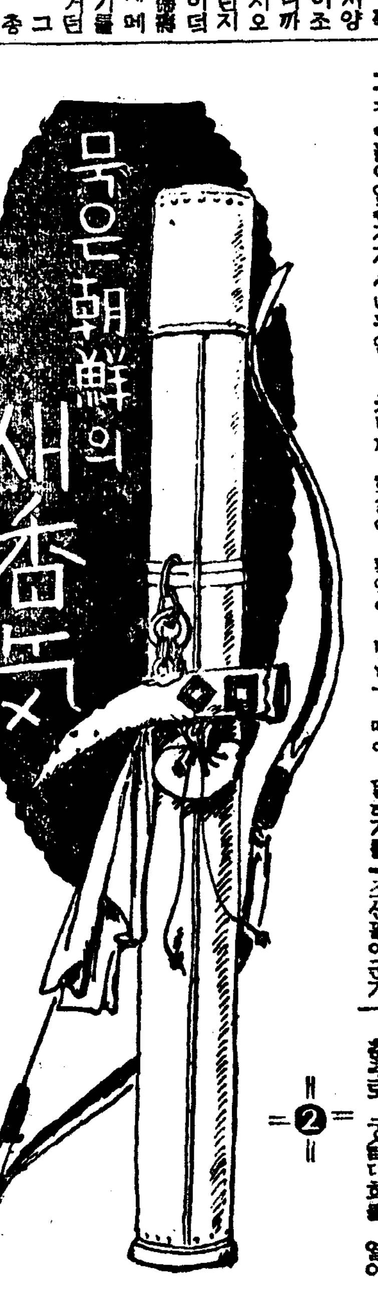
내가 열다섯살때부터 활쏘기를 배워서지금까지 오십오년이나되엿고 스물한살때에장충단(奬忠壇)에서 각지의 응모자를 여섯달 동안 시험하야 그중에서 가장시수(矢數)가만흔사람을 뽑는회시(會試)에서 우승을하엿소만 그호궁술이 쇠퇴하여저서 그때고종기해년에는 내가활을 폐지하고 집에들어안즌지가 사년동안이나되고 아모도활쏘는 사람이업든때인데 졸지에 내가집에잇스랴니까 덕수궁에서 리태왕께서 무감(武監)을 내여보내시어 시방 경섬 중학교자리에잇던 대궐안에서 관병식(觀兵式)을하는데 활쏘는것을 덕국친왕에게 구경식히려니 가지고 드러오라는 분부가내렷지요 그러더니 좀잇다 곳 다시기별이 나왓는데 그대궐에서는 관병식만하고 활은 경복궁(景福宮)후원에서 쏜다는 문표(文票)가 전달되엿섯소 이때서 황급하게 활쏘가지고경복궁으로 들어가보니 그때 안에서 이름난 궁수(弓手)로 여섯사람을 뽑아대령햇습듸다

그 전날조차 파거보이려 일간(日間)에는 덕국인 친왕과 그공사(公使)령사(領事)며 그수원등 덕국인 며가십여명이와잇고 궁내대신(宮內大臣)이 래황제의대리로 친왕을 접견하고잇습듸다 그래 여섯사람이 활을쏘기 시작하엿는데 대개 한살다섯을 잡고 네개 또는 다섯개를 땅땅마치니까 한살이 편여에 마즐때마다 덕국인의 박수갈채가 이러낫습듸다 그러더니 이윽고 친왕이 판연으로가서 화살을 손으로 빼여보랴고하는데 그때살이야 살이걸리그러서 쇠장촉이 아니면 어데 빼여저야지요 그러니 친왕이 비로소 감탄하야 고개를 끄덕끄덕하드군요 그다음에 친왕이 몸소 활을쏘아 본다고쏘니 활시우가 자꾸만 귀를때리기만하고 마서수어야지요 그래도 친왕이기운이장사입듸다 련달아오십개를 쏘드니다그러 그러니까 오십개째에 한개가 판여에마즐듸다 그러니 우슴소리와 박수소리가 터저나오든군요

이날 친왕이 대개 다른곳에서는 한곳에서 오래있서야 오분가량박게 구경하지를 안햇는데 이활터에서는 반나절을 더보내고 즐겨하엿습듸다 이러하여 리태왕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날석양때에 파사(罷射)하고들아갈지음에 여섯궁수에게 주대(酒代)를 하사하시고 그이튼날 활한장식을 주셧지요그후덕국친왕이 작별하고 떠날때에 말하기를「조선활이군기에 업시못할 물건인것이 총은 한명을 쏘면 한명이마자죽지만 활은 활촉에 독약을 칠하야 쏘아 마자서 곳죽지는안코 군사가 폐인(廢人)이되고말터이니 이폐인된 군사를 끌고다니느라고 성한군사까지못쓰게될터이죽 좃흔 천명이마즈면 천명이 못쓰게되나 활은이천명이못쓰게되지안켓느냐」고 하엿답듸다 하여턴 이덕국친왕이 한번 다녀간뒤로부터 리태왕께서 여태업서지다시피한 활을다시금 장려하시게 되엿는데 그때 궁술장려의취지로 내가비면서조처음에는 지금 명수정(?) 자리에 ○○쏘는 활을 ○○터에 태왕을 군지하시와 조선활이모두 이곳에 모여서사(射)를 하엿지요 그후경회(?)궁(宮)을 지금 황학정(黃鶴亭)의 사정을 새로지어서 황학정이라고하엿는데 현 리왕전하(李王殿下)께서총재가되시고 내가 우궁수로(右弓手)로 임명되엿섯지요 그후 지금 전매국(專賣局)판사를 짓는통에 현재의 사직공원근으로 옴겨왓소

현재 전조선각지에 수백의 사정이 잇서 다만 처음운동으로도 활을쏘고잇소만 활이라는것이 원래 법이 잇고 례절과 인사를 차리는 군자의 길로서 지금일본내지의 궁도는 그대로잘 발전되여 맛나볼터다 지난 소화삼년에 나와몇 명동지가 발기하야 조선궁술연구회(朝鮮弓術研究會)라는것을 조직하엿는데 소화칠년에 그명칭을 변경하야 조선궁도회(朝鮮弓道會)라고하고 매년 춘추로 궁술대회를 열어 궁도를장려하고잇지요 이궁도회의 총재(總裁)는 경기도지사로 되여잇고 부총재는 경성부윤으로 되여잇지요 활이란것은 몸을 튼튼히하고 정신을수양하여 나아가서는그 직히는 례절이 미풍량속(美風良俗)을 맨들어내는데까지 영향하는것으로 젊은사람들이야 여러가지운동이 잇겟지만 중년이상에게는 이활을 제일 권하고십소……

(사진은 황학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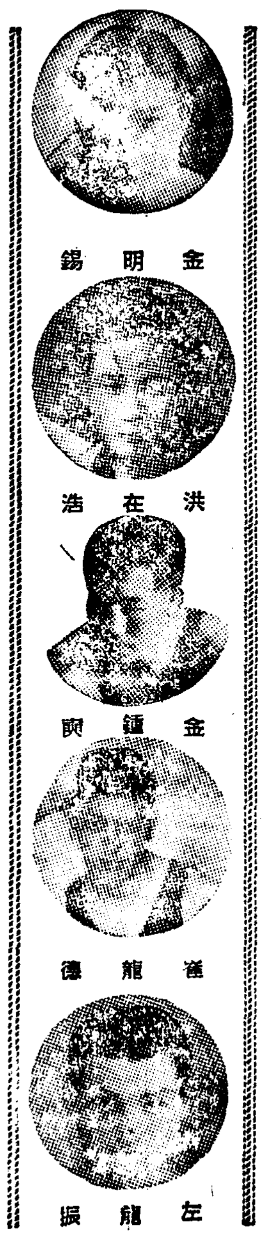


=②=

南國遠征의五勇士 新正마저凱歌聲

比律賓軍과初戰에全勝!

스포ー츠朝鮮, 快氣焰



金明錫 洪在浩 金鍾奭 崔龍德 左龍振

신춘벽두스포ー츠조선의 장쾌한뉴ー스… 동양권투(東洋拳鬪)계의 선진국 비률빈(比律賓)에 원정하야 대기중에잇든 우리의지보 김명석(金明錫)(朝拳) 홍재호(洪在浩)(關大) 최룡덕(崔龍德)(明大) 좌룡진(左龍振)(大阪) 네선수는 지난 삼십일오후여덜시부터 『마닐라』에서 전비률빈의학생선발군(學生選拔軍)과 제일전을행하바 철두철미 조선출신선수의 압도적우세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률빈군을 격파하야 바다저쪽 상하(常夏)의나라에서 권투조선의 용명을 떨치엇다 그리고 권투구일행과 함께 비률빈에 원정한 레스링계의총아 라이트급의 김종석(金鍾奭)(明大)군은 가튼삼십일밤에 비률빈의강호 『베르나베』선수를 격파하엿다

【푸라이級】 아랫스(比) 判定 濱口(日)

金明錫(日) TKO 히브리트(比) (第三라운드에 金君 TKO로 快勝)

【페더ー級】 洪在浩(日) 判定 로ー하스(比)

【라이트級】 崔龍德(日) TKO 보고에(比) (第三라운드에 崔君TKO로손쉽게 이겻다)

【웰터ー級】 左龍振(日) TKO 양코ー(比) (第二라운드에 左君TKO로이겻다)

經本問題와 高橋博士辨明

全部寫眞版으로햇다

경남합천해인사(陜川海印寺)에 보관되여잇는 국보(國寶)팔만대장경의 경판의 일부가 도단을당하고 또이것을 보충하다가 잘못 오래된경본(經本)까지 파손케한불상사가잇섯다는것은일찍 본보에보도하엿지만은 경본의파손문제에대하야당시이중임을맛고 노력한성대(城大) 고교(高橋)박사는 절대로경본을파손 또는오손(汚損)한배가업다고하야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작년봄에 만주국 황제폐하께 해인사에보관된 팔만대장경판의 경본(經本)전질을 헌상키로되여 여게대한 경판의 수보(修補)를 총독부로부터나에게 의뢰해왓음으로 나는될수잇스면 이기회에 완전한경본을 올하발만들기로하엿다 원래해인사 팔만대장경판중 잇실된 경판이십여매를 사내(寺內)총독시대에잇것을 새로 조각보충하면서그글시를 서가(書家) 김돈희(金敦熙)씨로부터 바더가지고전부판각을보충햇스나내생각으로서는 물론 김씨의글시는 명필임에틀림업스나 서체(書體)가 아모리해도 뚝 칠백년전파는 다른점이 잇스므로 리상적으로 이것을 보충하는데는 이경판의가장오래된판본(板本)을 차저 락질(落帙)된부분은 그글시대로보충하는것이 합당하다고하야 이럿킴된 이십여매경본을찾고저전국 각사찰에 조회를하엿든바 그중 세조대왕(世祖大王) 시절의판본으로서 금강산 정양사(金剛山正陽寺)에 보관된경본중에 십오매가량을 발견하고 남어지 오륙매는 역시 세조대왕시절판본으로 동경증상사(增上寺)에 보관된 경본중에서 이것을 마저발견하야 이것을각각내가책임을지고 파손 또는 오손을 하지안코 돌려주겟다는 증문(證文)까지 써너코 빌려와서 이것을 사진으로 복사하야 동경일류인쇄전문업자에게 코로타입판을 만드러이코로타입판으로 목각의 대서(臺書)로삼아 목각을 판후빌려온책들은 각각일호의 오손이업시 그대로 돌려보내게되것입니다 구판경본 그대로찌저목각의 대서(臺書)로삼엇다는것은 전만부당한 말이요 상식상으로판단할일일것입니다

養正快勝

全日本中等럭비

【大阪支局特電】 養正高普對福岡中學권투第一回戰은 十四對零으로 養正大勝하야 第二戰에드러갓다

養正高普 14 (5:0 / 9:0) 0 福岡中學

天氣豫報

豫報 오날밤은北西風으로개이고 明日도갯다 京城測候所도

昨日最高	一、六
〃最低	零下五、六
今朝最低	〃一〇、二
今日正午	〃二、二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畵 【16】

송악산(十六)

점심이 끗난뒤에 배돌석이가 사내들끼리만 편쌈을 구경하러 가자고 발론하얏더니 황천왕동이는 편싸움구경 재미업다고 실타고하고 서림이는 김천만이가 차저온다고하얏스니 달은데 가지말고 기다리자고하고 길막봉이는 처음에 갈듯키하다가 안식구들이 편쌈 구경은 무엇하러가느냐고 말리는데 솔깃하여서 마침내 고만둔다고 잡아 젓다。 배돌석이는 동무 업스면 혼자 간다고 분분히 옷을 떨드리고 산아래로 나려갓다。 배돌석이 간뒤 남은사내 세사람이 근처에서 몰아다니자고 말들하고 한께나서서 이리저리 다니는중에 매로바위뒤 한데숫 걸린곳을와서보니 김억석이 부자가 그제사 점심들을 먹는중이엿다 마침 달은사람보다 한걸음 압흘섯든 서림이가 먼저 「자네부자는 인제 점심먹나」하고 소리치니 김억석이가 한번 치어다보며 곳 밥그릇을손에든채 일어섯다。

「어서 먹게」

「엇재들 오십니까」

「왜 못올데를 왓나 자네보러 왓네」

「무슨 시킬일이 잇습니까」

「자네가 자랑하든 흰두솜구경할리구」

「그건 못하겟습니다」

「엇재서? 여기업나?」

「여기잇는 제보롱이 속에 엇지만 안보여 드립니다」

「장두대신 빼슬까봐 겁이나난」

「구경하시다구 아주 차지하시면 저만 낭패아닙니까」

「안먹은 외상은 먹지말구 먹든밥이나 먹게」

서림이가 김억석이와 실없는 수작을 하는동안에 황천왕동이와 길막봉이는 매로바위미테와서 바위들을 치어다보며 서너길되는다 못되느니 눈어림을 다투고잇섯다。 서림이가 와서 바위를 치어다보고 「이바위노피는 긴바지랑때루 두 젤수가잇슬지 모르지만젤 수가 업다구치드래두 망해도(望海圖)범만 알면 대번 바위노피를 알수가잇소 그아는 법은 조그만 나무때기를 바위와 가튼 방향으로 세우구 그림자기리를 재어부구 그다음에 바위의 그림자기리만재어보면 바위노피는 자연알게되우 지금 가령 한자되는 나무때기의 그림자가 두자가되엿는데 바위그림자는 스무자라하면 바위노피가 열자가아니겟소」 수리(數理)를알거냐하고 한바탕 잘짓거리엿다。 김억석이 부자가 섯섯는데 서림이의 수리자랑이 끗난뒤에 김억석이가 새삼스럽게

「참말 흰두구경들하러 오셧습니까」

「니까 지금이리 갓다드리리까」 하고 물어서 서림이가 미처 대답하기전에 황천왕동이가 우스면서

「누가 흰두구경하러 와다함인가 자네두 쌔 어린것한사람일세 그런말을 다 고지듯나」 하고 말하얏다

「실업슨말슴인줄 알면서두 혹시 몰라서 엿줘봣습니다」

「사람을 한번끌어다가두 삽인낫다구 야단치는판에 흰두를 번번서너 내놀러보게 송도부 군파들이 죽일놈을잡는다네」

「그럴바엔두 엄지안지요」

「흰두야기는 고만두구 여보게 이바위우가 편편한가 엇던가」

「올라가보지를 못했스니까 몰으겟습니다」

「여기 올라가본사람이 업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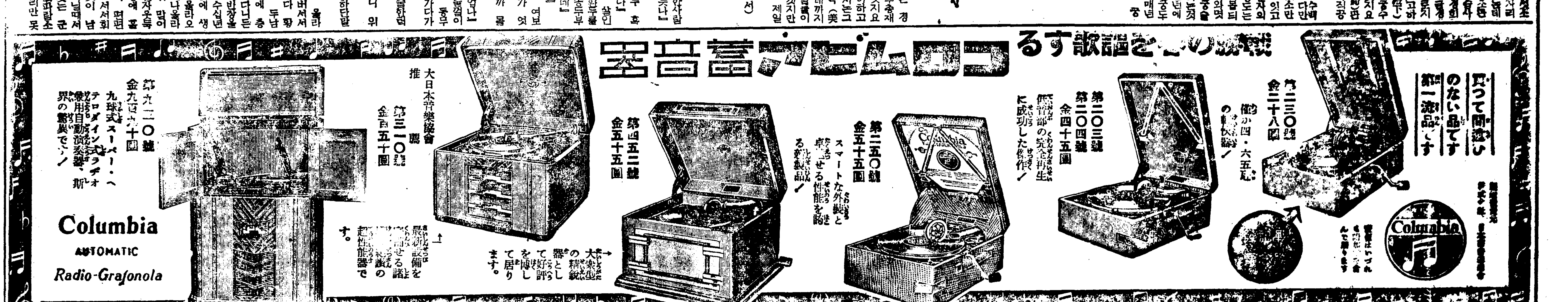
「아마 올라가본사람 업을껄이요 년전에 축군하나가 동무와 술내기하구 올라가다가 떨어저죽엇답니다」

「내가 올라가게 자네(?)」

「올라가시면 드릴테니 위태합니다 마십시오」

「이까지때가 무에 위태하단말인가」

황천왕동이가 바위우를 올라가본다고 갓과 웃옷을 버서서 김억석이아들에게 맛기엇다 황천왕동이는 백두산속에 자랄때에 두남매가 백두산속에 다람쥐가티 다니든 사람이라 매로바위꼭 대기를 올라가보니 생각하얏더니 수십년 올라간 사람이라 높은데 오르기를 좋아하야 이세상에 혼자오득 더상쾌하얏다 이세상에 혼자오득 노픈듯도하고 또 이세상에 홀로외로운 듯도하야 편편 치못한 바위우에 꼿꼿이 서서회파람을 회회불엇다 이것이 남매가치 산속에서 돌아다닐때서로 일어버리고 서로 찻는 군호불은 회파람이다 회파람소리 크기가 여간 피리소리만 못지아니하얏다。



네오톤(NEOTONE)의效果는 果然어떠합니까?

네오톤은 一般虛弱·病後衰退·呼吸器系統疾患及産後等의口味가업고身體가衰退한境遇에服用하면 其效力이優秀하여 實地로 여러愛用家諸賢의陳述한바에依하면 服用後數日에消化機能이旺盛해지며 食慾이增進하고漸次神經系統을刺戟하며 新陳代謝를旺盛케하여 諸般病的症候가消退되고 體重이增加되여自覺的으로 氣力의恢復을 늣길뿐만안이라漸次精力이旺盛해짐을認定합니다。

弊社가全東洋에 世界的强壯劑네오톤을 供給하기始作한後 十餘年間或은醫療機關을通하야 或은民衆에게直接으로 今日까지의需用된 네오톤을 量으로計算하면實로數千石에不下합니다。

네오톤을 服用한後 效果는各人에따라서 多少그奏效程度의差가잇슬지나大體로말하면 現代醫學原理에合致된高貴한强壯劑로서 異口同音으로如上의實效談을하게된것은決코偶然한事實이안이라고 生覺하야네오톤을아즉服用치못해보신諸位에게 參考로述한바입니다

(本劑를 服用하실때에는 먼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産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全國有名藥房에있음)

包裝 小 中 大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리ー트式穀物膨脹機 五合의쌀이八升 米가되는 의의米子菓製法傳授

王大기별도

新刊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北區浮田町九番地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八九番)

狸 狸、獐、山猫、猿、鶴、鷲、虎、豹、獺、穴熊其他 高價買入す 東京市下谷區入谷町三九〇 山口屋小動物園

빅타ー 一円盤流行歌發賣!

現代에도 이저바리지못할 푸른靑春의 노래여

漢陽은千里遠程 黃琴心

알뜰한당신 黃琴心

春風三千里 李仁槿 李仁根 (合唱入)

장가를갈게되면 李仁槿

回想曲 鄭天祥(?) 申(?)○花

미미쓰 의불(?)

歡喜의大春色 金松 金○紅

俗謠 한오백년 金○紅 二八歌

春香傳 夜讀하러나오는데 兎公傳 座席다툼하는데

劇 沈淸傳 (靑春座)

一枚金壹圓拾錢

吉盤 一月新譜 ! 總珠王의 ...

東洋劇場 電話光化門 三六四〇(事務室專用) 二五四〇(劇場事務用) 林仙圭作 『젊은그들』 全四幕 ◎주는 고즈아期待하소서!! 開演時間一時 夜間七時부터 △次週公演 然上演▽ 李雲芳作 『結婚悲歌』 三幕四場 月明 ○○의 ... 南宮春作 『笑門萬福來』 二幕二場 十二月三十一日밤부터一月五日까지(晝夜二回開演) △上演題目

若劇 團 ... 春座公演 換氣 煖房 完備

エノケンの猿飛佐助 後篇 大毎・大朝ニュース 踊らん哉 (1) 東寶超特作 (2) PKO超特作 フレッド・アステア ジンジャー・ロージャース主演 一回 12·05 1·10 1·30 二回 3·20 4·25 4·45 三回 6·50 7·55 8·15 四回 10·15 一月四日より七日まで

中央館 本三〇一四 永樂町 毎日晝夜三回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流浪の姉妹 新興キネマ 港 ... 一月三日封切 ...

다시본農振運動과農地令
實施爾來農村에미친影響
紙上座談会

參席諸氏

官廳側 咸南道參與官 金秉旭氏
府 任復淳氏
民間側 道會議員辯護士 秦容默氏
本社側 咸興特派員 朱洛璜

朱 農振運動이 實施된爾來 有形無形의 收穫을 남기고 다시 第二次計劃의 一步를 내디디게 되엿습니다 또農地令도 小作農의 急速한 要望으로 無理한 地主들에게對하야 利益을主張하는 調停申請도 數十倍식激增하야 이法令의 實果를 如實히 말하고잇습니다 이것도 十二年十月로 契約更新을 하여 第二期로 옴겨디되고잇습니다 이두가지가 明日農村更生에 重要한 關鍵인만큼이 제아모로 特히 咸南道로서의 特殊한 運動의 展開을爲하야 여러분의 意見을 들려주시면 조켓습니다

金秉旭 農村振興運動이 實施된지 五個年동안 農家에 미친 影響을 말하는同時 그 是正策에對한 意見도 함께말하려고 합니다

農家에미친 影響은 大槪精神物質兩方面으로 分類하야 運動實施前後를比하여볼수잇는데

▲精神方面으로는

一、國旗揭揚臺三六八三本設置
一、婦人의屋外勞働
十一年에는 五萬二百三十三戶
十二年에는 六萬百八十戶

△△咸興▽▽
一、啓蒙運動 施設 八七四個所 受講員數 二〇〇五七人 記帳可能者 九二九九人
一、時局에對한認識 農山漁民報國日의實施部落 一六三一部落 作業에依한獻金 四四九八圓

이리하야 그中에서도 特히當面한緊急問題인 文盲打破의實績이 가장現著합니다

▲經濟方面으로보면

一、苗板의改良 九割五分實施
一、正條植 九割三分實行
一、堆肥增産反當一三二貫增産
一、副業 二倍乃至三倍增産

여와가티 農民의 自覺과 農振指導者의 活動結果 現在의 實績은 運動前 食糧不足現金收支不均衡 負債의重壓에 呻吟하고잇든 農家一萬二千百九十五戶中 其生活程度의 向上은 아래와가티 實로 刮目할만합니다

食糧充足戶數 五割二分
負債의金額 四割減
現金收支均衡戶數 四割

어려하야 咸南道農民은 耕地一戶當二町三反의 富裕한面積을 所有하야 南朝鮮地方農民의 約二倍나 되는 自然的優位條件을가지고잇서 여기에 良質한 農民의自覺과 文化施設의擴充과함께他道에서 求할수업는 更生의將來性을 期待할수잇는現狀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農振運動에잇서서 特히 그方法에多少의 改良을要하지안으면안될것이 업지안타고 생각되는대첫재 그計劃이너무煩雜하야單純한農民들로서는 一一히 그實施項目을 解得實行키 困難한點입니다

數多한計劃이라고 하드래도 結局은 歸一되는點이 農村의更生에 잇다는것은事實이나 이指導를 밧고잇는 農民들은어느것을 먼저하면 올흘는지迷惑되야 도리어運動에 支障을 이르키기쉽습니다 急速히 指導項目의 簡便化를 圖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가지는 特殊한 更生部落의指導에 置重하기보담은 農村의 振興會를强化하야 全般農家의 均衡的更生을 도모하여야할것입니다

이것은 一般的으로 小作農으로의轉落을 積極防止하며 이미 轉落된部落은 自作으로更生하게끔 努力하는대 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特히形式보담도 實質에置重치안흐면 안될것입니다

任復淳 오래동안 疲弊困憊에울고잇는朝鮮農村을 살려준다는 農村振興이라는 大運動이 이러나게된것은 必然的입니다。

이運動을 生命線으로하는以上 때로이에對한 檢討와要望이잇서야할것입니다。이제이運動이 實施된 昭和八年以來 五個年의 歲月을 지난 今日에 그精神과 輪廓또는 그동안表裏에나타난 實績을 過去에잇서서 恒常 體驗하엿고 縱으로 橫으로 目睹하는 立場으로서 檢討할때에 實로 全幅的贊意를 表하지안흘수업는것입니다 이運動이 實施되기前에比하야 만흔 效果가 나타낫습니다。

이제 그農民에게 미치는바 影響이 크고 農村으로서 가장遺憾으로 생각하는몃가지를 陳述하야 들어말하고저합니다

民衆의指導는 過度의 宣傳과 形式을떠나서 實質本位로 나아가야할것 上府官廳部에게實績을떠난 誇張的報告 또는紹介가는것은 農民에게 미치는 精神的惡影響이 크것입니다 따라서 當局이 計劃樹立에支障이 만흘것입니다 즉 施設이 結局 優良部落또는 優良部落을 標榜하야 樹立實施되게되면 所謂 民度에適合지안키나 偏重된 施設이 되고마는 弊가 잇을것입니다 그러므로 特히 指導第一線에선 各位에게 一考를 求하지 안흘수가 업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大運動을 一層有效하게 進展시키려면 農民敎養과 施設은漸進主義로 指導項目 簡便化를 圖하여야 할것입니다 特히當局이 이點에對한再考가 잇기를要望하는바입니다

農地令은 地主의 正當한利益을擁護하며 小作農의 生活을 安全케하야 地主小作人協調融和精神下에서 農事의改良發達 農家經濟의更生을 期할 目的에서 公布되엿다는것은 一般의 周知하는事實입니다

이제그公布된以後 至今까지의 地主小作人間에 미친바影響을볼때에 첫재 小作爭議는 依然히 續出되며 一部에서는 그件數가 從前보담은 늘고잇는곳도잇스나 이것은 그法令의 內容에 不合理한 點에서 일어나는것은아니요 法令이公布된지 日淺하야 地主小作人間에 趣旨가 徹底히 普及되지 못한點 一部地主의 法令惡用 管理人舍音의 跋扈等에基因된點이만흐며 한편小作人의 一部에잇서서도 法令을바패로 有害無益한 反抗行動 即兩者사이에 感情問題로 爭議를釀出하는일이적지안흐니 이가든弊害를 一掃하고 目的을達成시킴에는 爲先地主는 小作人에게對하야 恒常 道義와 寬容으로써對함것이며 小作人도 이法令의 根本精神에依하야 相當히 自重할必要가잇거니와 關係當局으로서도 本令의 趣旨를宣傳에 一段의 努力이잇서야 할것은 現在府郡局에 設置되고 잇는小作委員會의 爭議事件取扱遲延입니다 小作調停申立一二件이 提出되면 常務委員이 아닌以上 僅少한件數를 處理하기는困難하다하야 그때그때로 取扱하기는困難하야 件에 모아지는 때를기다려서 約五六件乃至十餘件에 着手하게되니 그동안 時日이 經過됨에따라서 爭議의內容은 漸次複雜케되며 將來 外로 그惡化를 招來하는 境遇가적지안흐며 더욱이 農耕期에잇서서는 그影響되는바가 至大한 事實上 困難한關係도잇겟지만은 昨今過渡期에잇서서는 特히 이施設運行上遺憾이라고 하야할것을 痛感하는바입니다

秦容默 農地令이 朝鮮에 施行되야가지고 爾來三年 小作關係에잇서서 顯著한效果를 보이고잇습니다 特히 南朝鮮地方에잇서서 보다더큰效果를 어든것은 北朝鮮에는 事實에잇서서 小作人地主間의 爭議가 그다지만치안혓든까닭에 農地令의 影響도比較的北朝鮮에는 적엇다고볼수잇습니다 이 法令에 依하야 地主의所有權 濫用의 弊風이 多少矯正되얏다고는하나 그러나 朝鮮農民은 初等敎育도 밧지못한사람이太半인 關係上 그들이自己네를 保護하는法益을 濫用하야 도리어合理的인 地主에對하야서까지도 親切味를缺하며 善良한地主의 指導를 誤解하는弊風도업지안습니다 이러한點은 今後農村振興運動의 一課目으로서 잘農民大衆에게 農地令의 根本精神을 認識시켜 正當한地主와는 서로協力하야 耕地上의利益을 보다더 거둘수잇도록 加一層의指導도 必要한것입니다

모저럼 생긴農地令의 精神을誤解하야 小作人만의 保護라고생각하야 小作人이 地主에게對하야對立的態度를取하는것은不當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法地主對小作人의 融合協力心을 涵養함에는 農民의 敎養機關이必要할것이며 全然敎養이업는 地主小作人에는 아무리理想的인 農地令이 施行된다고 하드래도그 效果는 그다지바라기 어려울일입니다 要컨대 農地令을 地主小作人에게 絶對로遵守케할려면은 農民의 敎養程度를 보다더노피지안허서는 안될것이며 同時에 第二世地主小作人에는國民的初等敎育을 普及하지안코 如法文의精神을穩得하야實行을 守하는힘은至極히적을것입니다

鼎齋 崔禹錫氏筆

參席諸氏

社會側 金秉律氏 鄭起元氏
本社側 特派員 安商壽

安商壽 農村振興運動開始爾來 一般農家에 미친 影響이 어떠하며 或不合理한點이 잇다면 말슴하여주시요

金秉律 農村振興運動이 疲弊하여진 朝鮮農村에잇서서 多方面으로 有益하다만하라고 생각합니다 種子改良이라든가 堆肥獎勵며 各種改良農具使用 高利債整理等은가장조흔일이라고 보겟습니다 그러나其反面에農民들이 高利債를整理하게되엿다고 이것을가장 安全策으로 면 農民들의 實際事情에는實盲目的이고 冊床우에서 統計的으로 事務的으로 農村振興運動을 하고잇는感이 업지안흐니 其結果가 조치못할것은定한 理致일것입니다 例컨

알고 農家로서 가장必要한副業을 지불려하는傾向이 잇스니 이것이큰罪過라고 봅니다 이는勿論農民自體가 反省하여야할일이지만 副業은반드시郡農會가 좀더 積極的獎勵할實任이잇다고봅니다 그리고農村이振興되려면 첫재農村의中堅人物養成이 必要하며 둘재農村의一般施設이 率先되리고하겟습니다 말하자면 部落마다 部落民을 實際에잇서서 指導할만한 中堅人物이잇서 精神的으로 實質的으로 指導獎勵하여야할것이며 方今實施되고잇는 正租換貸問題라할지라도 農村에 아모施設이업기때문에 不得已 農産品을 都市로가져와서야 換貸를하고 實實하게 搾取를當하게 되엿스니 自然中間商人들에게 搾取를當하게된다는것이다

鄭起元 一般的으로보아 農村振興運動으로因하야 一般農家에 잇서서 從前보다 훨신改良된點도 만코 農民들도 在來農事方法을 改良하여 生産能率이增加되는것도 事實입니다 監督官廳이 實際農民의 在來心理狀態와 實際事情을 參酌하여야 漸進的으로 指導獎勵하여야할것인대 現在農村振興運動의 第一線에서 指導獎勵하고잇는 郡農會나 面職員들을보

대堆肥增産狀況을보면 첫재堆肥舍같은것도 適當한場所에適當한 施設을 要할것이나 그저 規定에依한 堆肥舍를强制로設置케한후 堆肥의增産에도農家에適當한 時期를 利用하여야할것이나 郡農會가定한時期면 農事를除하고라도 堆肥의增産을 强制로實行케하니 監督官廳의 立場으로보아 事務的으로는成功일는지 모릅니다 農家의實情으로보아서는 도로혀弊害가되는 例가 적지안습니다 그리고肥料가튼것을 共同購入하여주고는 郡農會가 口錢을밧는일까지잇다는評이잇스니 이것이事實이라면 얼마나 遺憾된일인지 알수업습니다 農村振興의根本精神이야말로 疲弊하여진農村을 更生케한다는 조흔精神인것이 事實이나 實際指導的立場에잇는郡農會나 其他機關이 좀더 實際的으로 充分한監督이잇기를바래는바입니다

安商壽 農地令實施以後 一般農家에미친影響은 어떠합니까

尹鶴模 在來로 朝鮮農村制度란 地主小作人中間에 所謂 農監이란것이 잇서 小作人을 搾取하고잇섯는데 農地令實施의 根本精神이 農監制度의 惡弊를 除去하자는데 잇다고도볼니다 그야말로 當然한 方針이라고봅니다 그러나 實際에잇서 農地令實施以後 一般的傾向을보면 純全히 農地令이란 小作人을 絶對擁護하기爲한 制度인줄 誤解하는이가만흔모양입니다 勿論 地主가운데는 無理하게 小作權을 移動한다든가 無理한 小作料를 要求하는이도 잇는것이 事實이나 相當한理由가잇고 또農地令에違反되지안는程度에서小作權을移動하려해도 弊一言하고地主便을눌러버리는例가잇스니 甚하여는農地令을運用하는爲政者가운대도農地令의根本精神을沒却하는이가잇는듯십습니다

△△△△△△浦南鎭▽▽▽▽▽▽

農地令에비초여地主와 小作人間에 利害點을論한다면地主側은八分小作人側은二分박게안된다고하겟는대現在우리地方에서 實施하고잇는것을보면農地令實施以後地主는아모 權利가업는것처럼되여잇다는말입니다

鄭起元 農地令實施는 生活安定과 福利增進을 爲하여 가장適宜한 制度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遺憾인것은 元來가農夫一生無閑日로더구나小作人들은 남의土地를耕作하는이만치 一層勤勞하여야할것인데 農地令은小作權을移動할수업다는것을鐵則으로알고 農事에怠慢하다면 그는큰잘못입니다 農地令의主要한精神은 勞資가協力하여 均等한利益을取하자는것이라고하겟는데 小作人들이 最善의勞力을다하야勤農만한다면 어느누구가小作權을移動할이가잇겟습니까 첫재小作人自體가 一層反省할必要가잇다고생각되며 둘재農地令을實際運用하고잇는 小作委員會나 또郡農會當局者들은 一

過去一年間의 내고장
敎育界恩人 프로필

全州海星學校는 昭和七年度에 府內大和町 天主敎堂內에서 一 同敎正義와 實理에 醇化시키며 敎育事業을 發展케할 目的으로 …을 募集하야 敎養함과 同時에 一式으로 普通學校 科目을 敎授하야와다 그當時에는 經營困難으로 敎舍도업시天主敎堂의一部를빌어 使用하야오든바 그後校運이 날로 發展하야 現在學生數는 男女共學制度로

	男	女
一學年	四七	三三
二學年	三六	三三
三學年	三六	一九
四學年	三一	二〇
五學年	三三	一八

等 三百餘名을

收容

하고잇스며 今年十一月十日頃에는 同校를 擴(張)하야 海星普通學校로 當局에 認可申請한關係로 一般社會에서는 同校에 對하야 期待가 크게되엿다

粗衣惡食·勤儉貯蓄
欣然!育英事業에
經營難의全州海星學校에
數萬金을快擲한李春華氏

前記와가티 海星學校가 創立된지 不過六七年間에 赫赫한 盛運을 띄우게된 後面에는 숨은 篤志家인 府內 大和町 李春華氏가 物質과 精神으로 熱烈히 後援하엿기에 依하엿스니 氏는昭和八年度 前記 海星學校의經營困難으로 設備不充分함을 듯고 自進하야 私財五千餘圓을 드려 校舍를 建築하고 同時에 學校基本財産으로 百餘石秋收하는畓을 同校에 寄附하게되자 學校幹部側에서는 前記李氏에게서 바든 學校基本財産에서 收入된 金額을 數三年을 두고 近五千圓이나 貯蓄하게되자 이金額으로 今年봄에

校舍

增築을 實行코저 하얏스나資金이不足하야建(築)하려든同校에서는 今年七月부터 同校庭內에 建坪 百六坪의 鍊瓦制 四校室을 建設施工하얏든바 지난 十月八日에 竣工이되얏스며 이와同時에 學父兄의 後援을어더 他校에 遜色이업시 理科實驗器具와 敎材 校具를 充分히購入케되얏다 將來에는 一

事務所를 保留하는外에 他道가업서 遺憾으로 잇든중 이消息을 들은 李氏는 또다시 自進하야 校舍增築補助金으로 現金大千圓을 自進寄附하얏스므로前記學校基本財産에서 貯蓄된 五千圓과 合하야 一萬一千圓을어 學年에 二學級식을 增加식이리라한다 이와가티 海星學校가躍展하야감은 오로지 李氏의

物心

兩方面의 多大한後援의 賜物이라는 依한것으로 이야말로 全州初等敎育機關을 爲하야 明朗한消息이라아니할수업다 海星學校의發展相과 李氏의 美擧는 前記와갓거니와 李春華氏가 同校에多大한援助를 하게된動機를 紹介하자면 氏는 本是 全北鎭安郡出生으로 幼時부터勤儉態行하야 自手로 數十萬圓의 財産을모핫스며 平常時에도社會事業에 돈을두워오든바現下朝鮮社會의 情勢를보아 무엇보다도敎育事業이 緊急함을 切實히 느끼고 잇든중 前記海星學校가經營難에 빠진것을 듯고 氏는 物質이잇서 一個人或은一家庭의生活만을 裕足히하야 個人享樂만取하는것은 사람된本分을 직히는것이아니고 衣食에 節約을 하고서라도 事業을하는것이 사람의맛당히 할바의것을깨다른後 育英事業에獻身的努力한것을 맹서하얏다하니 氏는 實로우리社會의恩人이며 貧弱한敎育機關에 曙光이든 存在라아니할수업다

(寫眞은海星學校와李春華氏)

(全州支局一記者)

謹賀新年

(義州)

義州郡廳職員一同
義州警察署 職員一同
高一清
淸城鎭親交會
金義鎭
崔廷祐
義州郡玉尙面下庚洞 鑛業 張承甫
義州鑛山株式會社第二鑛業所 於上洞指定製錬所 申光鉉 金鼎鉉 (平北義州郡玉尙面)
義州邑職員一同
平安北道立義州醫院 職員一同
義州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寬淵
高東煜
金學俊
金炳洙
金宅善
白昤瑞
平北義州邑 穀物貿易 酒類製造 李學淳 鴨江酒造社 電話七三番 振替京城一一五五九番
金剛寺住持 宋宗宣
義州郡光城面 姜利璜

金亨煜
玉尙面長 獨孤徹
玉尙面事務所 李鳳坤
大元自動車部 金連鶴
義州中台市 金龍鳳
崔性根
義州郡玉尙面中台市 布木雜貨貿易 同信商店 崔孝鳳
金日奎
義州邑內 朝鮮支那料理 東洋館 電話二一番
義州邑市場通 朝鮮料理 萬盛館 黃成國
義州郵便局長 藤井幡介
義州金融組合 吉本五六
申彦清
穀物肥料 東亞商店 電話七二番
國境映畫社 金孝兵
義州邑南門洞 朝鮮支那御料理 鴨綠館 電話一〇二番
義州邑市場通 朝鮮料理 平壤館 陳分伊
淸城鎭和信連鎖店 同信號
中台市 鑛業 金致坤

中台市 鑛業 金允玉
玉尙面花洞 鑛業 劉健澤
平北道義州郡白馬山事務所 職員一同
中台市 職員一同
鑛業 瑞記號
中台市 鑛業 吳一貫

(新幕)

朝鮮中華御料理 永樂館 主 金永 電話四十六番
新幕學校 敎職員一同
穀物貿易 李炳燦 電話二一番
朝鮮料理 迎陽館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開城支店 新幕出張所 電話一一番
穀物貿易商 李彦淳
瑞興郡東部面事務所 職員一同
朝鮮新幕二百九十番地 同興裕鐵工廠 振替京城九七九四番
朴國善
(三) 新幕荷主運輸組 電話一三番
新幕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新幕釀造株式會社
張煥奎
瑞興郡木回面事務所 職員一同 電話三九番
朝鮮京義線新幕驛前 穀物肥料 食鹽雜貨 委托貿易 高光祚 電話三〇番
內科外科 産婦人科 皮膚梅毒科 順天醫院 電話四三番
金基俊
京義線新幕 天山藥房
新幕金融組合 職員一同
獸肉販賣組合
司法書士 郭奉周
洪鍾運
朝鮮京義線新幕驛前 新光商會
金基善
李順吉材木店
三興理髮館
穀物問屋 黃和卿
朝鮮新幕 海陸物産 委托貿易 廣澤商會 電話五一 振替京城九二六番
無名氏
崔銘直商店
東洋旅館
パイロット萬年筆特約店 和洋百貨 朴東春商店
金用健
卜哲
金鳳鎭

(洪川)

江原道會議員 大塚源七
洪川郡南面花田里
洪川郡九村面道寬里
江原道洪川郡乃村面道寬里 濟生醫院 醫師 金泰河
斗村酒造合資會社 代表社員 南一祐 專務 南相烈 支配人 金振邦
洪川郡乃村面道寬里 許萬千
江原道洪川郡化村面城山市 華陽醫院 金官鉉
洪川郡化村面城山里
洪川郡瑞石面豐岩里 金勇一
洪川郡瑞石郵便所
洪川郡瑞石面淸原里 北田鑛山
邊連奉
華東金融組合豐岩支所 尹貞重
洪川郡瑞石面豐岩市 公醫 姜萬壽
洪川金融組合 陽德院支所
洪川郡南面陽德院里 濟壽醫院
洪川郡南面陽德院里
洪川郡南面事務所
申鉉八
藥酒濁酒 製造元 華陽酒造合資會社
洪川郡北方面上花溪里 鄭元永
洪川郡農民訓練所 和田初二
洪川酒造株式會社花溪配給所
洪川郡南面陽德院市 金弘植
洪川郡南面陽德院市 申鴻永
洪川郡南面花田里 俞鎭喜
洪川郡乃村面事務所 許忠煥
瑞石面 職員一同
北方面事務所 李明薰
洪川郡乃村面廣岩里 可興金山
洪川郡南面陽德院市 泰昌白鵬東商會
江原道洪川郡化村面也是伐里 大盛金鑛事務所

昭和의 常識

明治十五年一月四日에[illegible]下[illegible]

日記는、자기前의五分間으로一定해두면 어느사이에、每日의[illegible]이되야[illegible]히[illegible]할수있다

젊은사람이、술맛을알기始作하게되는것은正月에第一만타、父兄年長의關心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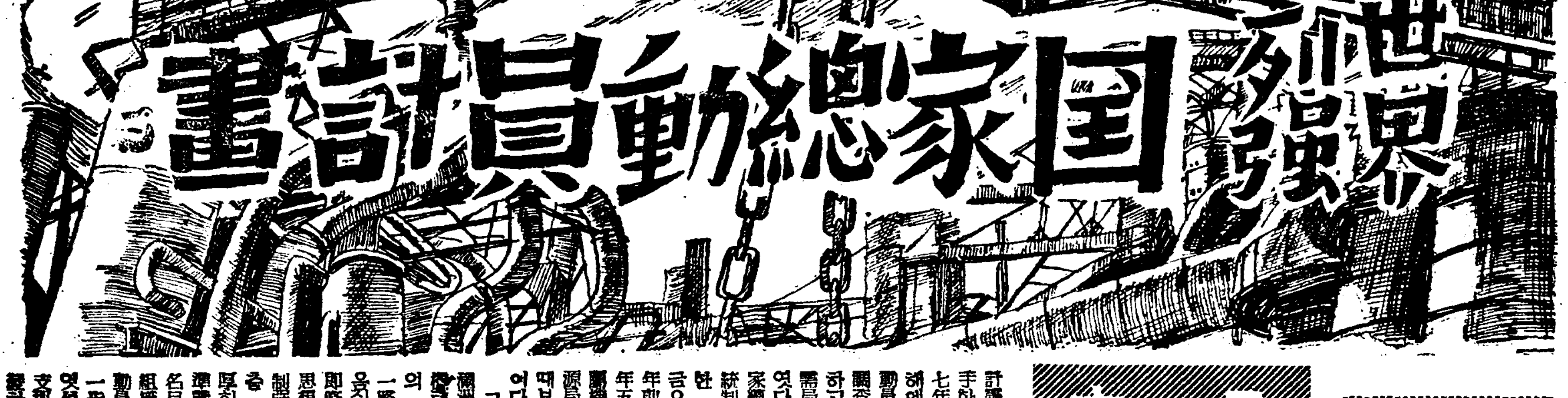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八

現代戰은國力戰! 全機構動員이必要

精神的物質的兩方에亘하야 列强總動員競爭時代

方今 戰時狀態에잇는 나라는 西에는 西班牙 東에는 日支兩國이다 그러나 列强은 어戰時狀態와 戰火에 直接關係잇고 업슴을 不問하고 한결가티 全國力을 集中하야 軍備에로 軍備에로 걸음을加하고잇다 어것이 오늘날 列强의 가림업는 眞面目이다 어떤나라에 잇서서든지 어미 一切의 國民生活은 다만 軍備擴充을 目標로 統制되고 잇지안혼가 그런데 現代戰에 잇서서는 戰鬪가 어머 技術化하고 化學化하엿다 어것이 現代戰을 國力戰의 段階에까지 進展식힌 重要한 契機이거니와 이로말미아마 現代의 國防戰은 平時의平和한 工場을 最小限의 施設을加함으로써 곳 兵器工場으로 變할수잇고 또 그밧게 모든平和한 産業은 언제든지 卽時 戰爭産業으로 活用되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 뿐만아니라 現代의 國防戰의 範圍는 豫想以上으로 擴大되야 政治經濟는 勿論 敎育 思想 宗敎 藝術 卽精神 物質의兩方面의 總動員을 要하게되엿다 따라서 現代의 國防政策은 思想作戰 經濟作戰 武力作戰及 어에併行할 政略戰을 一元的으로 統制計畫하야 언제나 迅速히 作戰에 就할만한 全般的準備에 그本意를 두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 이것이 現代戰에잇서 所謂 國家總動員計畫을 不可避케하는 理由이거니와 國家總動員計畫이란말을 다시 要約하야보면『交戰에當하야 軍事의要求를 完全히 充足시킴과 同時에 一般國民의 生活을 確保하면서 戰爭遂行에 國家의 全能力을 發揮하기爲하야 國家全體를 平時態勢로부터 戰時態勢에 옴기고 國家가 利用할수잇는 人的物的 有形無形 一切의資源을 統制按配하야 가장合理的으로 또經濟的으로 活用케하는計畫』을 말하는것인데 어제 列强은 軍備擴充과 아울러 이國家總動員計畫에 자못 激烈한 競爭을 演出하고잇다 그러나 실상 國家總動員計畫이란 昨今에 始作된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世界大戰이 남겨준 最大의敎訓으로서 大戰의停戰 라팔소리가 채사라지기도前에 大戰에서 쓰라린 體驗을 어든列强은 곳 어點에 着眼하야 그準備에 着手하고 엇섯든것이다 (李甲燮)



滿洲事變機會로 統制政策强化

財源局에서企畫院에

日本

我國에서 國家總動員의具體的 計畫準備에 着手한것은 大正七年으로서 어해에 軍需工業動員法及 軍需調査令을 制定하고內閣에 軍需局을 設置하엿다。그러나國家總動員、經濟統制에의 强大한 努力은 지금으로부터 十年前인 昭和二年五月 內閣直屬機關으로 資源局이 設置된때부터라고할것이다

그런데 그後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야 日本의 內外情勢는 一路統制에로달음질치고잇섯다 卽修正資本主義 思想과 國家統制强化政策은차츰 그色彩를濃厚히하야 所謂 準戰時體制라는 名目下에 經濟組織의 國防的 動員化가 一步一步 前進하고 잇섯다 여기에 支那事變이 勃發하엿다

그래서 準戰時體制는 戰時體制로 飛躍하고 國防과 經濟는一段 高度로 統一强化되엿다 따라서 經濟를爲한 國防이냐 國防을爲한 經濟이냐하는 問題는 이미 解消된것으로 보려만치兩者는 一致되엿다

大正七年軍需局이 設置되엿다는것은 前記한바와갓거니와 當時大戰에서 歐洲列强의 經驗을 보고 前記軍需工業動員令及軍需動員令을 制定하엿다 그리고 이것을 運用하기爲하야 內閣에 軍需局을 두엇든것인데 大正九年에 일으러서는 內閣統計局에 合倂되고 다시그해에 新設된國勢院에 參加하야 軍需工業動員法實施에 關한 事務와 工業統制에關한 準備施設을하고잇섯다 그後 大正十一年에 國勢院이廢止되자 이事務는 一時農商務省에 移管되앗섯다 一方 陸海軍에서는 大正十二年 陸海軍需工業動員協定委員會를 設置하고軍需工事業의 調査分配의 準備를 進行식이고 잇섯다 차츰어方面에對한 輿論이 高하지기始作하야 昭和二年에는 資源의局設置를보게되엿는데 어때부터 資源의 統制運用準備에 關한中樞機關으로 活動함과 同時에 國民의經濟生活에 周到한 注意를하게 되엿다 그리고 資源調査令이發布됨과同時에 一方 資源審議會各官廳과 連絡하야 資源調査統制 運用等에 關하야 積極的으로 考慮하지 始作하엿다 그런데 滿洲事變을 契機로 岡田內閣은 內閣審議會와 內閣調査局을 創設하엿다 두機關이 한결가티 當時弱體內閣의 補强機關이엿든것이 事實이지만 調査局案만은 軍部에서 提出한것이니 만치 資源局이 經濟總動員을目標함에對하야 여것은 國家의重要政策을 調査하고 特히總理大臣의 命令에依한 重要國策審議를 目的하엿다

그後 廣田內閣當時에 國策審議의 中樞機關으로 調査局을擴大强化한 企畫廳과따로 中央經濟會議를 創設하야 經濟政策의 부레인·트러스트的役割을서키려고하엿다

그런데 企畫廳이 事務開始를하자 支那事變이 일어나서 國家總動員計畫을 補成하게되매 어에企畫廳을 擴充하고 資源局을 吸收하야 昭和十二年十月廿五日 企畫院을 新設하엿다 이제 어企畫院이 總動員에關한 모든計畫을 進行식히고잇거니와 이總動員令을 强化하는諸法令을 들어보면

一、軍需工業動員法 (大正七年法律第三十八號)
二、徵發法令 (明治十五年太政官布告第四十三號)
三、軍機保護法 (明治三十二年法律第百四號)
四、陸軍의機密書類에關한件 (昭和八年陸軍第二號)

伊太利

맛쇼伊太利는 獨逸과가티 그 國家의性格上 가장 國家總動員計畫을 徹底히 施行할수잇는나라다 卽 職能合을 國家組織의 根幹으로하는 制度를 決定한勞動憲章 (一九二七年四月)에 依하면 全産業을 二十三個部門의 職能組合에 分類하고 이二十三個職能組合의 代表가 全國會議를 열계되엿는데 여것이 곳 全産業問題를 審議하는 國家의 中樞機關、組合國家의 參謀本部이나 將次 伊太利에서는 議會制度를 廢止하고 어職能組合으로하여금 議會에 代身케할모양이라고 傳하거니와 무首相은이組織으로써 그의命令一下에 마음대로全産業部門을 움사리 動員시킬것이다

以上 全體的經濟動員計畫以外에 어보다압서 一九二二年에는 國防最高會議를 設置하야 國家總動員에關한 最高諮問機關의役割을 하게하엿고 一九二五年에는 伊太利國家總動員令을 制定發布 다시 一九二五年에는 經濟省에産業總動員局設置、軍事豫備敎育法 在鄕者軍事敎育法 軍事講座法의實施、一九三七年파시스트大會의 一、軍事的關係産業의 自給自足을 確立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國民의 非軍事的需要를 軍事的需要의 犧牲에 供할것 二、伊太利의科學 技術을 右自給自足確立에 協力케할것 三、十八歲以上 五十五歲까지의 全國民에게 完全한 軍事敎育을 實施하야 動員할수잇는 國民의 各職業을 調(査)期的으로 召集할것等의 決議에 依하야 實로伊太利는 國家總動員準備의 內容充實、武器整備等完成에 한발이 엇다는 現狀이다

(寫眞은 伊太利首相 뭇솔리니氏)

利潤을無視하고 一路國策을斷行

總動員計畫下에全機構組織 獨裁國家의特異現象

蘇聯

蘇聯은 플로레타리아ㄱ트의徹底한 獨裁國家로서 어點에잇서 獨伊보다도 모든機構가 훨신組織的이오 統制的이다 따라서어나라는 全國家構成을容易히國家總動員準備의方向으로 統制할수잇다는點에잇서 어느나라보다도 優越한地位에 잇거니와 二十年前 建國初부터 經濟動員을 國是로하여왓고 周知하는바와가티 一九二八年以來 第一、二次經濟五個年計畫에 成功하야 一九三八年부터는 第三次五個年計畫에 着手할모양인데 이計畫으로써經濟와國防計畫을 巧妙히 成就식히고잇는모양이다 經濟參謀本部인 國家計畫委員會(一九二一年勞働國防委員會所屬으로 創設되야 一九三一부터는 聯邦人民委員會에 直屬되엿다 다시 一九三五年에 多少改造되앗고 그委員으로는 學者技術家 政治及文化指導者七十人이 이에當하고잇고 어밧게 獨立하야 國防部 勞働幹部養成部 農業材料部、自動車交通部 通信部 健康保健部等等이잇는데 어떠튼 이나라의 非常時政策에는 諸他資本主義國家의 參考될만한點이 만흔모양으로서 利潤을無視하고 一路國策을 遂行할수잇는것等特點은勿論 달은나라에서는 볼수업는일일것이다

總動員計畫으로 列强中第一整然

佛國

佛蘭西에서는 어미 一九二一年(停戰은 一九一八年) 國家總動員의 最高諮問機關으로 高等國防會議를 設置하고 議長으로 首相 委員으로 陸海軍大臣을 비롯하야 大藏、內外務 各大臣을 任命한外에 陸海軍高等軍事會議 副議長까지 參與케하야 實로 國家最高의機關임에 遜色이 업게하엿다 그리고 一九二四年 佛政府는 다시 國家總動員法、그 다음해에 佛國國家總編成法案을 各代議院에 提出하엿스나 軍事委員會에 依한 그 修正案이 元老院의 可決을보지 못하고 其後의政府의 頻煩한更迭로 말미아마 實現의機會를 엇지못하고 잇섯는데 近年 獨逸의再軍備宣言『라인』非武裝地帶進軍에 刺戟되야 一九三五年 政府는 다시 이에對한新法律案을 代議院에 提出하엿다 어것도 亦是陸軍委員會의 審議에 끗칠뿐으로 아직 實現을 보지못하엿스나 早晩間 成立될것은 틀림업는 事實이다 이法案은 全文五章、大端히廣範圍에 亘한것으로서 第一章總則에서는 佛國의戰時國家組織을 規定하얏고 第二章은 人的物的資源運用 第三章은 戰爭의指導及公權力의作用 第四章은 資源運用開始 第五章은 特別事項에 關하야 各各規定한 國家總動員案인데 이것이 實現되기前 一九三六年八月『뿔놈』人民戰線政府는 劃期的인佛國軍需工業國有法、廣義國防政策으로 社會立法、佛蘭西銀行의 改革、公共事業法을 制定하엿고 다시一九三七年二月 新國防四個年計畫으로 十九億法을 計上하엿다

그리고 이보다 훨신압서 一九二五年一月 大統領令으로 全國經濟會議가 設置되앗다가 亦是一九三六年三月 改訂되야 全國經濟會議法으로 發布되앗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佛國의 經濟參謀本部이다 首相에게 直屬된機關으로 그機能은 國家總動員의 要求에 基하야 法律案又는 緊急令에 意見을 陳述하고 또그適用을 監視하는 諮問機關으로서 生産及 交換의 統制、調整手段에 對하야 統制하는것을 任務로한다 이것은 伊太利의 協同組合全國會議、獨逸의 聯邦經濟會議에 彷彿하는 機關으로 볼수잇는것인데 大戰에 잇서 佛西國家總動員計畫이란 列强의動員令中에서도 高度의것이라고할것이다

英國

英國은 그國民性과國情에따라 平時부터 統制에對한强硬한法律을 實施하기 즐겨하지아니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軍事方針으로는 一旦有事之秋에 總動員이 必要하다는것은 國民이 다같이 理解하는바로서 戰時工業의維持 天然資源의獲得 海陸各兵士의 規和 特히 經濟的結合의必要는痛感하는터이다 더욱 一九三五年의 伊에戰爭當時는 國防施設에 對하야 探求한 用意로써 그完備에 着手하엿는데 國防費擴大 民의任命、食糧防衛部의設置 全國二十萬人의 志願消防隊의訓練 가튼것은 亦是 總動員準備의强化로볼수잇슬것이다

그리고 一九三七年二月에 發表된 一九四二年 三月末까지의 五個年間에 總額四億磅을 限度로하는 公債發行의 權限을 政府에 賦與하는 國防公債計畫을 議會를通하야 英國에서도 總動員의 具體的計畫樹立의氣運이 濃厚하야지고 잇는것이 事實이며 또 經濟動員計畫으로 볼만한것은 一九三〇年一月 勅令으로組織된 經濟諮問委員會이데 어委員會는 純粹한諮問機關이긴 하지만 經濟上모든 問題에 對하야 政府에 意見을 陳述할수잇게되엿고 또이밧게 一九三六年議會에 提出된 國防에 關한說明書라는것이 잇는데 여게서는 技術問題以外에 軍需工業動員計畫이 表示되야잇스며 그目的하는바는 戰時의 急激한 軍需品需要에 應하기爲하야 平時의非軍需産業을 戰時에 急히軍需産業으로 轉換식히는데잇다 그리고 그手段으로는 軍需工業의 擴張 統制 熟練工의 不足補充 利潤의制限 戰時의 食糧問題等이考慮되엿다

動員計畫總本營 戰時對策委員會

自給自足의나라는富力調整이主眼

産業大學設置하고 專門家도養成!

米國

米國은 産業上 自給自足할수잇는富强國이다 그럼으로 米國의 國家總動員計畫은 富力調整을 主眼으로하는産業動員計畫을 中心으로하고 展開되야왓다

一九二〇年 國防法을 改正하야 陸軍大臣에게 産業動員計畫의 任務를 課한것도 亦是 이런事情에 基因한것이러니와 이法令에 依하면 陸軍次官은 陸軍長官의 指揮下에『一切의 軍需品의 調達及 이에附帶되는 諸軍省의 業務를 調整하고 兼하야 物資及 産業機關의 動員準備를 確保할職責을 가지게되여잇다。

이것은 陸軍에 關한것뿐이지만 海陸軍全般에 直한것으로는 一九二一年 議會의 協贊을 어더가지고 設置된 戰時對策委員會라는것이잇다。

어委員會는 陸軍長官을 委員長으로하고 海軍 陸務 商務各長官 檢事總長 上院 下院 議員各四人을 委員으로하야 産業動員計畫의 總參謀本部的 機能을 發揮하고있다

그리고 戰時産業動員의 中樞機關으로는 戰時産業局이라는것이 잇는데 産業局에는 總務 技術 需要調整 戰時産業調整의 四部가 노누어잇다

總務部는 動員에 必要한資料記錄 統計等을 蒐集하고 또局內全體의 行政的事務를 取扱한다

技術部는 産業動員에 對하야 專門的助言을 用意하엿다가 隨時意見을 陳述한다

需要調整部는 軍需工場에 生産割當 設備擴張 軍需産業의生産能力과 軍事的需要와의 調整 原料配給의優位 管理方法決定의事務를 取扱한다

戰時産業調整部는 軍需産業의 指定 生産能力調整等의 事務를 執行하고잇다

米國은 以上産業局 中心의動員計畫以外에 陸軍兵器將校訓練을 設하고 또特히 産業大學을 設置하야 産業動員統制委員養成을 實行하는等 動員計畫의 具體化에 熱中하고잇다 뿐만아니라 一九二四年以來 國防紀念日을 定하야가지고 一般國民에게 總動員에關한 訓練을식이고 全國數萬의 軍需工場에 對하야는 平時부터 兵器製造에 熟練케하야 戰時에 急速히 軍需品製造에 轉換하도록 周到한 準備를 遂行식히고잇다

다시 最近에는 米國上院軍需工業調査委員會는 軍需工業國有問題에 關한 調査를 實施한結果 軍需工業國有法을 議會에 提出하리라고 傳한다

이法案은 戰時及準戰時에 잇서 軍需工業에依한 個人의不當利益을 排除함과同時에 武器製造에 關하야 政府에 獨占的權能을 주라는것인데 이로말미아마 産業動員計畫은 한거름더前進하게될것이다

獨逸

世界大戰이 열리자 獨逸은疾風迅雷的으로 軍隊와 財政을動員식혓다 그래서 當時 獨逸의 이方面에關한 周到한準備는 實로 完璧에 가까운것이라고 하엿다 그러나 開戰一個月未滿에 그準備가 全然 無力한것이 曝露되고말엇는데 그理由는 戰爭의 規模가 豫想以上으로 컷든까닭이거니와 一九一六年『힌덴부룩』이 參謀總長의任에 就하면서 곳 從來의 總動員令의 不備한點을 是正하는『힌덴부룩綱領』을 制定發布하엿다

그後 一九三三年『나치스』執政以後는 軍備擴充과 함께 獨逸의 總動員令이란 모다 秘密裡에 進行되고 하나도 外部에는 發表되지 아니하엿다 그러나以前의 動員計畫과 現在의 經濟統制等을 아울러 생각하면 그內容을 全然 推察치 못할바도 아니다

大體로 나치스獨逸은 맛쇼伊太利와 마찬가지로 그獨裁國家形態가 그대로 戰時國家形態에 옴기어질수잇는것은 明確한事實로서 卽平時의 國家諸政策으로 總動員에 對應되는것이라고 보아서 조금도 지나친觀察이 아닐것이다 新勞働體制은 戰時勞務動員의 過程이고 食糧同盟은 戰時食糧動員의 主體、宣傳省은 그대로도 戰時輿論指導局의 任務를할것이다

다시 獨逸에서는 過去의經驗에 比하야 産業動員에 特히注力하고잇는것을 알수잇는데 어것은 軍隊動員이 암만 疾風的으로 된다할지라도 萬一 産業動員이 이와 相副치못하면 不可能한까닭이다 卽『나치스』는 執政하자 곳 以前의 帝國經濟審議會를 廢止한後 有機的인 獨逸全國産業組合을 設置하고 獨逸經濟有機的構成準備法을 制定하엿다 그리고 全國의産業을 一、鑛山、製鐵、金屬 二、機械、電氣器具 自動車 航空機 三、窯業、金屬製品 四、建築、土木 陶瓷器、硝子 五、化學工業、製紙、印刷 六、纖物、衣類、皮革 七、飮食料、砂糖 八、手工業 九、商業 十、銀行 十一、保險 十二、交通 十三、電氣瓦斯等十三部門에 分類하야 嚴密한 有機的統制를 하고잇는데 이밧게 平和的工業의 卽時軍事的生産에의 轉換도 亦是細密히 計畫되고잇다

다음은 資源不足國인獨逸이니 만치 戰後資源의充足을 圖謀하고 國際收支를 保持하기爲하야 貿易을 全部國營으로 하고잇고 이밧게 다시 原料의需給을 調達하는機關으로 全國二十七個所의 商品管理所를新設하엿다 全國二十七個所의 商品管理所는 表面上 輸入統制를 主眼으로하고잇스나 實質에잇서서는 原料、廢物의調達 配給 割當 販賣 消費等에 그本目的이 잇는것이事實이다 다음에 一九三六年『뉴른베르히』黨大會에서 發表한 經濟四個年計畫가튼것도 勿論再軍備完了의 失業者救濟라는 社會政策的意味도 包含되지안흔 배아니지만 그主眼은 亦是原料自給政策에잇슴은 다시말할必要조차업다 어리하야 獨逸은 戰時經濟에 軍備擴充 國家總動員計畫을 着着實行하고잇다

(寫眞은 힛틀러總統)

賀正 戊寅元旦

福溪

京元線福溪驛前 和信連鎖店 穀肥百貨 光成商會 主 金光郁

福溪公立普通學校

京元線福溪驛前 綢緞百貨 穀物肥料 丸寅商會 主 鄭寅響

京元線福溪驛前 綿布肥料商 福松商店 秦世源

平康郡平康面福溪里(典伊) 請負業 朴相元

平康郡平康面福溪里五九八 ㊀伊福荷主運送合資會社 服部啓植

002365

平康郡楡津面社倉里 朱興鑛山 鑛主 權龍燦

平康郡縣內面白龍里 胃腸病 皮膚病 淋疾 神効 龍巖藥水

平康協和醫院 福溪分院 朴河龍 李炳浩

京元線福溪驛前 海東醫院 朱東燮

京元線福溪驛前 柳芝成

京元線福溪驛前 穀物貿易商 李錫河

鐵道局代用 合宿所 主 宋甲龍

京元線福溪驛前 穀物薪炭石油 林弘福商店

京元線福溪驛前 穀物貿易商 光興商會 主 林德福

京元線福溪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福溪代行營業所 代表者 鄭寅植

京元線福溪驛前 伊川貨物自動車取扱運送店 ㊁三省運送部 專務 安商天

京元線福溪驛前 中央館

京元線福溪驛前 綢緞布木商 順晶商店 主 金晶河

京元線福溪驛前 徐大三

平康郡縣內面文山里 有志 金啓濬

平康郡縣內面北村里 關東明德縣內面青年團 分團長 李德亨

平康郡縣內面文山里 有志 權祥五

京元線福溪驛前 ⊙朝鮮運送代行營業所 代表 洪炳植 專務 李順吉

京元線梨木驛前 有志 趙基云

京元線 梨木驛員一同

朝鮮日報福溪支局 支局長 金載權 顧問 鄭寅植 顧問 張啓植

京元線福溪驛前 春山醫院

京元線福溪驛前 穀物商 相信商會 崔福龍 朴逢春

京元線福溪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大昌商會 主 李炳律

京元線福溪驛前 信用百貨店 主 李得炯

京元線福溪驛前 酒類卸商 德成商店 主 成鎭成

京元線福溪驛前 精米穀商 大福精米所 主 林聖必

京元線福溪驛前 汽車待合料理 松月亭 宮崎留太郎

京元線福溪驛前 三和商會 柳文鉉

黑橋

黑橋面職員一同

朝鮮黃海道黃州 興業株式會社支店

黃海道黑橋 共和洋服店 趙道一 李炳烈

森農場

驛前果園

常信洋服店

大成木工場

光林商會 主 林仁根

黑橋醫院

仁濟醫院

淸水面職員一同

天柱面職員一同

黑橋郵便所職員一同

皇甫斗鎬

信一木物商會

永泉精米所

有山商會支店

黑橋面金石里 李尙烈

兄弟自轉車店

黑橋面黑川里 丁奎和

黑橋面院洞里 朴基培

黑橋面金石里 黃斗七

金石里 林萬吉

黑橋面內宮里 趙東元

權龍涉

金泰賢

李養根

金成章

黑橋面淸川里 趙基善

金泰極

永信商店

姜時鎭

金錫道

宋錫勳

金星自轉車店

李義南

吳聖璐

佐久山支店

池東植商店

大召院

忠北忠州郡大召院 大召鑛業所

忠北線大召院驛前 金成醫院 醫師 金成源

忠北線大召院驛前 相光商會

米穀商 辻多喜男商店

忠北線大召院驛前 米穀商 ㋖商店

烏山

京釜線烏山驛前 雜貨商 德永商店 主 金德秀

京釜線烏山驛前 和信連鎖店 大成百貨店 李相萬

京釜線烏山驛前 華南醫院 醫師 宋鍾憲 電話一四番

烏山警察官駐在所

烏山消防組

京釜線烏山驛前 大學堂藥房

京釜線烏山 徐點童商店

京釜線烏山 東洋寫眞館 李達相

京釜線烏山驛前 東明理髮館

京釜線烏山驛前 烏山材木店 電話一九番

京釜線烏山驛前 烏山支局 顧問 金鍾喆 支局長 李旼燮

京釜線烏山驛前 文化料理 滿洲樓 電話一一九番

忠北線大召院市 朝鮮料理 忠元館

忠北線大召院驛前 和洋布木雜貨 泰星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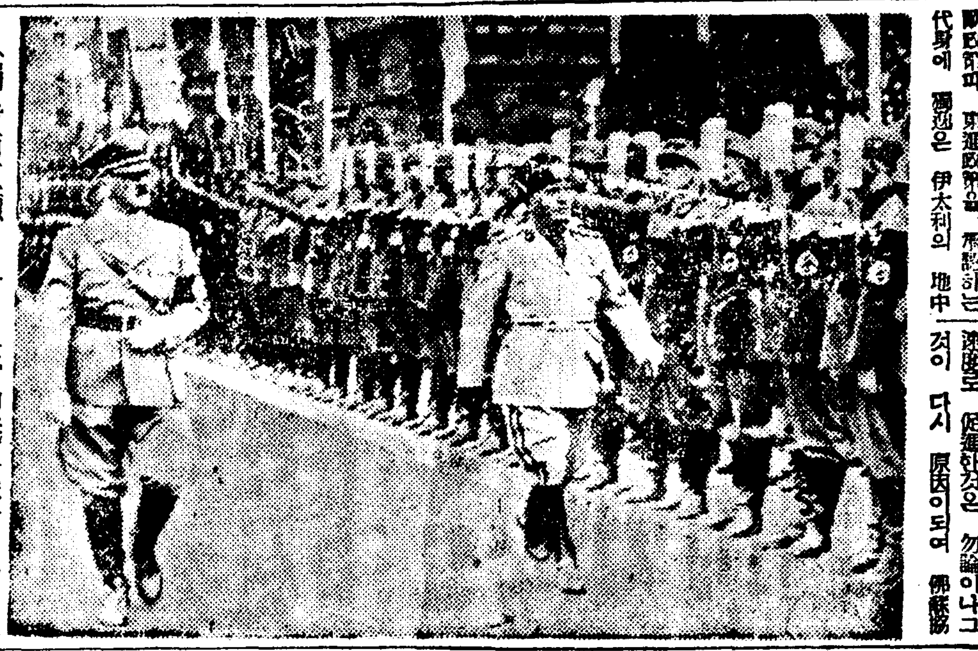
忠北大召院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朴聖瑞商店

日獨伊提携强化와 現狀維持陣營의 焦燥相

鄭 鎭 燮

◇歐洲에 二大怪物이 나타나 삼키겟느냐, 삼키우겟느냐 하는 二大決戰이 버러저 바야흐로 全世界를 席捲하고잇다. 西으로 熱情의나라 이베리아半島로 부터 東으로 太平洋의 波濤노픈 極東에 이르기까지 이 二大怪物—國民戰線과 人民戰線—의 亂舞하는 舞臺에서 一九三八年을 맛게되는것이 오늘의 世界의 現狀이다. 回顧하면 二十年前 全人類의 代表가 參集한 베르사이유宮 一堂에서 또 다시는 이世上에 戰爭이 못오게하리라고 굿게盟誓하고 平和를 宣言하던 平和機構도 最後의 쇠사슬까지 破壞해버리고 今日에와서는 한갓 有名無實한 機關으로 化하고마럿스니 有爲轉變하는것이 世上의 常例라할진대 無軌道的인 歷史의 轉車아페서는 人間의 無力함을 다시금 늣기지 안을수업다.

◇最近數年間 歷史舞臺上에 『日本』한 重要한主役이 急進主義의日本, 第三帝國의 나치스獨逸, 羅馬帝國을 夢想하는 파시스트伊太利等 所謂『갓지못한나라』이라는것은 偶然한일이아니다. 一九三一年六月 滿洲事變으로말미아마 現狀維持를 保合하려는 國際聯盟은 日本의 對支行爲와 滿洲國을 承認치안는다는 態度를 堅持하야 結局日本으로하야금 國際聯盟을 脫退케하고마럿스니 이것이 現狀維持를 固執하는 平和條約의 諸條件打破의 第一步이엿든것을 누가 想像하엿스랴. 그後二三年을 지나지못한 一九三五年初夏에 이러난 伊에紛爭으로 聯盟의 伊太利에對한 經濟制裁의 實施는 伊國의 傍若無人한 快進한 에國占領으로 失敗에 歸하고마럿스니 이것이 聯盟의 威信을 失墜케한 第二의 動機이다. 機를 엿보기에 敏捷한 나치스獨逸은 베르사이유의 軍事條項을 끈코 남은 最後의 鐵鎖인 로카르노條約까지 一方的으로 廢棄하야 英佛白等安全保障機構에 驚異한 現狀維持陣營에 ……



(獨伊兩巨頭의 나치스勞働義勇隊檢閱)

…… 海政策에對하야 北海에서 英國을 牽制하는役을맛게되여 兩國의 結合은 一層緊密하게되엿다.

◇人民戰線◇

이에反하야 英佛兩國은 步調도 一致되지못하고 또行動도遲鈍하야 對獨의 再軍備의 効果를내지못하고 完全히 失敗하엿다. 即平和機構에對한 獨逸의 攻擊的再軍備宣言에對하야 英國의 大陸政策努力均衡外交策에 災禍되는바되여佛國이 恐慌을밧고 退却케되엿스니 이것이 第一의失敗이오, 伊에紛爭時 聯盟의 經濟制裁가 佛國의 冷淡한 態度로 英國 ……

◇ 國은 自國의 立場, 極東政策의 ……을 無力케한 포인트이다 ……

◇이러든次에 이베리아半島에서 伊內相戰의 武力鬪爭이 勃發되여 決死的殺戰이 繼續하고잇는동안에 國民戰線과 獨伊兩國이 反政府軍을 援助하게되고 蘇聯이 人民戰線派配下에잇는 政府側을 援助하게되여 國民戰線과 人民戰線의 鬪爭은 實踐的으로 舞臺에오르게되엿다. 英佛兩國은 不干涉政策을 堅持하고 中立的態度를 取하고잇스나 英國은 西班牙가 파쇼國民戰線影響下에드러가면 自國의 地中海政策을 脅威바들 關係上 흘쉬비운合파 ……

西班牙內亂과 兩大國際勢力의 爭覇

內亂—國際性

再昨年七月十八日 西牛와 카르멘으로 이틀이노픈 西班牙의 領土 모퉁이 一角에서 發端된 內亂이 그火焰이 全國에 擴大되여 一年六個月이지나 全國이 焦土로 化하다시피되고 今日에 잇서서도 政府側이 勝利할지 프랑코政權側이 勝利할지 判斷하기 어려운 形勢에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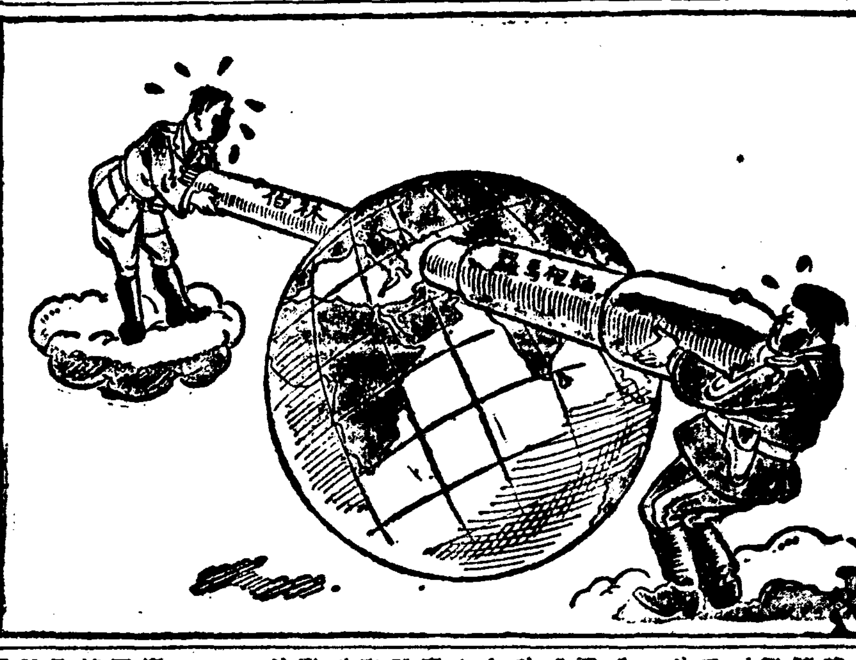
地理的理由

그러라면 所謂가지못한나라 獨伊가 왜西班牙를 活動舞臺로 擇하엿을까 이에는 二個의 理由가잇다. 하나는 西班牙의 資源이오 第二는 地理的位置로 말미아마오는 地中海問題이다 ……

主義의對立

……

C 記 者



國際政潮의 主流

防共戰線의 結成强化

韓 普 容

地球의 公轉自轉과 함께 『라인』은 작구간다. 『라인』의 經過와함께 世界도 작구變한다. 黨的으로 變할뿐아니라 世界를 支配하는 政治思想도 變하고그 機構도 따라變한다. 封建制社會는 資本制社會로 變하엿고 君主的獨裁政治時代는 民主的『데모크라씨—』時代로 變하엿다. 『데모크라씨—』思想이 全世界를支配하리만치 擴張하여지고 普遍化되엿슬때도 『라인』은 작구간다. 따라서 그思想 그機構는 『라인』과함께 또變할 運命에 直面하게되엿다. 그리하야 無產階級의 獨裁를 標榜하는 『콤뮤니즘』이 出現하야 世界地圖의 六分之一에 君臨하는 蘇聯에는 그절때까지 매치고 共產主義的政治思想은 全世界에 膨脹하야 六七年前만하드래도 이 思想을 惡調로한 政治機構가 한번은世界各國에 實現되고마리이라는것을 一部의 政治思想學徒들은 廣泛하게生覺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가득라인』은 結局 그時代는 『콤뮤니즘』과 運命을 함께하려는것이다.

……◇……

歐洲大戰의 뒤를이어 伊太利에 未曾有의 大恐慌이 襲來하야 社會主義運動의 激烈化로 政治的 大混亂이 示現되엿슬때에 이運動自體內에서 그世界作을否定하는 國粹主義的『파시스트』가『못솔리니』를 指導者로 一九一九年『밀라노』에서 結黨하고 一九二二年十月二十八日『팟시스트』羅馬進軍에 依하야 『파시스트』內閣을 組織하고 伊太利政權을 掌中에收納할때까지도 이것은 一種의 社會主義思想에對한 無體系하고 無秩序한 一時的 反動事態로바께 보지안엇든것이다.

『파시즘』의 最初登場을 이러케보앗다는것은 오히려 잇슬즉한일이다. 『못솔리니』가 執政한後 古代羅馬帝國의 再現을目標로하고 그政策도 着着成功의자취를 남겻은 그後十年을 지난 一九三三年正月에 敗戰으로因한 破局파『베르사이유』體制의 重壓에 이기지못하야同條約의破棄, 『볼쉐비즘』의撲滅, 猶太人의排斥等을 看板으로 果敢하게 登場한 『나치스』獨逸에對한 世界的觀測까지도 環境直感에對한 一時的 反動現象으로바께 보지안엇든것이다.

그러나 『라인』의 經過와함께 獨伊를中心으로한 『파시즘』의現勢는 어떠한地位를 占하고잇는가? 『파시즘』이 出現한後 過去十五年間 實踐主義的 全體性을前提로한 國家觀念의 理論的 體系도 거의完成을보게되어 今日全世界에 膨脹되는 全體國家主義의 威勢는 머지안은將來에 世界各國이모두 한번은 『팟쇼』化하는날이언지나안을까하는 想……

그러나 여게서 記者가 『팟쇼』勢力의 世界的蔓延을 말하는것은 이로안일에 全世界가 『팟쇼』化할때가 잇스리라는點을 論하려는것이 그本意가아니라 一時 世界赤化를 目標로하고 氣勢를올리든 『콤뮤니즘』이 그反動的 新勢力擡頭에 依하야 致命的打擊을 맛게된事實을 指摘하야 要還되는 時勢를 觀望하는同時에 『팟쇼』勢力을 中心으로한 防共戰線의 世界的展開파 이와結托한 日本外交의 勝利를 論議하려함에잇다.

帝國外交의 勝利는 赤色勢力을 防止하는데 잇다기보다도 이것으로 由緣하야 現下直面한 未曾有의 國難을 靑利하 打開할수잇게된 그點에잇는것이다. 即 繼히 共產主義의 侵入을 防止하는데는 獨伊는 如何間, 日本에關한限 自力만으로도 充分하다. 그러나 멀리歐洲에잇는 獨伊兩國과 結托한것은 條約文面以外에 目的이잇다는것보다도 이로因한 間接的牽制力에 依하야 國策을 有利히 進展시키는데 더큰期待가 잇다할것이다.

日獨伊防共協定(三國協定)은 旣成社會組織 破壞工作防止를 目標로한 日獨伊防共協定을보아 그意義가 크다. 獨伊兩國은 兩國自體의 立場에서 그意義가 重大할것이나 이것은 論外로하고 日本의立場으로 그效果 影響을考察할때에 日本外交上에는 일직이 이가를大成功을 거두어본적이업다고 斷言할수잇다. 露西亞의 東進南下를阻止하는點으로, 『갓지못한나라』로서 그慾求主張을 한잇게한點으로, 그리고 英國의 對中國進出을 牽制하고 『南進支那』의 國策을 實施하는點으로 그 ……

……◇……

效果는 이로말할수업다.

日獨伊三國은 共通한點이 만타. 三國은모두 現狀에不滿을 갓고自己發展을 爲하야 現狀을 打破하려는나라이다. 다시말하면 國士는좁고 人口는만코 產業은發達되어 海外植民地를 要求하는 나라들이다. 即 하우스大佐의所謂 『갓지못한나라』들이다. 또防共的政策에잇서서 共通的입은 勿論이고 政治形態에잇서도 三國은모두 全體主義國家觀念下에 强力政治에 邁進하는나라들이다.

『파시즘』과 急進主義는 同一하지는안흐면서도 共通한點은 만타. 그리고 現下實際上 對外關係에잇서서 三國 特히 日伊는 對英牽制가 絶對必要하다. 이런의 效果를 成就한것에 依하야 日本外交上의 英斷外交 面하여슬때에도 『榮譽의 孤立』으로 自慰하고 잇든 外交方針이 七十年來의 傳統을깨트리고 名實合하게 自主獨往的 英斷外交에 邁進한것은 日本外交史上의 劃期的轉換인同時에 이情勢, 이것을 成就한것은 그效果 影響上으로도 世界的大事라할수잇다.

日獨伊를 中心勢力으로 한防共陣線은 世界的으로 去益擴大될 形勢에잇다. 防共의 目的으로 現狀打破의 目的으로 『羅馬』連合의 目的으로 그리고 强力政治實現의 目的으로 그 必要를 늣기는나라는 이陣營에 合流할것이다. 日波蘭, 日葡萄牙, 日匈牙利, 日瑞洲國, 日부라질, 日프랑코政權等等 現在情勢로 參加할可能性이보이는나라도 그數가 相當하다. 그리하야 이 防共『羅馬』은現在에도 蘇聯邦및 英佛等 現狀維持國에 對하는 『羅馬圖』에對하야 크다란 威脅이되여잇지마는 新年에드러서는 더욱 그威脅이增大될 情勢에잇다. 이것은 舊年中에 形成된 集團的新勢力으로 新年國際政局의 動向에잇서서 그主流가될것이다.

曾有의 國難을 靑利하 打開할수잇게된 ……

滿洲事變에任한 非常時局에 直面하야 ……

(寫眞上 廣田外相 中 노이라—트氏 下 차노(伯))

青陽 天安邑內 全始德

青陽郡廳職員一同

青陽金融組合 同化城支所

大峙面長 具泳祖 書記 崔鍾聲 書記 徐廷恪

青陽郡教育會

忠清南道道會議員 李相珏

青陽面長 李瓔鎬 書記 金興鎬 書記 徐孝善 書記 具英書 書記 朴成來 書記 金東浩 書記 李啓昇 書記 任建龍 書記 韓昌淳 技手 李相學 技手補 趙先世 源眞

青陽邑內 ライオン ケンネツトン 孫ラマ號 最高級三大自轉車 方利東商店

青陽郡青陽面邑內里 青武商會 鄭壯熙

青陽邑內 三共商會 主任 南相玉

忠南青陽 火藥類販賣業 富田彈藏

穀物商 肥料業 忠南青陽邑內 青陽商會

青陽郡邑內里 湖南商會 崔炳煥

青陽郡邑內 青松園 李

大峙面 崔相煥

大峙面 卜鎭台

定山面職員一同

定山金融組合

定山市回生醫院 公醫 李正寬

木面所職員一同

青陽木面 尹錫勛 姜永植

青陽面職員一同

青陽面 尹台遠

青陽面 李紀喆

青陽面 韓魯洙

美堂市 尹甲善

青陽郡美堂三共商會 禹箕命

美堂金山 車龍石

美堂市 尹一求

青陽郡赤谷面 任哲淳

青陽 司法書士 李榮九

青陽邑內共信商店 鄭庭煥

青陽印刷所 李貞鎬

青陽邑內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玄達淳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青陽營業所 電話八番

青陽邑內泰陽醫院 公醫 權泰翊

忠南青陽邑內 金成醫院 金基成

青陽郡大峙面 光和醫院 李世珩

定山市 高明鎭

飛鳳面 李象儀

飛鳳龍川酒造場 李俊儀

飛鳳面 兪鳳植

飛鳳面 兪鴻植

飛鳳面 兪鎭昊

飛鳳面 鄭夏永

飛鳳面 兪弼濬

飛鳳面 李來鶴

飛鳳面 申學均

飛鳳面 兪鎭和

雲谷面所職員一同

雲谷市 裴錫夏

青陽郡雲谷市 東春醫院 金商德

雲谷市三山自動車部 池聖璽

朝鮮日報社青陽支局 朴永文 李貞鎬

赤谷面 金遠信

同 任東先

赤谷面 兪哲濬

定山文廟直員 兪鴻濬

青陽郡化城市 萬春醫院 金春俊

斜陽面長 趙程熙 外 職員一同

斜陽面 韓鳳洙

斜陽面 韓鎣洙

斜陽面 方鎭容

斜陽面 李敬學

斜陽面梅谷里 劉載善

斜陽面 韓相五

斜陽面 韓澤洙

斜陽面 韓相烈

斜陽面 柴虎先

斜陽面 方漢容

斜陽面 崔忠植

斜陽面 金川商店

斜陽面 徐元善

斜陽面 朴義九

化城面職員一同

青陽郡化城市 宋敏會

青陽郡化城面 安驥老

青陽郡化城市 崔昌世

青陽郡化城市 長春酒造場

化城面 林豐鎬

竹山

飛鳳面長 蔡奎興 外 職員一同

安城邑 京畿道會議員 睦頊相

安城郡三竹面內洞里 三竹面長 閔泳寬

京畿線竹山驛前 肥料 石油 穀物 梁斗錫商店

京畿線竹山驛前 海產物 各種飲料 酒類販賣 殖產商會 權重赫

京畿線竹山驛前 穀物 肥料 東信商會 鄭東秀

竹山醫院 醫師 崔昌善

京畿線竹山驛前 信興商店 尹在政

京畿線竹山驛前 木材及精米業 京南商會 洪承禧

京畿線竹山市 穀物商會 李秀赫

京畿線竹山市 專賣 普成堂乾材局 主 姜海秀

京畿線注川驛前 注川穀物商會 李思惠

京畿線注川驛前 注川農商組合

京畿線注川驛前 穀物商 金秉權 朴勝海

安城郡一竹面注川市 注川釀造場 主 閔泳昌

安城郡一竹面佳里 洪承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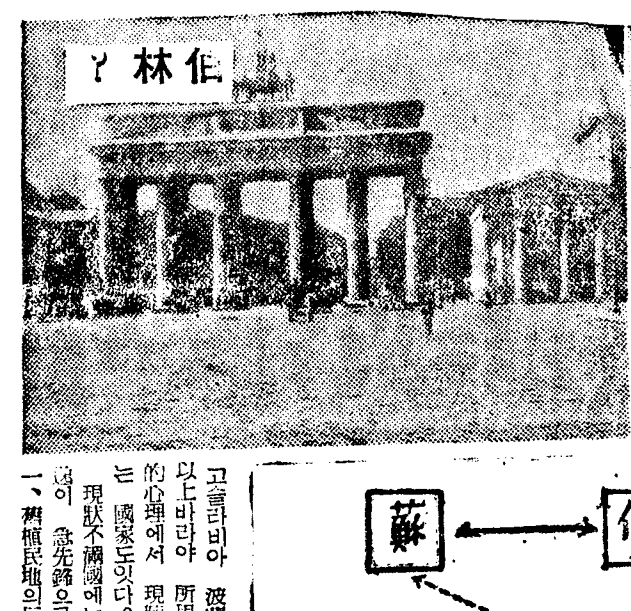
朝陽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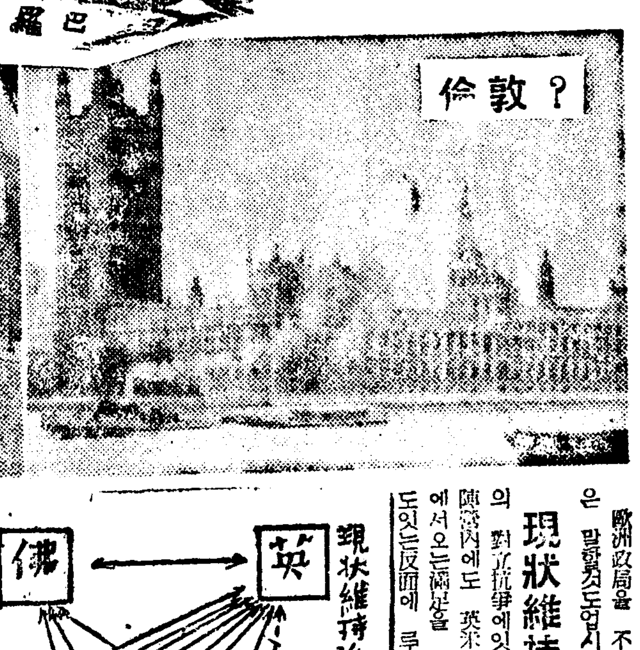
滿洲國間島省朝陽川 新舊書籍 文具各種 陽一書店 主 尹在

間島省朝陽川公醫 朝陽川病院 醫師 金河均

歐洲의合縱連衡
同盟外交와世界大戰
李元坤

歐洲政局에잇서 最近의 特異한 傾向으로 吾人面前에 展開된事態는 歐洲大戰直前의 三國同盟對三國協商의 對立狀態를 如實히再現하고잇는 現象이다。伯林羅馬樞軸과 倫敦巴里樞軸의 對立激化와 兩者의合縱連衡이 執拗히 策動되고잇는 事實은 大戰前 歐洲政局에 表面化하엿든『同盟外交』와 그性質을 彷彿케한다。同盟外交가 반듯이 大戰의 原因으로된것은 아니로되 이것이 大戰을 誘起케한 重大條件이 된다는것은 歷史家의 거이一致된 見解이다。그것은 國際間의 結合이 各個力量의 和以上의 力量을 發揮한다는 社會物理學의 原則과 各個體의 結合은 亂雜面을增大한다는 原理에 基因함이다。西班牙問題를 圍繞하고 獨伊兩國外交가 共同戰線을 버틔고 露骨的으로 不干涉委員會의 議事를 加하면 英佛은 緊密한 提携下에 不干涉精神을 維持하려고 苦心한다。獨伊가 步調를 가티하야 폭랑코政權의 交戰團體承認을 要求하면 英佛은 義勇兵撤退를 先決問題로 고집어내이는等 獨伊가 提唱하는것이라면 英佛은언제나 期於이 이를 阻止妨害하기에 努力하는 現狀이다 獨伊對英佛의 對立이 이와가티 激化됨에따라 兩者는 各其自派의 勢力을 增大식히기爲하야 盟邦獲得을 目標로하는 鬪爭이 亦是白熱化하여간다。獨伊樞軸이 現狀打破와 赤禍防止를 標語로 中歐小國을 팟쇼陣營으로 誘引하기에努力하는 反面에英佛은 東으로 蘇聯 大西洋 저便으로 米國에 平和擁護 又는 民主主義保障이란 旗幟를 闡明히하야 兩大國의援助를 哀願한다 여기서 獨伊樞軸과 英佛協調의 對立은 必然的으로 自國陣營의 勢力擴充을 企圖하는 合縱連衡運動에로 猛烈한 外交戰을 展開하게되엿스니 바야흐로 歐洲는 伯林羅馬樞軸을 中心으로한 現狀打破群과 倫敦巴里를 中心으로한 現狀維持群의 兩大陣營으로 分立되여 언제 어느때 歐洲를 第二次大戰으로 誘導할지 모르는 危險한 狀態를醞釀하고잇다。(寫眞은 右 이든氏 左 노이라―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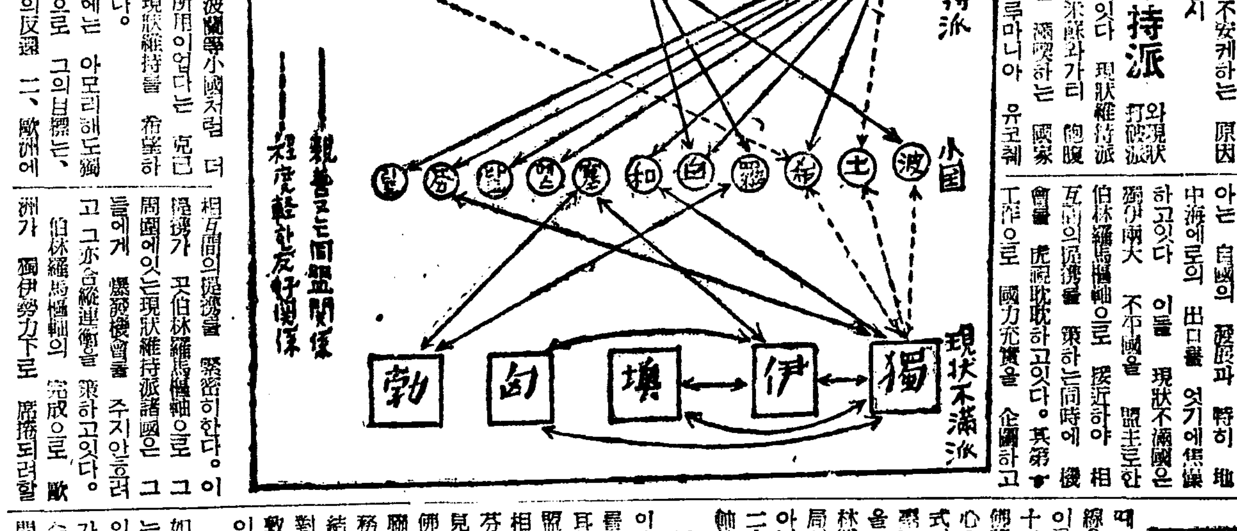




現狀維持派와現狀打破派

歐洲政局을 不安케하는 原因은 말할것도업시 現狀維持派와 現狀打破派의 對立抗爭에잇다 現狀維持派陣營內에도 英米佛과가티 飽腹國家에서오는滿足을 滿喫하는 國家도잇는反面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波蘭等小國처럼 더 以上바라야 所用이업다는 克己的心理에서 現狀維持를 希望하는 國家도잇다。

現狀不滿國에는 아모리해도獨逸이 急先鋒으로 그의目標는、一、舊植民地의反還 二、歐洲에 在外獨逸民族의 全部를 包攝한 第三帝國建設과 三、따뉴부流域에沿하야 黑海裏海南露方面에로進出하려하는것이다。



相互間의提携를 緊密히한다。이提携가 곳伯林羅馬樞軸으로 그周圍에잇는現狀維持派諸國은 그들에게 機會를 주지안흐려고 그亦合縱連衡을 策하고잇다。伯林羅馬樞軸의 完成으로 歐洲가 獨伊勢力下로 席捲되려할

다음에 伊太利는 大羅馬帝國을 理想으로 阿弗利加로 進出을 企圖하기爲하야 아드리아海는勿論 地中海까지도 自國의內海로 만들려하는 野望을 抱懷하고잇다。羅馬凱旋道路一個에英國英佛을 自國領土로 支配하엿든 大羅馬帝國時代의 雄圖를 再興하려는 野望의 耳目을 集中하는것도 모두羅馬政府의 意圖가 那邊에잇는가를 暗示하는 것이다

伊太利는 世界大戰의 戰勝國의 一員이지만 國力膨脹과 海外進出을企圖하는데잇서서는어데까지 獨逸과 步調를가티한다。匈牙利는 失地回復과 自己民族으로 自國領土以外에 잇는者를收容하려함이 그를 現狀打破陣營으로 加擔케한 要因일것이다。

現狀打破

그는 平時에잇서 外交的手段으로 目的을 達成하기困難한것을 認識하고 實力을 蓄積하야 時機를 固待하는一方 獨伊와步調를가티하고잇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自國의 發展과 特히 地中海에로의 出口를 엇기에焦燥하고잇다 이들 現狀不滿國은 獨伊兩大不平國을 盟主로한 伯林羅馬樞軸으로 接近하야 互相의提携를 策하는同時에 機會를 虎視眈眈하고잇다。其第一工作으로 國力充實을 企圖하고

英佛提携

英佛은 現狀維持의 共同戰線을 企圖하게되엿스니 이것이 이른바 倫敦巴里樞軸이다。五月十二日 英皇戴冠式을 機會로 英佛蘇의 外交交涉이 倫敦을 中心으로 한바탕展開되더니 戴冠式이 終了되자 外交交涉의 舞臺는 巴里로 옴마 델보佛外相을 中心으로한 外交折衝은 伯林羅馬樞軸에 對抗하야 歐洲政局의 現狀維持를 確保하려함이 아닌가 觀測되더니 果然 五月二十日 巴里電報는 巴里倫敦樞軸結成을 報道하엿다

이終了되자 델보佛外相은 即時 倫敦을기지안코 부랏셀에 赴하야白耳義政府首腦와 協議하고 다시 聯盟總會를앞두고 波蘭代表베크外相 유―고―슬라비아 스토야디노비치首相等과 會見하엿다。右會見은 主로 델보佛外相이 이미 이든英外相 蘇聯人民委員리트비노프 墺太利政務次官슈미트等과 數次 會談한 結果에 基하야 伯林羅馬樞軸에 對한 解壓劑로 結成한 巴里倫敦樞軸에對한 諒解를 懲應한것이다

이兩大陣營의 合縱連衡運動이 如何히 執拗하게 展開되고잇다는것은 各國의 首相又는 大官의 外國訪問이 어떠케 頻繁한가의 一例를 보아도 大略推察할수잇다。그리고 大官의 外國訪問이 一次實現되면 國際關係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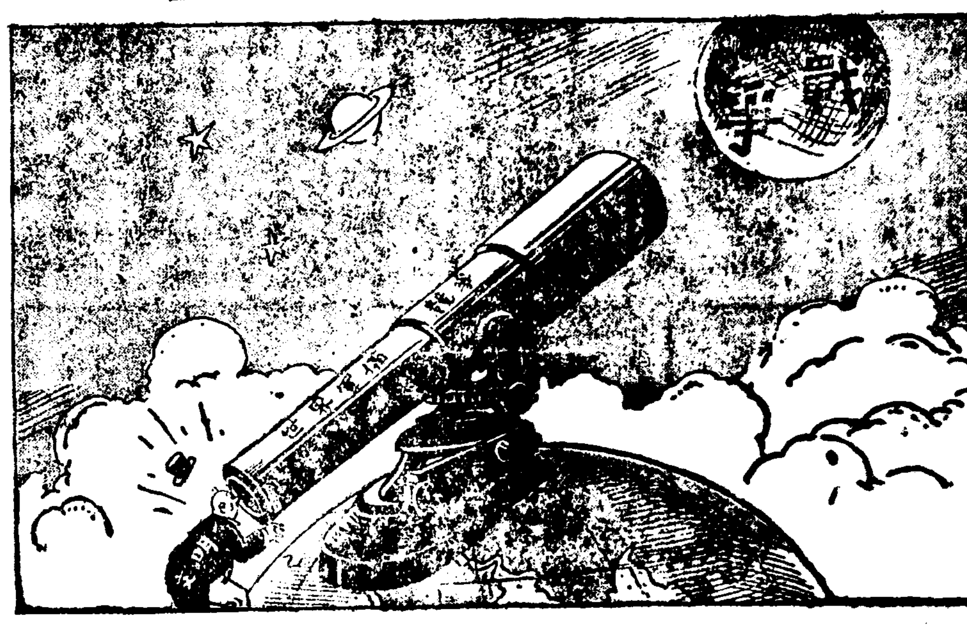
去就에彷徨하는 中歐小國의焦燥相

伯林羅馬樞軸을 中心으로한 팟쇼陣營과 倫敦 巴里 莫斯科 民主主義陣營과의 對立抗爭이 尖銳化함에따라 中歐小國들은 觀望을 銳敏히하야 左顧右眄하면서 大國의 好意를사기에 汲汲한다 東西에 蘇佛 南北에 獨伊를 對하고잇는 小國은 自國의存立을爲하야 各其안을닥두어 一旦 有事之秋에 援助를엇기爲하야 大國의 傘下로 모려가려한다。同時에 大國은 이들小國을 自己勢力圈內에 誘引함으로써 大國의 實錄을 보힐수잇슴으로 여기서 合縱連衡運動이 버러지게되엿다。

以上 諸小國의 從來의 依存關係를 一瞥하면 小協商國의 一員인 췌코는 이미 佛國과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엿고 蘇聯과도 同盟關係를 매저왓다。췌코는 群小國家中 左傾國으로서 그旗幟를鮮明히하고 匈牙利도 獨墺와의 傳統的友好關係를 持續하는 팟쇼陣營의 一員이다 波蘭은 처음에는 佛國과 協定을 締結하고 루마니아와 同盟을 맷고잇다。

스탈린日 울엇무이들놈년저……다인삭속리저

그러나 伯林羅馬樞軸結成以來 小國間에 重大動搖를 이르키게되엿다 特히 다뉴브國際政局은 獨伊兩國政府의 合縱陣下에 席捲될지모르는 危險에서 從來에보지못한 新政治的動向을 示現하게되엿다 即 波蘭과 루마니아는 이데올로기的外交를 排擊하고中立的立場을 提唱하게되고 췌코와 墺太利는 伯林羅馬樞軸下에 席捲될까念慮하고 英佛의 友好的支持를 希求하는것이다。以上의動向은 小國의苦悶을 告白하는것이다



伯林羅馬

노이라―트의 對外工作은 어엿스며 英佛外交官의 來往이든 英外相의 莫斯科訪問 리트비노프 獨逸訪問은 모두 倫敦巴里樞軸의 擴大强化를 策하는外交工作이엿든것이다

伊外相차노대이 平和는 戰爭前後에만 存在하는것으로 現在平和는 자리라 大戰後의 平和라기보다 戰爭前의平和라할것이다라고한말은 現在의 國際政局을 잘認識한말이다

所謂集團的 安全保障體制가 漸次崩壞되고 現狀維持 現狀不滿의 合縱連衡이 激化되는一面 世界各國은 未曾有의 軍備競爭에 狂奔되고잇다。各國의 軍擴計劃이 豫想대로 進捗되여 武裝準備가 完成되는날이면 歐洲는

大戰前夜

緊急한情勢에 直面하게될것이다 그것은 軍備로도 그러하거니와 外交的으로도 亦是 그러하다 그러나 現代戰爭은 昔日의 그것과다라 一國의名譽 戰鬪이라든가 이데올로기의 相違만으로는 戰爭이 容易하게 勃發치안는다

獨逸의舊植民地

歐洲大戰結果 獨逸은 百八十萬의 壯丁을 喪失하엿을뿐아니라 歐洲本土에 잇서서 領土의 十三%、人口의 一〇%를 喪하엿다 特히 그面積中에는 耕地面積의 十四%、炭田의 十九%、鐵鑛의 七十五%가 包含되여잇다 그리고 海外植民地에對한 一切의 權利와權原을 喪失하게되엿스니 獨領西南阿弗利加는 英國南阿聯邦에 토고 카메룬은 英佛兩國에 赤道以北 南洋群島는 日本 以南은 濠洲의 委任統治로 歸하엿다 支那山東省에對한 一切의權利도 放棄하게되여 結局에는 支那로 도라가게되엿섯다

地中海의風浪
海賊船跳梁으로 英佛制海權에危機
金與濟

西班牙動亂이 陸上戰에서 海上戰에까지 擴大된 再昨年末頃부터 昨年初에 亘하야 地中海에는 商船拿捕事件과 襲擊事件이 盛行하야 尋常치아니한 紛擾를 惹起하엿다。마침내 不干涉委員會는 海上監視制를 制定하엿스나 昨年六月二十三日獨伊兩國의 海上監視隊脫退에 依하야 地中海의監視는 一時緩慢하여지어八月上旬부터 十月下旬에 亘하야地中海에는 國籍不明의 飛行機水上艦과 潛水艇의商船襲擊事件이 頻發하야文字그대로地中海『恐怖時代』를 出現하게되엿다。

昨年의 船舶襲擊事件도 再昨年末부터의 西班牙의 政府、革命兩軍에對한 武器輸送妨害의延長이요 西班牙海上封鎖의 副産物임은 勿論이나 今次의 事件은그規模가 非常히 重大하고그方法이 極히 組織的 計劃的인것이 特色이엿다。하여튼 地中海는 한동안『海賊』化하야 地中海沿岸各國뿐 아니라 全世界에큰 센세이슌을 惹起하엿다。

이에英國은 事件의 重大化를 念慮하는 佛國과 協力하야 急速히 關係國會議를瑞西의『니용』에서 開催하게 되엿다。그러나 獨、伊、알바니아三國은 右會議에 參加를 拒絶하기때문에 英、佛、蘇、希臘、유고슬라비아、土耳其、루마니아、埃及、불가리아의 九個國代表만이 會集하야昨年九月十四日에 各國이 地中海警備를 擔當하기로 約束한 所謂『니용』協定이 締結되게되엿다。

이協定에 基하야 英國은 五十二隻의 驅逐艦을 地中海에集中시키고 英佛兩國의 艦隊의勢力은 歐洲大戰當時를 凌駕하게되엿다。그러나『海賊行爲』는 이로써 根絶되지아니하고 怪潛水艦과 怪飛行機는 如前히 跋扈하는것이엇다。勿論 이不祥事件이 西班牙內亂問題와 關聯이 잇다는것은 疑心할수업는것이나 첫재 西班牙海軍은 元來 貧弱하야革命軍에 一、二의潛水艇이 잇다하더라도 全地中海에 出沒할수잇는 行動半徑을 가진것이업다는것과 둘재 被襲된 各國船舶이西班牙 政府所屬艦船을 主로하야 英、佛、蘇等 所謂人民戰線國家側에 所屬된事實에 비추어보아 셋재・被襲된船員中에 怪潛의橫腹에分明히 伊太利 國名이씨워잇는것을目睹하엿다는 報道로 미루어보아 西班牙革命軍을援助하고잇는伊太利를 疑心하지안흘수업게되엿다。伊太利는 니용會議不參加에 依하야 그嫌疑를 一層濃厚하게 맷게되엿다。

이가티 地中海가『海賊船』의跳梁으로 因하야 戰慄하고잇는 이때에 가장 큰打擊을 바든者는 英、佛兩國이엿다。地中海는 英國에 對하야는 大英帝國의 生命線이다。地中海를 航行하는 英國汽船은 三千噸以上의것만으로도 每日 百隻을 不下하리라한다 特히 英國은 石油와 綿花와 木材를 地中海를 通하야 輸入하고 佛國도 또한 石油의 半分을『이라크』에 依賴하고잇는現狀이다。더욱 重要한것은 英佛兩國의阿弗利加와 近東과의 軍事的關係이다。歐洲大戰後 英佛은『시리아』『팔레스타인』埃及『트란스요르단』『이라크』等 近東諸國과의 經濟的政治的關係를 緊密化하고 此等諸國의 國防의 責任을 지고잇다。또 佛國의 常備軍의 三分之一은 阿弗利加에 常置되여잇다。그러므로 一朝 有事之時에 地中海가 遮斷되면 英、佛兩國에 如何한重大影響이 미칠것은 想像할수잇는일이다。

더욱 伊太利에 對하야는 地中海는 實로 重大한 役割을 하고잇다。地中海가 막히면 伊太利는 살수업다。伊太利는 食糧과 各原料의 九割을 또는 近代的燃料인 石油의 七割을 地中海를 通하야 輸入한다。特히 伊太利의 植民地 資源供給으로 두 英帝國의 幹線에 沿하야잇서 海路에 依한 物資輸送의大部分은 英國의 手中에잇는 關門을 通過치안흐면안되는 現狀이기때문에 地中海의 制海權은伊太利의 主要關心이 아니될수업다。

이와가티 緊迫한 英、佛、伊의 關係는 恒常 地中海를 너사고 隱然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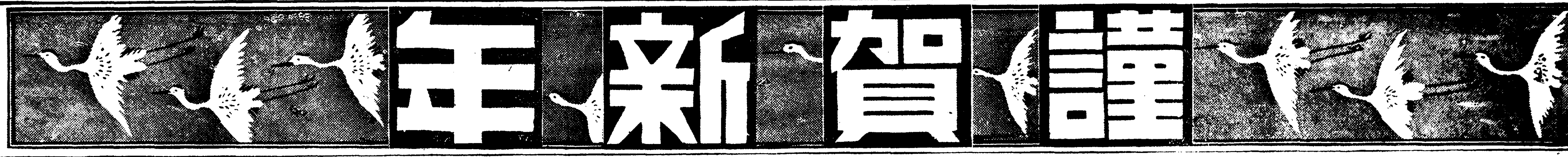
판돈(西班牙)은 누구에게로?

(李白山)

002366

營口市東雙橋子街 永信堂 電三九九番
營口市北本街 大利社代書事務所 李基善 電話六〇七番
營口農村中央區 大同商會
營口市公醫囑託醫 奇能權 營口入船街朝日醫院
營口農村醫院 李源宗
盤山縣第七區南小莊子 新義農場 營口郵政局私函第十四號
營口市北本街 信義號精米部 長電一三二一番
盤山縣三家子 平安農場
營口 特産物買賣 貿易委託 買精米業 ㊅ 大一公司精米所 金京俊 長電三七四番
盤山縣田莊臺大房身 三義社 天一農場
營口市 三義精米所 金成俊 電話一三四六番
營口市北本街 (二層建物 沐浴湯完備) 平安旅館 主 金弘黙 電話一一八二番
營口市 穀物貿易及精米業 ㊎ 新興公司精米所 白世敏 長電一四五五番 電略(シ)又ハ(シンコ) 私函四十一號
營口農村農務契聯合會 吏員一同

營口
海陸物産鰮肥鰮油製造販賣 張甲植商店 朝鮮咸南遮湖港
遮湖 利原鐵山會社
利興釀造株式會社 社長 李杓永 專務 李天鎭 常務 金裕屹
遮湖港 太田房藏
李秉綱
遮湖港 李慶甲
營口市 金再杰代書所
營口市北本街 綢緞布米 和洋雜貨 日新商店
營口市 金融精米所
各種印刷 和洋帳簿 福岡印刷所 電話一三九七番 營口永世街
田莊臺 人絹細布 和洋雜貨 龍川商會 李洛興
營口農村自衛團 團長 成洛天
營口金融會 會長 白元豹
營口農村農務保險合會 會長 李鳳韶
營口市北本街一六七 營口金融會 理事 崔保卿
田莊臺 三省精米所
田莊臺 大和精米所 朴泰洪 崔重逸
咸南遮湖港 金龍溢
遮湖港 銀湖カフェー 趙明煥
遮湖港 金昌俊
朝鮮運送株式會社遮湖營業所 主任 寺內駒三郎
咸南遮湖港 海運業 ㋙ 遮湖廻漕店
咸鏡線遮湖驛前 ㋚ 湖南合資運輸組 代表者 金學經
遮湖 李有甲
咸南遮湖 利原郡南面事務所 職員一同
遮湖勞働組合
朝鮮咸南遮湖港 海陸物産貿易商 大元號 電略ダ又ハ(タイ) 李柱禎 李柱國
遮湖漁業組合
牧野和夫
遮湖 親切叮嚀 設備完備 廉價提供 かもめ食堂
遮湖港 百貨 德元商店 尹貴孝
代表 金鐸
遮湖鰮油肥製造組合
咸南遮湖港 金光百貨店
司法書士 趙東熙
中華料理 共和樓張邦鈞
遮湖郵便所長 林廣輔
李致洙
廉興夏商店
遮湖港 金漢雄
遮湖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遮湖港 金相兌醫院
咸南遮湖港 明星堂藥房 主 金明秀
和洋菓子 其他食料 金剛屋商店 主 金宗鉉
遮湖港 金炳七
朝鮮咸南遮湖港 和洋雜貨食料品 富士屋本店 電話 振替口座京城二八一四九番
明太子 明太 木材 其他販賣 製樽組合 代 千炳祿
咸南遮湖港 鰮油肥製造業 金炳允
崔極連
遮湖面長 韓秉萬



大阪

本籍慶南南海郡南海邑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植松二一七 眼鏡レンズ製造業 鄭安根

大阪中央市場北通 朝鮮物產問屋 共益商會 電土佐堀一六八六番

本籍慶南東萊郡沙下面長林里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安中 朝鮮料理業大同館 主 裵榮奎

本籍慶南咸安郡北面中岩里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營業所大阪府中河內郡八尾町八尾座一〇一 ファスナー業 古物商 吉川商店 趙鏞福

大阪市東淀川區中津南通四丁目四一 砲金眞鍮鑄造原料 藤村商店 主 姜相律 電話福島(45)五〇三三番

大阪市旭區森小路洞五ノ三六 高級紳士洋服調進 高麗屋 電話旭二七二七番 振替大阪三三六六番

本籍慶南咸安郡伽倻面古谷里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安中 製綿業 金淑斗

本籍慶南咸安郡艅航面主東里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 徐用石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二丁目四番地 ネームプレート 銅眞鍮メタル板 七寶燒マーク 鑄込ヘ鋼キ板 諸官衙 中村工業所 主 中村芳夫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ノ五三 純朝鮮式美髮 最新技術奉仕 大衆理髮館 主 林鍾律 責任者 金南道 店員一同

大阪市東淀川區三國町五五三 人蔘鹿茸 唐材草材 都賣散賣 普和堂漢藥院 具壽源

大阪市西淀川區傳法南一ノ三五 土木建築請負業 金貴朝 日名 福田伊三郎

梁政享事務所 土木建築請負業 山川梁次郎 支店中大物町五三番地 尼崎市西大物町五三 電話四五二番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五七番地 布教師 金琦石 佛教布教所 佛教說教所

大阪市西淀川區□□町二五 古物商 吳宜煥

大阪市此花區西九條下通り一ノ二 各種機械部品專門製作 中央スプリング製作所 電話土佐堀一六一二番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丁目五三番地 各種機械部品 製罐業 金海鉱力製罐所 金顯哲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三丁目二六番地 朝鮮物產 最上洋品 和洋酒類 小賣商 壽商店 主 金八壽

兵庫縣川邊郡立花村三反田三五一番地 立花村會議員 文性仁

大阪市東淀川區天神寺山口町六一 海山堂觀相所 觀相四柱 擇日方位 觀相師 姜敬玉

大阪市東淀川區天神橋筋七ノ一四(但天六有樂座北トナリ) 新舊書籍 レコード 蓄音器 各種雜貨 時昌商會 主 李時一 店員一同

白馬印帽子製造販賣元 各種帽子製造卸商 三德商店 大阪市東淀川區本庄東通二丁目 振替口座大阪七二七番 電話北五五三〇八番

梅田製造卸商 委托問屋 丸京大阪支店 大阪市東淀川區本庄中通一ノ九 電話北六一五一番 振替大阪二八一九八

大阪市住吉區庭井町二番地 大山組 代表者 宋在憲 電話住吉四一九一番

大阪市東淀川區本庄中通り三ノ九 各種精米並木炭販賣所 李承敎商店

大阪 車運

大阪市西淀川區浦江北五丁目一番地 古鐵商 河村一貫堂 河甲祚 權一文

大阪市東川區三國町九四二 朝日屋クリニング工場 電三國四六六番 主 蔡大龍 職員一同

本籍朝鮮慶南馬山府外檜原里四三五 大阪市東淀川區國次町四九〇 秋山アンプレー工業所 主 朴升圭

大阪市東淀川區長柄西通一丁目六八 中央醫院 電話堀川五五四六番 院長 大阪醫學士 白秉基

大阪府豊能郡服部日鮮寺 住職 鄭永達

大阪市北區南扇町五番地 閔城人蔘宣傳配給所 電話北六〇九九 五九四〇番 振替口座 大阪八八〇六番

製紙原料 綿布 谷山彥一 康成玉 東淀川區本庄中通三丁目九番地 電話北八一九三

各種メッキ磨物一式 米山鍍金工場 主 金道濟 大阪市東淀川區豊崎西通三ノ五十六番地 電北六四四八番

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之町二ノ九五 本籍全南求禮郡艮文面三山里 酒類醬油 乾物雜穀 鐵 山下本店 主 鄭鳳旱

大阪市東淀川區天神橋筋八ノ八 半島醫院 院長 健康保險醫 崔亨澤

大阪市北區樋之口町三四番地 製鐵材料及新鐵各種上物 大阪都島商店 電話堀川六四一番 趙亥龍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竹淵 白米及酒類販賣商 ミヤコ屋

本籍全南務安郡一老面龍山里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竹淵 古物商 吳根伯

大阪府西郡八尾驛前安中四九九番 朝鮮海產物 布綿商店 金古釗

本籍全南務安郡海際面鶴松里 住所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植松 古物商 金年豊

全南務安郡□□面□□里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植松 一、三四〇 古物商 尹有萬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 村會議員 李在煥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 村會議員 姜信吉

大阪府中河內郡大戶村石切 (植附) 古物 金雲化事 金山商店 電話枚岡五二六番

大阪府大軌線瓢簞山驛前 各種清酒 麥酒 飲料品一切 主店 吉田正藏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 栗天堂漢藥房 主 全壯五

大阪市旭區新喜多町三〇七番地 牛肉販賣所 主任 李成穆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四丁目七一番地 東華藥房 金惟玘

大阪市東淀川區飛島町一九五 酒問屋 井上商店 主 朴錫福

大阪市西淀川區加島町一〇九二 古銅鐵商 李泰熙

大阪市此花區大開町一丁目七三番地 木村ブラシ製造所 主 成進熙

大阪市此花區茶園町一二五 古物商 金南喆

馬山屋酒類 兵庫縣尼崎市金樂寺八反田一番地 主 朴正模

大阪市北區南錦町三番地 廣濟堂 主 柳元永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ノ六 天仁食堂 主 尹斗天

食料品商 東淀川區飛島町一九七 白賢植

大阪市東淀川區豊崎西通二ノ四七 古鐵商 春山商店 主 鄭春錫

大阪市東淀川區中津南通四ノ三 濟州島朝天面朝天里二二五 梅本製帽所 主 宋天玉

大阪府吹田町宮之前 古物問屋 黃七成 電話八〇六

大阪市東淀川區北川口町八四四 古銅鐵屑物 加藤商店 主 金斗基

大阪府三島郡吹田町一二三一 漢城屋洋服店 朴泰山

大阪市東淀川區三國町五七七 藥種藥房 主 金泰洙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 朝鮮料理 新世界 大阪布敎所 布敎師 金仁培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三丁目二十二番地 日登堂漢藥房 全京根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ノ五 朝鮮各種酒販賣元 山城屋 主 金漢鳳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三二 成昌藥房 主 尹柱洪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三 馬力業請負 朴次岩

大阪市西淀川區浦江北二丁目七七 漢大小藥 李孝光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井一六 朝鮮料理 本店尼崎市金樂寺西龜寺十七 支店尼崎市西長下宮ノ西六 李春萬

古物商 金琦鳳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大字竹淵三七二 カモチ製造業 曺順祚

本籍全南靈巖郡西湖面長川里 金章炫

大阪府中河內郡鍋手村 網田僑風會指導員 朴仁奎

本籍 慶尙北道義城郡安溪面鳳陽洞一區 住所 大阪府布施市西高井田九八二番地 內地朝鮮向金井セルロイド眼鏡工場 主 金輝峻

本籍 慶北永川郡古鏡面削沙洞 住所 大阪府中河內郡加美村字正覺寺一九三五 輸出向セルロイド 各種眼鏡製造 山內セルロイド工業所 主 鄭起和 電話平野一三一五番

大阪市浪速區東櫻田町八六六 商標松竹臺 食卓製造業 黃雲宣

大阪市浪速區稻荷町二丁目九四三 鐵道省、海軍用 諸機ブラシ 其他色々製造 大村市太郎 趙有助

大阪市東成區中道本通一丁目十三番地 藥種貿易 普生堂漢藥房 電話東四五二九番 振替口座大阪三三六七番 金丙龍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三丁目十三 第一醫院 九州醫學士 李圭洪

太平朝鮮蓄音器 各社蓄音器 レコード 關西特約總販賣所 各種附屬品 東光蓄音器商會 康公林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丁目 但猪飼野郵便局前西入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丁目三 但シ猪飼野郵便局前西入北角 大衆食堂 食道園 金正根

大阪市浪速區榮町五丁目一番地 紳士靴 婦人靴 タンス卸 通信販賣 朴元福製靴所

大阪府中河內郡鍋手村六〇八 專門 全二厚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額田 朝鮮僑風會指導員 洪秉國

大阪府大軌線枚岡驛前 朝鮮料理 大同館 電話枚岡三〇五番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 鍼灸按摩師 泰泰華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額田 姜永鶴

尼崎市杭瀨壕外四ノ二 朝鮮料理 明月館 鄭漢錫

昭和生命大阪第一支部 外務部長 朴盛和 自宅大阪市西淀川區浦江上一ノ一二〇

大阪市西淀川區浦江上一ノ六五番地 海陸物產 權榮商會 主 鄭時井

大阪市東淀川區國次町七二 實費洋服裁縫所 主 姜信祚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豊浦 枚岡村衛生委員 柳遠斗

大阪市東淀川區小松町北通一丁目三十一 佛敎所 布敎師 朴松坡

大阪市東淀川區北川口町八四四 金聖信

大阪市東淀川區新高町南通一丁目二〇〇 朝鮮料理 蓬萊館 主 柳正永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五三 藥種商 曺甲鉉

大阪府中河內郡枚岡村額田 ファストーナ製造商 金仁守

記念メダル 徽章 精工堂徽章製作所 大阪市東成區鶴橋北之町一丁目三一七 電話天王寺四四五 振替口座大阪八八三七二番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丁目一 時昌商會 主 李時漢 李時燦 河昌東 李柄夏 振替口座大阪七〇七五五 支店 東淀川區天神橋筋七丁目一四 支店 西成區鶴見橋通七丁目四

防毒マスク 瓶捻口金 製罐 各種 自轉車用 小判罐製造 高田金屬製作所 主 高明湜 大阪市浪速區榮町六丁目十九番地

絹布綿布 毛織物並 朝鮮物產 金瀅祺商店 大阪市西成區鶴見橋通七丁目五 振替大阪八六〇七三番 支店 神戶林田區庄田町二丁目一四

大阪市西區京町堀通四丁目七番地 海陸物產 船具漁網 人絹絲 貿易 合資會社 東洋物產商會 電話長土佐堀五八八番 振替口座大阪一〇七四五〇番 電信略號(トウヨウブッサン)(トヨ)又ハ(ト) 取引銀行 三和銀行 住友銀行 岡崎支店 川口支店

山本クローム鍍金工業所 李用德 第一工場 大阪市東區小橋南之町二丁目二〇 第二工場 大阪市東成區鶴橋北之町一丁目一五五 電話南六七四四番

大阪市天王寺區下寺町四丁目八三 高級各種サンダル靴製造 通信販賣 木村商店 主 木村晋三 工場 西成區北開町一丁目五 電話戎四四三二番

大阪市西成區鶴見橋通七丁目四 綢緞綿布 毛織 通信販賣 朝鮮商會 支店 朝鮮大田府本町二丁目一九 趙明三

大阪市浪速區榮町四ノ二七 黑スムース エナメル下地 各色クローム 趙製革所 趙猷均 電話櫻川一四六七番

大阪市浪速區榮町四丁目三八 東亞興業研究所 電話櫻川三九〇八番

大阪市西成區長橋通七丁目四 慶吊造花 共成造花所 主 梁寬杓

優等酒類醬油元直接販賣 新設小賣店大歡迎 各種酒類醬油 現金問屋 鄭泰吉 大阪市浪速區立葉町一ノ三一 但シ立葉小學校西二ッ目辻

大阪市西成區南開三丁目二六 阪神ナット工作所 朴 電話櫻川一一四〇七番 振替口座大阪三二六〇〇番 電略ハンシンナット

大阪市浪速區稻荷町二丁目九〇五 朝鮮人蔘 唐材 補血草 都散賣 回春堂藥房 主 朴奉華

海軍工廠納入 イカリ印ナット製作 合名會社 三和製作所 代表社員 朝倉慶雄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二 電話櫻川一八九九番

特殊ナット專門 日本標準規格 ウイツト規格 SAE規格 製作販賣 福本製作所 主 李述 大阪市西成區南開町四丁目九 電話櫻川六三、七〇番

各種蓄音器 レコード 卸賣並委托販賣 代理 大島商店 大阪市西成區長橋通八丁目九 但今宮キネマ北半丁 電話櫻川七三三八番

大阪市西成區津守町一七三 (電天下茶屋二八八八) セメント瓦 琺瑯エナメル部 東亞商會

公認 大阪朝鮮藥業組合 大阪市□□町二丁目三

大阪市西成區中開町四丁目二 各種酒類 清酒 忠北淸州屋 宋命

大阪市西成區津守町六二七 漢人參 和漢藥 專門 普仁堂藥房 主 鄭容柱

大阪市西成區旭南通五丁目一 朝鮮佛敎布敎所 布敎師 金德祐

大阪市浪速區榮町三丁目二〇 高田製靴所 主 洪

大阪市西成區鶴見橋通七丁目九 朝鮮料理 大成館 主 林讚宗

大阪市西成區北開町四丁目一 革帶製品所 夫秉恪

大阪市西成區鶴見橋北通五丁目五 朝鮮物產 本セル 綢布各種 卸賣 金玉出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丁目八 釜山藥房 主 白雲山

大阪市西成區中開町五丁目一〇 醬油酒類販賣 西村商店 李容舜

大阪市浪速區勘助町一丁目四九 高級各種製靴 共榮工業所 主 崔相舜

輸出・玩具雜貨商 小川商店 主 趙禹根 營業所 京都市上京區紫野築山町三 電話西陣八二四五 工場 大阪市東淀川區田川通六ノ三六

大阪市浪速區大國町五丁目三二 皮革工業 高達元

朝鮮佛敎禪宗布敎所 大阪府中河內郡巽村大字足代四五〇ノ一 布敎師 邊知豊

大阪市東區勝山通五丁目六二 製紙原料商 金本益三

大阪市東成區猪飼野朝鮮市場 西洋酒 醬油 味噌 乾物 丹波屋商店 趙南重

大阪市東成區腹見町五〇七 禪宗濟州觀音寺大阪布敎所 布敎師 吳漢日

大阪市東成區白山町五五 松本造花製作所 金景昊

大阪市東成區中道元町一ノ二三 各種ミシン附屬品一式 大同商事株式會社 代表社員 金元熙 電話東四六八七番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丁目八 海陸物產食料品一般 卸賣並委托業 三信商會 電話天王寺五六一六番

朝鮮文新聞雜誌印刷 精文社印刷所 大阪市東成區中濱町二ノ八一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八丁目六 保命堂物療院 關丙燮

大阪市東成區猪飼野西三ノ一〇二 事務貿易 大聖商會 電話天王寺一一七番

大阪市東成區猪飼野西三丁目八四 春軒堂藥房 主 李容柱 支店 李相王

大阪市東成區東小橋北之町三ノ六 諸金屬 BPO 林山豊一工作所 主 林元植

大阪市西成區長橋通八丁目十一 平和堂藥房 主 夫基善

大阪市西成區中開町三丁目六番地 宋秉九 支店 兵庫縣武庫郡 電話御影七六八二番

大阪市東成區中道町二丁目九二 各種ミシン卸並附屬品一式 共榮ミシン商會 主 金秉俊

大阪市浪速區三島町八四 金銀細工 古着 成元日商店

瓊玉膏本舖 延壽堂藥房 主 朴泰淳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丁目四

順安

平南順安 義明學校職員一同

平安南道順安 安息教會附屬順安病院

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教 西鮮大會

平原郡順安面 職員一同

朝鮮順安驛前 穀物貿易商 平安商會 電話二八番 振替京城一六四〇九番

平安水利組合 評議員 朴奉恩

平原郡順安面延山里一七一 有志 玄命夏

平南平原郡兩花面 龍花金鑛

朴炳順

京義線順安驛前 肥料販賣 玄米製造 榮善商會

平原司法書士組合順安支所 李龍河 外 職員一同

啓明學院 職員一同

順安面南昌里 朴鍊二

順安驛前 平安醫院 醫師 安哲煥

和洋雜貨 主 朴濟連 順安和信連鎖店

穀物貿易 金銀賣買 光成商會

穀物商 信益商會 康義鳳

洋品雜貨 奎聲商店

漢川

漢川金融組合長 崔贊洙

平安南道會議員 崔正洙

獨逸ナウマンミシン會社 平原郡總代店 主 金用珉 李根喆

平原郡青山面松岡里 鍼術科、灸術科、マッサージ科、電氣治療科 荒木鍼灸科院 院長 玄敬勳

平原郡漢川市 綢緞布木 石油 衣類 平和商會 金觀堯

專賣所長 康國善

聖沁自轉車商會 金泰沁

平壤新陽里 德圓木工社 李炳斗

平原郡青山市 平和醫院 韓泰勳

三五商會 李現實

平原郡青山市 朴宗善

天寶白土鑛業所長 吳世昌

三興商會 崔寬鎬

金剛商會 金昇鶴

平原郡漢川市 回生堂藥局 田文

漢川石油木材 韓昌浩

漢川金融組合理事 朴宗均

平原郡青山面 生醫院 朴亨柱

漢川面漁業組合

崔永翊

金元合

孫珍益

新明理髮館 金興鉉

朴信吉商店

日增精米所 黃呂根

崔允鎬

漢川商會

正直屋

朴鍾屋

永平醫院

韓炳璨

鄭和術

零時

國境商事株式會社 零時出張所

東一商店

金辛烈

零時面

朝鮮料理 零時館

零時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國境組 金尙沃

申光振

銀河 武井常吉

有馬純男

金興新

零時和信連鎖店

共信商店

吾北商會

林昌奉

零成館

吳永範

錦星洋服店

朝日時計店

三興商店

北支의資源과列国의權益

朝鮮日報 新年號 其九

事變의經濟的根據

朴用來

요새 흔히 國際情勢를 論할때 「가진나라」와 「갓지못한나라」를 對立表現하고잇다。여기에 支那事變의 經濟的根據를 말함에잇서서도 이表現을 借用하야 適切하지안흘가 생각한다。

現今 世界에는 「가진나라」와 「갓지못한나라」가잇서 서로對立 抗爭하고잇다。한便에는 資源과 市場을 豐富히가진나라가 이를 喪失치안흐려고 다른한便에는 資源과市場이 缺乏한나라가 이를獲得하려고。

(地) 球上의 植民地라植民地는 이미 모두 分配되어 더分配할 餘地가 업서되엇다。이러한境遇에잇서 「갓지못한나라」가植民地를 要求할때 「가진나라」가 그旣得權을 讓步치안흐면 「갓지못한나라」는 抵抗이必[illegible]

[illegible] 植民地的 獨立國으로 그 活路를 求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이는 마치 窮鼠가 反噬하는 가장 緊迫한 狀態로부터 出發함과 가튼 理致이다。그러면 日本의 事情을 도리켜보건대 「五十年間에 人口는 倍加하얏다。그러한데도 不拘하고 狹隘한 島國外에 移民할 地面을 求하려하면 各國에서 阻止를 當하고잇다」 일즉이 日本移民을 歡迎하든 나라도 漸次 自國의 實力充實을따라 移民制限을 實施强化하고

(旣) 植移民에 對하야서까지그旣得權을 侵害하려는 傾向에잇다。

그리고 産業原料의 大部分을外國에 仰하고잇는 形便으로 資源缺乏에 悶惱하고잇는 一方 [illegible]의 輸出도 [illegible]關稅障壁에빠지엇다。輸出은 昭和六年 金本位離脫에따른 爲替低에[illegible]就되어 急激한 伸長을보아一時는 日本商品이 全世界를風靡하는感이 잇섯스나 이爲替低의 效果도 大體 昭和九年頃까지에 出盡하야 그後는增進은하고잇스되 이때까지와가튼 長足의 增進率은 볼수업게되엇다。그理由로는 무엇보다도 各市場에잇서서의 關稅引上 輸入許可制 配當制 바ｰ타ｰ制等 日本商品에 對한 輸入防止와 [illegible]

(輸) 出增加에 有効하든 爲替低가 도리혀原料高로 苦痛을 주게되것을 볼수잇다。이傾向은 列國이 自給自足을 目標한 經濟單位를 形成함을따라 一層 深化하게되엇다。

이에잇서 日本도 對策을 講究치안흘수업게되엇스니 滿洲事變을 契機로 一路日滿支經濟의結成에 邁進하게 되엇다。即 滿洲國의 建設、冀東自治政府와 冀察政務委員會의成立은 日滿支經濟團의 한現象形態로 볼것이다。이는四面楚歌로 進路가 閉塞된 日本經濟로서 것지안흘수업는 길이오 唯一한活路일것이다。

그러나 滿洲國은勿論 國民黨의 罪惡을 羅列하고 國民政府에對한 彈劾的精神을 [illegible]

(强) [illegible]自治政府는 [illegible]國民가업스되 冀察政務委員會는 成立當初부터 日本과 國民政府間에잇서 그態度가 分明치 안햇다。同委員會 成立當時 宋哲元委員長은 民衆의 [illegible]을 聲明하얏슴 뿐으로 國民政府의 壓力을 [illegible]的으로 拒否치못하얏다。이리하야 同委員會는 日本의勢力과 國民政府勢力에 한발식을 걸처잇고 日本의壓力이 强하야지면 日本側으로 國民政府의壓力이 强하야지면 國民政府側으로 기우러질 性質의것이엇다。

果然 國家統一運動의 進展에 伴하야 國民政府의 地盤이 鞏固하야감을따라 同委員會는 漸次日本勢力으로부터離反하게되엇다。

(蔣) 介石은 [illegible]主義의 [illegible]하고 英米資本을 [illegible]하야 國家統一에 邁進하얏다。英國資本을 中心으로한 歐米資本에依하야 鐵道、道路、航空路等 交通網의 整備、無線電信電話의 普及、幣制改革에依한 [illegible]行制의 統一等으로 各地方에 割據狀態로되어잇든 民衆은 接近하게되고 [illegible]地와 中央의經濟的關係는 緊密化하야 統一國家로서의體制를 漸次 갓추게되엇다 그리고 地方軍閥이 依然 [illegible]하야서는 國家統一運動에 支障이 生하므로 [illegible]財閥으로부터 [illegible]하고 이로不足되는때는 [illegible]米資本의 [illegible]을바다 武力統一을 圖하야 過去數個年間에거어그完成을보앗다。

(一) 方思想的으로는「抗日救國」의 旗幟를 노피들고 民衆에게 抗日意識을 鼓吹하야 그統一을 圖하엿다。特히 滿洲事變을 契機로하야 抗日宣傳은猛烈을 極하고 英米에 依存하면서 着着對日抗戰을 準備하야 國民一般의 思想은 抗日一色으로 더피게되엇다。

(中) [illegible]動이 [illegible]을따라 冀東自治政府와 冀察政務委員會의存在는 [illegible]에 [illegible]가티보이게 되엇다。冀東自治政府의 [illegible]冀察政務委員會의中央化가 國民政府內에서 [illegible]되게되고 [illegible]抗日意識은 나아가 [illegible]의解消까지 부르지게되엇다。西安事變以來國民政府의 [illegible]共政策에伴하야 어氣勢는 一層昻揚하야 冀察政務委員會의 中央化工作은 具體化하게되엇다。國民政府의 壓力으로從來冀察되엇든 同委員會의 自治權은 制限되고委員中 知日派는漸次沒落하야 事事에 國民政府의容喙를밧게되엇다。冀察政務委員會의 武力的背景이廿九軍에까지 抗日意識이 [illegible]하야冀長 宋哲元의 命令에服從치안케되엇다

이리하야 北支의 低氣壓은날로 濃化하야가든中 마츰내昨年七月七日 [illegible]事件이爆發하고야말엇다

이를 要컨대 이번의 支那事變은 日本의 [illegible]政策과國民政府의 國家統一運動의 衝突로早晩間 이러나고야말 運命에잇섯든것이라 할것이다

天惠의資源豐富

石炭·鐵鑛·鹽·棉等 多岐多樣

殆半이死藏·開發은이로부터

日本國防經濟上重視

이번의 支那事變으로 支那經濟情勢 就中 北支經濟情勢에 重大한 轉換을 齎來하게되엇다。

北支는 國防上에 잇서서나 産業上에잇서서나 日本과 緊密한 關係에잇슴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데 日滿支政治經濟圈의 一環으로 北支를 特殊地帶化하려는 工作이 最近 支那의 抗日意識昻揚으로 阻止되려하얏다。

여기에 어떤 事變을 자아낸 原因이되엇거니와 今日에와서는 北支의 大部分이 平定되고 防共、親日滿을 目標한 中華民國臨時政府까지 誕生하야 日本과北支間의 緊密의 度는 加하게되엇다。

特히 産業的見地에서보다면 天惠의 豐富한 資源을 가진 北支가 今後 日本의 資本과 高級技術의 積極的進出에依하야 實로 刮目할만한 開發을 볼것은 더 말할것도업슬것이다。

그러면 北支五省의 資源은 果然 어떠한가? 여에 어떠를 紹介하야 參考에 供하려하는바이다。

農産資源

北支의 耕地는 三一〇、一三二千畝로 그九割은 田地이며 農家戶數는 一二、五七五千戶인데 이를 省別로보면

	耕地千畝	農戶千戶	一戶當耕地畝
河北	一〇四、四三二	四、三三三	二四
山東	一一〇、六三二	五、九六六	一九
山西	六六、二三〇	一、八〇四	三六
察哈爾	一六、八〇四	[illegible]	[illegible]
綏遠	一六、六五九	[illegible]	[illegible]

인바 北支五省中 河北과 山東은 全支中에서도 有數한 農業密集地이다。그러나 農具 施肥灌漑 排水 品種改良等 科學的施設은 殆無하야 經營은 幼稚하다。

農産으로서는 米、小麥、大麥高粱、粟、玉蜀黍、大豆、棉花、煙草、落花生等이 主要한것으로 되어잇다。

▲米＝五省産額(民國二十一年統計)二四一、六五八千斤 河北、山東、山西가主産地

▲小麥＝五省産額一一、二四六〇〇〇千斤、河南、山東、河北이 主産地。

▲高粱＝氣候關係로 北部支那가 主産地로 五省産額八〇億斤

▲粟＝亦是 北部支那가 主産地로 五省産額一〇、一七四百萬斤。

▲大豆＝大豆는 滿洲國이 世界第一위 産地이나 北部支那의 産額도 [illegible]支하야 五省産額이五

十億斤에 達하는데 特히 山東省은 一省만으로도 全支의 二四%를 産出하고잇다。

▲棉花＝北支의 許多한 農産物中 棉花는 日本綿業의 原料供給問題解決의 關鍵으로 가장重要한 意義를 갓고잇서 內地綿業의 原料自給策으로서 北支棉花增産에 큰期待를 갓고잇는터이다。北支各省 特히河北、山東、山西의 諸省은 棉花適作地로 氣候 그他의 自然條件의 滿洲國보다도 優秀하다고認定되고 잇다。그리하야 그 收穫量은 埃及棉 다음으로 世界第二位를 占하고 그 收穫量도 北支만으로 年 六千萬斤을 의 多額에 達한다。그러나 棉花의 質이 劣惡하야 日本의 紡績原料로서는 最近까지 北支棉은 使用되지안햇다。그러치만北支棉의 品種을 改良하야 日本紡績의 原料로 適合케함은 決코 不可能한일이아니겟으로 日本의 資本과 技術의 指導에 依하야 紡績原料로 支那棉은 利用할 可能性은 充分하다。

畜産資源

北支의 畜産資源은 그 數과種類가 만흔것으로 相當히 重要性을가지고잇다。牛、羊、豚、馬等 晋通家畜外에 驢、騾、駱駝等도 만타。그畜産은 五省內의 需要를 充當하고도 皮、毛、內等巨大한 數量을 海外에 輸出하고잇는 形便이다。支那經濟年報(一九三三年報告)에 依하면 河北 山東 山西의家畜數는 如左하다

	三省合計	全支에對한比率
牛	二、〇九九頭	一一%
羊	三、四八四	一九
豚	一六、六一六	二一
馬	六二四	四三
騾	二、九四七	五〇

北支의 牛는 所謂山東牛라는 일홈으로 日本에 多數 輸出되고잇고 內外에 牛皮의 輸出도 만타。輸出을 目的으로 飼養되고잇스므로 品質도 優秀하다。羊은 全支을 通하야 北部各省이 가장만타。種類는 綿羊과 山羊의 二種類인데 肉、乳、皮를 利用할 目的으로 飼養하고잇스므로 羊毛의 品質은 粗惡하고 收穫量도 적다。羊毛는大部分 天津으로 集中되어 紙毯原料로되는外 北米로 多量輸出되고잇다。

水産資源

北支의 漁業은 山東省이 中心으로 그漁獲物은 支那各地는勿論 外國에까지 輸移出되고잇는데 靑島를 中心으로한 日本資本에依한 漁業이 壓倒的으로 優勢하다。

그러데 北支水産中 特히 重要한것은 鹽으로 海鹽뿐이아니라 湖鹽、井鹽、岩鹽의 賦存量도만타。山東、河北兩省의 鹽은海鹽이오 山西、察哈爾各省은湖鹽이다。靑島를 中心으로한 山東鹽은 世界大戰後 日本에 만히 輸入되어 曹達工業의 原料로 使用되고잇다。中國經濟年鑑에依하면 民國十九年의 河北省産鹽은四百萬石 山東省産鹽은二百五十萬石 山西省産鹽은 百六十萬石으로 報告되엇다。

鑛産資源

北支의 鑛産資源은 石炭과鐵이 가장 重要하다。金、銀、銅、鉛亞鉛、滿俺等의 資源도잇기는하나 現在까지의 調査로서는 아직 그리 有望한것이 發見되지안허 諸資源中 現在 採掘되고잇는것은 鐵、石炭、金의 三者에 不過하다。如斯히 鑛產資源은 그種類는 적으나 石炭과鐵은 그埋藏이 莫大하야 豐富하고 또그것이 全部가 未採掘狀態에잇다。極히 一部分이 探掘되고잇다고는하야도 그採掘方法이 粗雜非能率的으로 不合理한 經營을하고잇는것이 大部分이다。冀察政權成立以來 日本은 積極的으로 北支의 鐵과 石炭鑛에 進出하려 하얏스나 冀察政權의 中央化로 鑛業權、土地賣却等이 南京政府로 미아마 妨害되고잇섯다。그러나 今後는 日本資本의 旺盛한 進出을보리라고생각되거니와 鐵과 石炭은 日本의 國防上重大意義를 가지는것으로 北支의 該資源은 重要視되고잇다。

石炭資源

北支의 石炭資源은 北京地質調査所의 報告에依하면

	埋藏量	最近年産
察哈爾	[illegible]	[illegible]
綏遠	[illegible]	[illegible]
山西	[illegible]	[illegible]
河北	[illegible]	[illegible]
山東	[illegible]	[illegible]

으로 全支의 六割갓가히가 北支五省에 集中되고 特히 山西省이 全支의 約半을 占領하고잇다。그러데 現在開發은 交通關係上 河北省이 第一로 年約八百萬噸을 産出하야 全支産額의 三分의一을 占領하고 그다음은 山東、山西省의 順序이다。이를 各省別로보면 如左하다。

▲河北省

開灤炭礦＝民國二十年의 出炭高는 五百三十萬噸으로 全支를 通하야 年百萬噸以上을 産出하는것은 이炭礦뿐이다。炭質이良好하고 特히 製鐵用에 適當하므로 日本에도 年二、三十萬噸輸出하고잇다。埋藏量은 約四、五億噸으로 推定되고잇다。

井陘炭礦＝埋藏量은 二億二千萬噸이고 年産은 七、八十萬噸으로 支那로서는 有數한 大炭礦이다。

臨城炭礦＝埋藏量四億五千萬噸이오 年産二萬噸이다。

門頭溝炭礦＝北京西方五十支里의地點에잇는 炭礦으로 埋藏量六千五百萬噸、年産三、四十萬噸인데 어地方은 七、八十의 炭礦이 密集하야 어를 全部合算하면 埋藏量이 數億噸에 達한다。

柳江炭礦＝秦皇島로부터 三十키로의 地點에잇는데 埋藏量은 一億五千萬噸(可採量六千萬噸)인바 良質의 無煙炭으로 年産二三十萬噸이다。

磁家莊炭礦＝宛平縣에잇는바 [illegible]

▲山西省

山西省의 石炭은 前述한바와 가티 一省만으로 全支의 半分을 占領하고잇으나 交通이不便하야 現在 그開發은 極小部分에 不過하다。將來에도 이를開發하면 資源은 無盡藏이다。現在採掘하고잇는것은 保晋公司、晋北公司、同寶公司、平定公司等으로 年三百萬噸을 産出하고잇다

▲察哈爾省

宣化、龍關、烟筒山一帶에 亘한鐵鑛은 埋藏量一億噸에갓갑고鐵含有率도 놉파 北支第一의良鑛이다。支那官民合辦에依한龍烟公司가 專用鐵道를敷設、石景山에 熔鑛爐二基를 建設하고 開發을 計劃하얏스나 아직 操業開始를 보지못하얏는바 今後 그開發을 보게될것이다。

▲綏遠省

綏遠省의 鐵鑛은 近年發見되엇는바 어떤것은 含有率六、七〇%의 富鑛이고 大部分 察哈爾省宣化縣의 地域에 集中되어 將來 開發될 希望이만타。

▲山西省

埋藏量은 約三千萬噸인데 民國十一年부터 保晋公司가 年産二十萬噸가량 採掘하고잇다。附屬製鐵所는 一基의 熔鑛爐로一日製鐵能力廿噸이라 하는바 西北實業公司도 어鐵鑛을 處理할目的으로 日産百六十噸의 熔鑛爐를太原에 建設하얏스나 아직操業에 着手케되지못한 模樣이다

(寫眞은 大沽附近鹽田)

▲山東省

金嶺鎭鐵山이 主要한것으로 埋藏量千五百萬噸 年産十五萬噸이다。

章邱炭礦＝埋藏量 二億六千萬噸 年産十萬噸이다。

博山炭礦＝埋藏量二億二千萬噸 可採量一億五千萬噸 年産十萬噸이다。

炭礦、坊子炭礦(埋藏量五千萬噸)等이 잇다。

▲山東省

中興炭礦＝津浦線臨城驛으로부터 三十二키로의地點으로 交通이便하야 現在로는 山東省에서 가장有望한 炭礦이다。埋藏量一億噸、最近年産七十萬噸인바 有煙炭이나 灰分이적고 코ｰ크스製造에 가장適當하다。

[illegible]炭礦＝津浦線大汶口驛의東方六十支里의地點에잇는바 埋藏量은 四千萬噸으로 將來性이잇는 炭礦이나 現在는 未開發狀態에잇다。

魯大炭礦＝魯大公司의 支配下에잇는 炭礦으로서 淄川炭礦(埋藏量七億三千萬噸、그半分은可採量、最近年産六、七十萬噸)南定

鐵鑛資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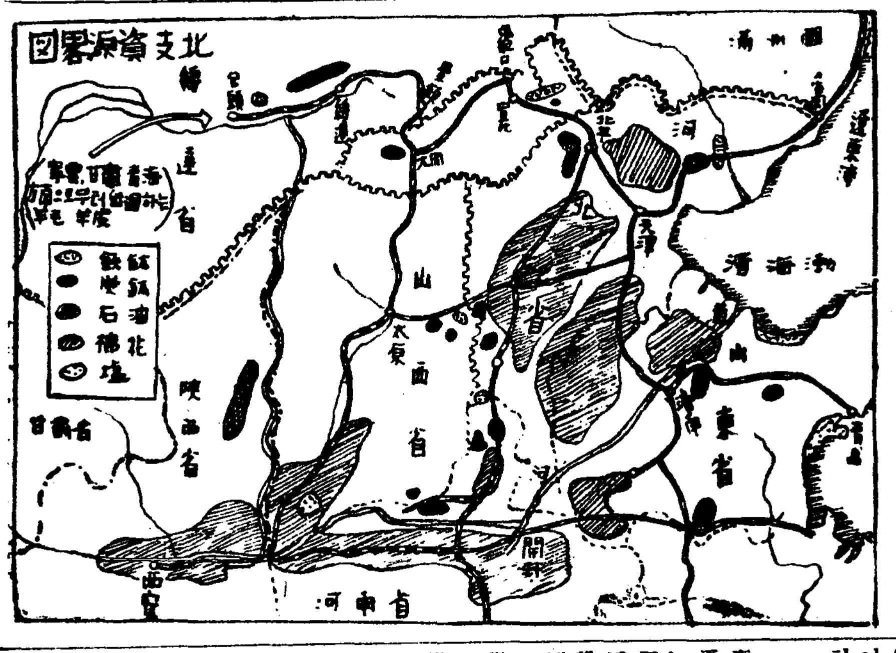
全支의 最近 鐵鑛埋藏推定額을보면

	埋藏量千噸	百分比%
河北	三二、四二四	一三·七
山東	一三、三〇〇	五·六
察哈爾	九一、六五四	三八·九
河南	一、〇一九	〇·四
安徽	一九、八一八	八·四
江蘇	二、〇〇〇	〇·八
湖北	四六、六四〇	一九·七
浙江	七、一五四	三·〇
廣東	四、〇〇〇	一·七
[illegible]	一八、四五四	七·八
合計	二三六、八五四	一〇〇·〇

으로 鐵鑛埋藏量도 北支三省이 全支의 五割以上을 占領하고잇다 그러나 [illegible]의 [illegible]하면 北支의것은 中南支의 것보다 떠러저 支那의 [illegible]四〇%보다 品位가 나즌것이大部分이다。北支에서 現在開發되고잇는것은 山東의金嶺鎭鐵山과 山西의[illegible]에不過하다。北支[illegible]로 開發되고잇슴에不過하다。北支[illegible]을 各省別로보면 如左하다。

▲河北省

灤縣、張家莊、井陘、吳家莊等各地에 埋藏되어잇스나 鐵含有量平均三〇%의 赤鐵鑛이므로 貧鑛이만타。



列國投資錯綜

開發上熟考必要

英國

▲鐵道借款

津浦鐵道＝借款總額은 八百萬磅인데 英、獨兩國이 主要한債權國으로 그中英國의 借款은二百九十六萬磅인바 擔保는 河北、山東、江蘇、福建各省의 稅金이다

平漢鐵道＝借款總額은 五百萬磅인데 債權國은 英國、佛國、日本인바 擔保는 鐵道財産과政府保證이다。

北寧鐵道＝債權國은 日本과 英國인데 그中 英國은 國內外鐵路借款二百三十萬磅、[illegible]借款五十萬磅四百輛貨車 借款五十萬磅이다。

▲鑛山權益

開灤炭礦＝一八九七年十月 中英公司와 直隷巡撫使間에 資本金百萬兩을 折半出資하야 朝陽炭坑經營契約이 成立되엇는데 端을發하는바 一八七八年 當時 直隷總督李鴻章時代에 設立된 開灤鑛務局은 一九一二年六月 英國製造鑛業會社와 支那側灤州鑛業公司의 兩社各百萬磅의 出資로合倂經營으로하고 純益三十萬磅에 達하게까지는 그六割을 前者에 四割을 後者에 또三十萬磅을 超過하는 利益에 對하야서는 兩社等分으로 分配하기로하엿다。

▲門頭溝炭礦＝英國資本인 上海華商公司와 支那商과의 合辦으로 一九一九年 採掘經營을 開始하엿는바 資本金三百萬兩、그中 拂込資本二百九十八萬六千二百五十五兩인데 英支各半出資이다

▲通信機關

電信、無線電信及海底電信에關한 英國의 對支投資는 英國의特殊會社인 케ｰ불·와이야레스社의 統制支配下에 잇는 大東電信會社를 中心勢力으로活躍하고잇다。

▲海運

支那沿岸及內河航路에 就航中의 英國船舶은 百四十八隻、二十八萬五千噸에 達하야 英國의 [illegible]

▲電氣事業

北支에잇서서 英國資本의 主要한 電氣會社는 使館區電所이다

▲商社

在支企業中 重要한地位를 占하고잇는데 主要한會社는 支那航業會社와 印度支那航業會社로 모다 天津을中心으로活動하고잇다

資本金一五〇萬元이다。

▲電部 山海關電燈公司 (英支合辦、資本金二六〇千元、英國公部局經營[illegible])

今後 日本이 北支經濟를開發함에잇서 北支에 列國의權益이 錯雜하고잇음은 무엇보다도 充分히考慮를 要하는것은 北支에잇서 列國勢力의 進出은 一八六〇年英佛聯合軍의北京攻略에 端을하야 列國의軍事的威力으로 各種權益의 設定을보앗는바 此等權益設定에 뒤따러진 外國은 經濟的進出을 企圖하고 또한外國은 鐵道借款權益獲得을 目標하야 北支는 드디어 列國의 經濟的權益爭奪地로化하얏다。特히 北支에는 英國이 가장오래전부터 뿌리를박고잇고 또 日本도山東半島로부터 進入하야 相當한 根據를 갓고잇다。다시 最近은 西北方面에 進入하야 滿洲國獨立以來 日本의北方으로부터의 進出은 實로刮目할만한바가잇고 佛蘭西、白耳義의 山西進出等도서로어울리어 權益保護伸長에 努力하고잇다。어에 列國의 北支進出의 過去를 一히 回顧할수는업스므로 單只列國의 北支에잇서서의 主要한 現有經濟的權益만이라도 들어參考에供하기로한다。

獨逸

▲鐵道借款

獨逸의 北支에잇서서의 鐵道利權은 津浦鐵道를 除外하고는 全部 消滅하얏다。現在의 借款으로서는 津浦鐵道에七四〇、八十三萬磅、平綏鐵道에元利合計二百九十萬磅、平綏鐵道(投資百三十萬元)正太鐵道(六十萬元)이잇다。

▲鑛山權益

井陘炭礦은 獨支合辦으로 開發되엇는 大戰까지는 그經營權을 獨逸이 掌握하고잇섯스나 現在에는 河北省營으로되고잇다。이炭礦에 獨逸은單只 債權者로서 關係하고잇슬뿐이다。

▲商社

英國의 商社는 北支에 約二百餘나되는데 그中 主要한것을 드러보면 天津의 怡和洋行(五百萬磅)、太古洋行(五百萬磅)、亞細亞火油公司(六千萬磅)、英米煙草公司(英米煙草트러스트의一部)等이잇다。

佛國

▲航空事業

大戰後 獨逸의 對支投資로 著名한것은 航空事業이다。歐亞航空公司는 公稱資本七百五十萬元으로 그中 支那側이五百萬元、獨逸側이二百五十萬元을 出資하야 獨支合辦으로 經營하고잇다 中國航空公司와가티 航空範圍는北支로부터 全支에 亘하고 支那政府로부터 어든 各種特典도 大體 中國航空公司와가다

▲鐵道借款

鐵道借款의 主要한것으로 平漢鐵道(投資百三十萬元)正太鐵道(六百萬法)를 들수잇다

▲鑛山權益

佛國의 支那에對한 鑛山投資는 그原動地가 印度支那이關係上主로 南支에만코 北支에는불만한것이업다 單只 山西省의鐵及石炭採掘에關한公司가잇는바英佛支合辦으로資本金百萬兩이다(續)

賀正

圖們線東京城市 海日洋行 高等旅館 海日旅館 食料雜貨和洋金物 金 電話四〇番

東 京 城

鹿道驛前 各種新炭木材問屋 李會萬 原籍 咸北鏡城郡朱乙驛前

鹿道驛前 愛林會

圖佳線東京城市 日新旅館 穀物貿易 吉興泰 李鍾元 電話二五番

圖佳線東京城驛前 永濟醫院 醫師 李漢壽 電話二三番

圖佳線東京城市 龍井館 電話十六番

圖佳線東京城市 朝鮮料理 明月館 金文基 電話三九番

圖佳線東京城市內 金物及食料雜貨專門度量衡販賣業 大林號 電話三三番

圖佳線東京城 郵政局長 金時煥

圖佳線東京城驛前 東興源 主 李興俊 電話四七番

圖佳線東京城市 玄鎬鎭魚物部

圖佳線東京城市 東一洋行 電話五三番

圖佳線東京城驛前 東滿洋行 河東園

圖佳線東京城市 渤海農場 文世景

穀物貿易醸造業 鮮滿商會 主 高碩勳 電話三六番

圖佳線東京城市 旣成服メリヤス잡화 和洋雜貨 六滿商會

圖佳線東京城市 精米及穀物商 大興精米所 組 興烈 電話四八番

圖佳線東京城金融組合理事 李東[illegible]

寧安縣東京城市 食料品商 李漢喆

圖佳線東京城市 渤海食堂 崔鳳淑

寧安縣新安鎭第七分隊 分隊長 張任煥 隊員 許昌律 同 申英秀 同 李晋天 同 朴英浩 同 申富貴 同 許昌烈

寧安縣城內 永昌鐵工所 金河翊

牡丹江省寧安縣公署前 鷄林旅館 金相勳

牡丹江省寧安縣城內 寶城旅館 監理教會傳道師 金達涉

牡丹江省寧安縣城內 香川屋 崔同石

寧安縣西馬道 全相道

老松嶺驛前 各種新炭木材商 韓承泰

鹿道驛前 永樂館

鹿道驛前 愛林會長 李甫彦

鹿道驛前 鹿道普通學校

鹿道驛前 食料新炭 高城商店 尹鳳文

鹿道驛前 三星堂藥院 李成奎

鹿道驛前 愛林組合理事 崔榮植

鹿道驛前 鹿道診療所 崔仁[illegible]

圖佳線鹿道驛前 木材新炭業 李崔[illegible]

鹿道驛前 朝日運送部 金龍得

鹿道驛前 滿成商店 黃海得

鹿道驛前 丸滿商店 尹長憲

元山下宿屋 邊學九

鹿道驛前甲自衛團 副團長 辛虎喆

圖佳線鹿道驛前 靑林號 李峯熙

鹿道驛前 原木新炭 北滿洋行 事務 崔官興

圖佳線春陽驛前 廣成堂藥房 韓秉璉

圖佳線春陽驛前 東昌商店 李昌鉉

圖佳線春陽驛前 食料雜貨商 忠信商店 梁永植

春陽驛前 滿盛商店 許允瑞

春陽驛前 松海商店 全慶勳

食料雜貨穀物貿易商 李春華

圖佳線春陽驛前 洋品雜貨 順興商店 任龍鉉

圖佳線春陽驛前 食料雜貨穀物貿易商 新昌號主 高柱鶴

春陽驛前 明信時計寶店 李炳[illegible]

圖佳線樺林驛前 樺林普通學校 校長兼區長 全洪烈 敎員 全東洙 同 朴順熙

圖佳線靑林驛前 靑林醫院 禹龍伯

圖佳線靑林驛前 穀物貿易 廣林洋行 區長 朴貞[illegible]

圖佳線靑林驛前 七星館 金錫奎

圖們仲秋街三三二 協和寫眞館 兪龍萬

圖佳線樺林驛前 中央醫院醫師 金毅琦

圖佳線樺林驛前 大信洋行 朴勝龍

圖佳線樺林驛前 柳天一

濱綏線山市驛前 新興商店 金山運送部 金吉碩

牡丹江西長安街 自働車修理及鍛冶熔接專門 森山工作所 電話三六三五番

牡丹江省寧安縣海林驛前 和興精米所主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主 金光烈

牡丹江西長安街 興洋行 金啓炫

牡丹江西長安街 大同食堂 李寶翠

牡丹江西長安街 春澤號 金相國

牡丹江西長安街 慶興商店 兪益智

牡丹江西長安街 日興旅館

濱綏線山市驛前 洪濟醫院 任洪植

牡丹江西長安街 大和食堂 孫基化

牡丹江西長安街 新平壤冷麵屋 石光玉

新安州

新安州驛前 機械工具設計請負 靑山鐵工所 電話三一番

新安州 無順專賣局出張所長 小學校長 普通學校長 郵便所長 金融組合理事 穀物檢査所長 面公所長 山口[illegible] 二宮[illegible] 大村[illegible] 中石[illegible] 大原[illegible] 井上[illegible] 殿原[illegible] 金[illegible] 三原義雄

京義線新安州驛前 綢緞布木和洋百貨食料品小賣卸 安興百貨店

新安州 穀物商組合

京義線新安州驛前 高級洋服調進 安興洋服店 主 朴達永

新安州 綢布、雜貨食料、紙類 合成商會 申榮武

新安州面顧客里 康好壽

穀物肥料石油農具商 丸二商會 電話一大番

新安州驛前 新興藥房 主 劉[illegible]

新安州 東一寫眞館

成川醫院 李[illegible]

新安州驛前 白昇[illegible]

新安局 申[illegible]

世界經濟의回顧와展望

國際情勢不安을反映 景氣는依然跛行

國際二大블락對立激化豫想으로 前途全然豫斷을不許

松原鮮銀總裁談

(寫眞은 松原鮮銀總裁)

支那事變의 勃發은 그步武行進以來 겨우 半歲에 不過하나 神速果敢한 我皇軍의 奮鬪力戰에 依하야 大槪 그所期의 戰果를 收하고 玆에 明朗한 支那의 將來를 擔當하는 政權은 由緒잇는 北支에 成立하야 이윽고 彼我善隣友邦의 緊密한 提携가 表顯되려하고잇다 그러나 南京政權은 그 實力을 過信하야 아직 長期抗戰의 愚를 放棄치안흐므로 此際 輕率한 樂觀을 警戒하고 聖戰究極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擧國邁進할 必要를 痛感한다

이리하야 今回의 支那事變은 我國으로서 曠古未曾有의 大事인 同時에 그것이 國際政治에도 强烈히 反映하야 伯林 羅馬 東京을 樞軸으로하고 三國防共協定의 成立을보게되어 드듸어 現狀打破派國의 戰線統一과 그强化가 期約되고 他面 英、米、佛의 現狀維持派國의 結束을 鞏固히하야 써 二大陣營의 對立을 激化하고잇는 새에 잇서 이데올로기ー를 武器로하는 蘇聯의 暗躍을 促하야 玆에 三者鼎立하야 倍나 國際政情을 不安케하고잇다 그뿐만아니라 西班牙의 一角에는 世界戰爭을 聯想케할것파가티 戰火의 余燼은 아직 收拾되지안코 또各國의 對戰準備의 强化에 依하야 이를 擴大할 憂慮가 多分히 包藏되어 世界平和體制의 確立은 容易히 期키 難한情勢에잇다

此間 各國의 一般景氣는 軍擴經濟를 中心으로 逐年 好轉하야 特히 昨年上半期의 各國貿易及生産狀況은 恐慌前의 水準을 突破하는 盛況을 呈하얏스나 「가진나라」의 生産過剩과 「갓지못한나라」의 供給不足에 因한 矛盾은 드듸어 爆發하야 政治上의 對立을 不得已하게한 反面、經濟上에 잇서서는 最近 各種生産品에 亘한 減産協定의 復活、貿易制限의 深化及經濟블럭의 强化를 齎來하야 景氣의 後退와 前途의 不安이 各國經濟界의 通有性으로 化하고잇다

米國

株式激落을筆頭 好景氣一朝挫折

反動恐慌防止에汲汲

世界經濟의 指標인 米國의 經濟界는 最近 激落이 顯著하야 過去兩三年來의 好景氣는 一朝에 挫折하고 而今에는 反動恐慌의 防止에 汲汲한 狀態이다 卽同國의 景氣를 先驅하는 株式은 昨秋에 入하야 激落을 繼續하야 그 樣相은 一九二九年의 恐慌當時에 彷彿한바가잇서 그때문에 景氣崩壞의 警戒心理가 瀰漫하고 延하야 그 實勢를 挫折케하얏다 그런데 그 原因은 製品低와 原料高로 收益의 低下及農産品의 過剩傾向을 暴示할수잇는바 政府는 그 對策으로 資本課稅의 輕減、物價抑制、産業金融의 助長及公共事業에 對한 干涉의 緩和策等을 採用하얏다 그러나 中樞事業인 重工業은 恢復을 示치안코 農産物輸出은 不振에 陷하고 貿易惡化의 傾向은 改善의 兆조차 업서서 따라 政府의 景氣振興政策은 過去와 가튼 實績을 示치안코 特히 그間 勞働問題再燃의 兆도잇다 이러하야 米國은 [illegible]에 依한 農業及工業品의 對外競爭力을 喪失하야 此等이 繼續되어 國內의 一般景氣의 惡化를 防止할수업는 狀態에잇다

英國

基調는健實

獨占繁榮期待薄이나

英國經濟界는 比較的健實 發展을 持續하야 特히 昨年初는 『붐』狀態를 呈하얏스나 米國景濟界惡化의「쇽크」를 바든以來 一抹의 暗影이 떠돌게되엇다 英國經濟의 好勢를 支持하는 最大要素는 軍擴經濟에잇서 軍工業은 未曾有의 生産活動을 示함에 反하야 紡績業其他의 平和産業은 曾前의 地位를 恢復할수업서 따라 今後의 景氣는 現狀維持에 끗치리라고 보인다

貿易은 前年에 比하야 輸出入共히 一割內外의 增加이고 但例의 入超는 幾分增加하얏스나 海運界의 好況에 依하야 貿易外收入의 增加가잇서 國際收支는 惡化를 보지안코 그때문에 金融緩慢과 低金利는 繼續하야 景氣의 基調는 저윽히 健實하얏다 그러나 株價及物價는 反落傾向에 入하얏슴에 反하야 勞賃은 向上하고 또最近에는 熟練工의不足을 痛感하고잇슴으로 米國同樣으로 코스트高[illegible]를示現하야 此等은 建築活動의 不振에 反映할파가티 購買力[illegible]

縮의 前兆로보이어 이미 好況氣로 絕頂을지나 若干의 産業部門에는 多少의 後退가 豫見되나 西班牙戰爭及支那事變의 影響으로 政治的으로는 倫敦、巴里樞軸의 强化를 圖하는同時에 再軍備計畫의 促進을 期할것이므로 軍擴景氣는 一層의 昂揚이잇슬것이로되 支那에잇서서의 損害와 勢力의 衰退는 延하야 海外全般의 萎縮도 意味하고 또그所謂 實利外交에 依하야서의 頹勢挽回는 此後 자못 至難타고보이므로 繁榮獨占의 期待는 希望이 적을것이다

佛國

法貨危機一旦解消 財界漸次安定

佛國은 政治上經濟上漫性的으로 不安을體驗하야왓스나 쇼당內閣이 成立하자 輿論을 基礎로 擧國一致의 實을示하야써 오레동안의 國內不安을 解消하려하고잇다 그리고 佛國의 政治經濟安定의 決定的要件은 그財政均衡과 金流出의 防止에잇섯는바 其後 增稅를 斷行하고 政府事業의 增收를 圖하는同時에 節約을 斷行하야 健全財政의編成에 成功하얏스므로 財界는一旦 安定을 示하야 佛法은 强調를 呈하는 狀況으로되엇다。그러나 過去四個年에 亘한 金本位의 確守로부터 轉하야 再昨秋及 昨年六月의 二回에 亘하야 法의 切下를 決行하얏슴은 銘記할것이다 金利는 昨年下半期에잇서 四回의 利下를보아 現在 三分으로 低下하야 證券界의 活況을 促進하는 同時에 銀行預金의 增加조차 示現하야 逃避資金의 歸還에 依한 國內經濟의 恢復은 顯著하되 生産活動은 比較的好轉치안허 勞働立法의 産業界에 與하는 影響이 크므로 物價는 比較的安定하얏스나 四十時間勞働에依한 生産不足은 入超를 增大하야 法減價에依한 貿易外收入의 增加가잇스되 國際收支의 惡化를 回避할수업서 따라 經濟界의 根本的再建은 前途困難을 豫想하고잇다 그리고 其第一方策은 勞働政策의 緩和에잇스나 人民戰線派勢力의 强固한바잇스므로 그改革은 容易치안흐되 地方選擧에잇서서의 政府大勝은 此等勞働問題의 解決을 促進시킬 氣運에잇다

滿洲國

前途洋洋

日滿連繫强化로

善隣滿洲國은 支那事變을 契機로서 我國과의不可分關係를 倍層緊密케하는同時에 新興國家의 威信을 發揚키에至하얏다 伊太利는 滿洲國承認의 擧에出하야 日本은 治外法權을 全面的으로撤廢하는等 國際地位는 躍進向上되고 對內的으로는 行政機構의 改革、產業五個年計畫의 着手、産業統制의强化等에依하야 建國第

日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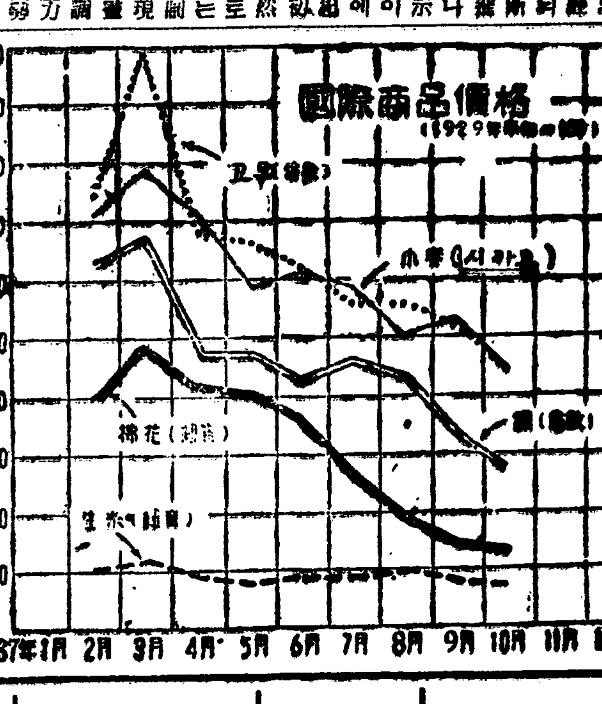
戰時體制確立으로 經濟編成의 質的轉換

產業別跛行性은認定되나 財界基調는健全

我國은 支那事變發生以來 戰時立法과 戰時行政이 採用되고 이미 戰時體制機構의 全面的確立에及하얏다 從하야 如斯한 機構下의 經濟推移는 스스로 平常과 相異한同時에 景氣基調도 自異하다 卽事變의 發展에伴하야 財政은 未曾有의 膨脹을 告하고 그收入의 大半을 公債에 求하고잇는테 一部增稅도 決行되엇다 그러고 膨大한 公債發行은 比較的順調로 進行하얏스나 市中應募는 少額에 止하고 此等은 一般金融動向과 關聯하야 將來의 課題로 化하얏다 財界의 時局認識은 頗히 徹底하고 보다 率先하야 戰時經濟의 遂行에 邁進하는 風潮가 顯著하며 從하야 過去에 難點으로보이來되엇스나 取引은 閑散을 告하고 取引改善도 顯著한것이잇다 證券界는 相當한 波瀾을거듭하야 時局의 影響을 敏感히反映하고 一時戰捷人氣가 瀰漫하야 大勢悲觀에 陷하엿스나 採算本位의 實勢가 動向을 支配하야 健全性을 恢復코잇다 爲替는 [illegible] 我經濟의 對外信用을 確保코잇다 軍事「인플레」에 不拘코 物價는 漸騰傾向에 終하엿스나 世界物價의 反落傾向에 比하면 注視할일이다 帝國의 貿易은 十一月末에잇서前年에比하야 輸出二割餘 輸入四割의 增加를 示하고 特히 入超는 未曾有의 額에 達하얏다。此等은 事變關係에 基因함이勿論이나 戰時에잇서서도 輸出이 振興된것은 我國經濟의 强靭性을 示하는것이다 如斯하야 我國은 戰時經濟體制의 完成을圖하면서 國民生活安定과 經濟發展이 期待되고잇다。

朝鮮＝朝鮮은 事變勃發以來 交通의 要衝으로서 輸送施設을 整備하고 作戰에 寄與하고 物資의 補給에 貢獻한바잇섯다 本來의地位와 使命에鑑하야 時局에 善處하얏다。他面 戰時經濟의遂行에 關하야서는 內地에 呼應하야 그統制의 完成을 企圖하는同時에 時局産業의 發展에邁進하얏다。卽 戰時 立法及 行政은 內地에 順應하기로 되고 統制機構의 確立과 運用의完全을 期하야 産業의 擴充 時局重工業의 發展計畫은 着着 實現는 特殊性이 確保되고、內地와 協調하야 健實한 發展을 約束하얏다。傳統方針인 電氣統制는 南鮮配電會社의 成立에 依하야 企業統制를 結實하고 發電은水力開發의 促進과 共히 新規計畫이 續出되어 工業發展을 支持可成하는 現況에잇다 日滿不可分關係의 緊密袞現인 鮮滿一如方針은 國境國道敷設、國境架橋、鴨綠江의 利用及 水力開發等 彼我接壤地帶의 特殊施設로서 實現에 移하고 此等施設은 東滿道에 對한 西鮮地方의 特殊關係의 成立을 齎來하얏스며 鮮滿人事의 交流及交歡이 履行되어 物心兩面共히 그一如精神의 推攜을 보는 事中이다 昨年의 經濟推移는 事

에잇서 前年對比一割除의 增加인 同時에 十一月까지에 十二億八千萬圓의 新記錄을 示하얏슴뿐아니라 對外輸出은 前年에 比하야 五割除의 激增을 告하야 對外經濟發展의 顯著한것을 보이엇다 金融은 內地資金의反映하야 一時多少硬化氣配이엇스나 大勢는 順調를 繼續하얏다 比較的特殊事情으로 擴張되고 朝鮮內金融에 與한 好影響은 至大한것이잇다 如斯하야 朝鮮은 帝國의 兵站基地로서 帝國戰時體制에잇서 重要任務를分擔하고 同時에 産業經濟의 發展을 促進하면서 더욱 그將來를待望하게되엇다。



獨逸

統制强化로 惡條件을克服

獨逸은 國家社會主義國家로서 完成한 段階에到達하야 獨逸國民의 經濟生活은 世界에잇서 最勤勉한獨逸國民의 創造力과 勞動에依하야 다시 豊富한리즘으로 充滿되고잇는 狀態에잇다 産業經濟의全部門에 對한 統制는 倍加强化되어 그 結果모든惡條件을 克服하고 軍備擴充 自給自足經濟가 着着 奏效하는 同時에 失業者는 著減하야 正統派經濟觀念으로 말하면 一切는 魔術과가티 보인다 이리하야 政治上의地位는 日、伊와의 提携에 依하야 더욱 向上하야 而今에는 現狀打破派國의 最右翼에잇서 國際政治의 이니시에티브를 把握하려하고잇다

支那

支那는 國民政府에 依하야 十年餘에亘하야 苦心經營한 國家再建도 그릇된 排日抗日의 結果 今次의 事變이 發生하얏슴으로 一切는 水泡에歸하얏슬뿐아니라 南京政權은 一地方政權化키에至하얏다。今後의 政情은 豫斷키難하나 北支에 臨時政府가 成立되엇슴으로 이에 依한 統一과 復興은 時日問題로보이며 特히 日本의 積極的協助를 豫想할수잇슴으로 新政府要人의 熱意와 相俟하야 新支那의 建設은 速急함을 豫見할수잇고 其間農業의 振興、資源의 開發、思想的再訓練은 新政府當局의 課題로서 重視되는것이다。

◇結語

要컨대大戰後의 世界政治의指導原理인『베르사이유』體制의維持는 新興國의 國家生活及信念에依하야 變革이 要求되고 國際三大블럭의 鼎立을 齎來하야 相互對立이 激化되며 此等은 世界經濟와 密接한因果關係가되어 더욱事態의 解決을 複雜에 導하야 그勢의 趨하는바 前途全然豫斷키難한 狀態에잇다 이것도早晩世界의新秩序의 樹立에依하야 그回復을 期할수잇는것으로 過程에 對處하야 萬全한對策을 講究할 必要가잇슴은 勿論 選次의 事變에 對하야서는 戰捷에 陶醉지말고 時局益重大함을 認識하야 國家總動員의 姿勢를 更히 推擴할것이다 如斯하야 戰時體制의 日滿一體를 推進하는方針下에 産業經濟上 鮮滿一如的擴張을擴充하야 充分히 그效果를 收하기에 努力하는同時에 新支那의 再建에 擧國邁進하여야할 것이다。

恐慌再襲悲觀不要

金翰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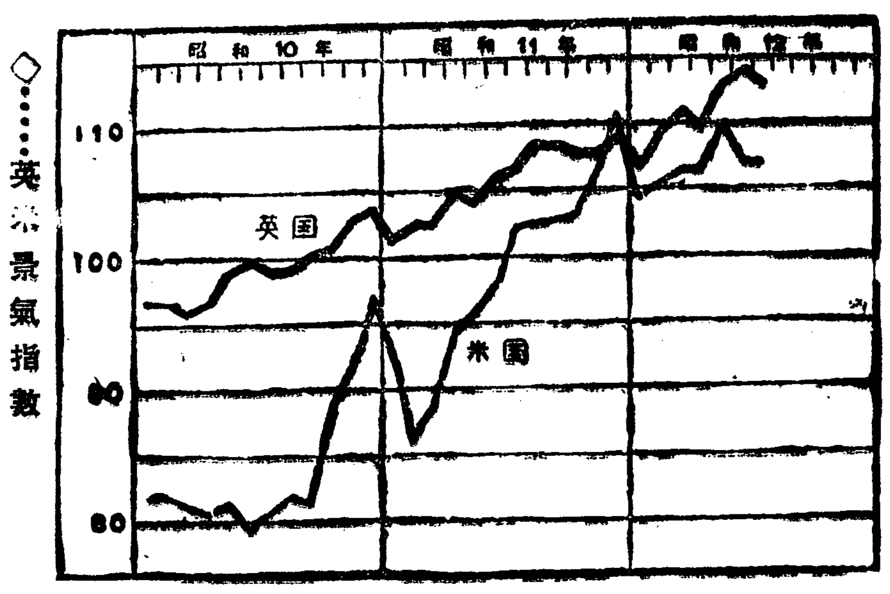
지난 八、九月以後의 米國財界의 急反動을 契機로 世界景氣의 反動來、世界再恐慌襲來의 警報은 世界各方面에서 亂打되어 昨年初頭에 明朗一色이든 經濟都로되엇든 世界財界에는 또다시 까닭모를 不安과 暗雲이 떠돌게되엇다。비록 貿易의不振、國際間의 危機、英米의 勞動不安等이 國際間에 업섯든것은 아니나 漸進는 減少하야 景氣는 擴張되고 價格은 昂騰하고 [illegible]狀態를 呈하며 銅、고무는 大恐慌以前 水準을 突破하고 英米를 中心한 諸國은 數年前까지 豫想도하지 못하얏든 『붐』을 示現하야 大戰以後 最高의 景氣라고까지 謳歌되엇든 景氣가 農產物을 中心한 國際商品의 急激한 崩落으로 物價는 降落하고 各事業은 後退하며 株式은 慘落을 告하는等의 처잠새업는 逆轉을 보이게됨에 世界恐慌의 記憶이 아직도 새로운 世界人의 神經은 刺戟되어 [illegible]

下는 必然的으로 올것이 事實이다。그러나 景氣現象이 昂揚될때에는 그昂揚의 또렷한原因이 存在할것이며 降下時는崩壞의原因이 存在할것이오 또는 昂揚의程度와 그時間的持續性도또한 考慮에 너치안흐면 안될것이니 그景氣現象이 相當한期間持續되고 그昂揚의度도 相當한 高度를 示하고 그昂揚을保持한 支柱가 崩壞되엇다면 그景氣는 老衰한景氣로 當然한 降下가 豫想될것이나 이와反對로 景氣가 相當히 高度를示하얏드라도 時期的으로 짧고 또 景氣를昂進식힐 有力한原因이 出現하야 그支柱를 喪失케할일이업다면 假使 反動이 보이드라도 이는一時的現象에 끗칠것으로 看做하지 안흘수 업슬것이다。이러한 觀點으로본다면 今回의 世界景氣回復은 一九三二年以來의일로 五個年以上의持續이며 또한 그昂揚의 程度로보드라도 一九三六年末의世界工業生産指數는 一九二九年의 最繁榮期 보다도 一〇·九 日本은 五一·六 英國은 二六·〇 [illegible]의 上位에 잇스며

米國도 또한 資本主義가 始作된以來의 急速度로 上昇한다는 狀態로 相當한 絕頂에 達하엿든것도 事實이며 米英의 景氣가 昨春의 急騰以來의 昂騰으로부터 夏秋에 亘한 減退한 徵候를 보인것等으로 보면 景氣에는 一段의 天井을 지은것이나 아닌가하는 疑問을 가지게하는 點이 不無하나 맥그레거 教授의 八年週期說을 그대로 信賴하야 一九二〇年봄 一九二九年봄이 잇고 一九三七年봄이 된것이나 當然 恐慌의 順序라고 보려하나 그 週期는 반드시 一定不變의 期間이 잇는것도아니며 더욱이 過去에 잇서서는 二三年으로 回復된적이 往往히 잇는데 不拘코 今回의 境遇에는 過去에 發生한 諸恐慌의 介在로 回復途程이 複雜化하야 그期間이 相當히 [illegible] 世界經濟回復도 主로 英米를 中心한 部分的 好況이오 世界的 規模로된 普遍的인 高度景氣가 아닌同時에 景氣回復이 매우 뒤떠러저 回復途程에 들어선 諸國도 만어서 一般

的으로 反動期에 入하엿다고 보기는 難한것은 國際決濟銀行報告가 『世界經濟는 回復의 基礎는 物價와 生産原價와의 均衡回復에 잇섯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一部는 生産原價引下로 一部는 通貨減價로 實現되엇다고하나 이는 如何튼 이것의 根本的支柱는 亦是 初期에잇서서는 低金利政策이오다음으로는 減産政策 不作의連續과 軍擴競爭을 契機로 昂騰한 [illegible] 小麥、棉花等을 中心한 農産物의 未曾有의 大豊作으로 農産物價가 一時的暴落을 보엿다하드라도 이는 人爲的調整도 可能할것이리라 무엇보담 今回의 景氣回復의 原動力은 軍擴[illegible]

局的인 인플레政策을 中心으로한 投機師的思惑上에 섯는것인것만큼 思惑을 中心으로한 大規模的生産擴張은 當然供給過剩狀態를 現出할것이니 供給過剩이야말로 資本主義經濟恐慌의 根本的原因이라고해서 의 生産恐慌의 第一步 모든 赤信號를 내어두르는이도잇서 假然樂觀도 不許하나 國際經濟現象에 戰爭의存在가 그러는重大變化를생각할때에 이곳저곳에서 危機가傳하고 事實上 西班牙 極東에서와가티 半戰爭狀態가繼續되고잇는 現今의 國際的不安과 이에伴하는 軍擴이 持續되는限 비록 跛行性은 그度를加할지 모르나 이景氣는『適當上昇의 自然的反動』으로 一時는 降下되드라도 世界政治情勢의 急變이업는限 一高一低裡에 相當한期間繼續될것으로 보아야할것이므로 恐慌再襲의 性急한 悲觀은 [illegible] 必要는 업을줄 確信한다。



康翎

富民面職員一同

黃海道康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甕津郡富民面康翎市一七六番地 土地改良業所 崔子洪

康翎 益成商會

康翎 公醫 黃在仲

康翎 有志 李宗彦

麒麟燒酎 康翎釀造場 主 曺圭明

米穀精米 安康商會 魯東熙

康翎 田宮博

康翎 司法書士 鄭德淳

康翎 穀物貿易 出利葉豐幸商店

康翎 康翎金物商店 主 朴子亨

康翎自動車部 元官燮

康翎 洋藥 康翎藥局 裵容善

黃海道康翎市 各種自轉車農具販賣 康翎自轉車店 主 金永煥

康翎 布木商 金千圭

黃海道康翎市 綢緞布木 和洋百貨 石油食料 聯三商會 主 李德老

甕津郡富民面龍浦里 富文書堂

康翎市宗路 技術本位 研藝寫眞舘 金相奎

康翎 布木商 洪致敎商店

釜浦港 指定仲介人 漁業組合 海產物委託販賣客主 朴盛三

龍淵面 協議員 鄭準儀

龍淵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釜浦港 信用本位 海產客主 趙鍾胤

甕津郡釜浦港 釜浦捕貝組合

釜浦港 海產物委託販賣 同盛商會 主 崔時憲

釜浦港 公醫 李可三

釜浦港 海產物委託販賣 釜浦商會 主 [illegible]永[illegible]

鴻山

扶餘郡鴻山面上川里 寶昌金山 鑛主 韓啓昌

扶餘郡鴻山 穀物共同購買組合

鴻山市 株式會社 有恒社

鴻山市 忠南興產株式會社

扶餘郡南面馬井里 廉文燮

扶餘郡九龍面 朴成鎬

扶餘郡外山 張基琇

鴻山市 鴻山酒造場

甕津郡龍淵面陵村 高藤只市

釜浦港 海產物委託販賣 文應三

釜浦港 綢緞布木 海產物 李載寅

甕津郡鳳鳴面成村 有志 成天永

鳳鳴面平陽里成村 有志 成鳳永

鳳鳴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甕津郡鳳鳴面南倉 綢緞布木 肥料百貨 和洋雜貨 穀物貿易 吳卅萬商會

安樂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興[illegible]金融組合 職員一同

鳳鳴面事務所 職員一同

康翎市 綢緞布木 肥料百貨 運送營業 (二)沈相益商會

朝鮮日報 康翎支局員一同

鴻山市 大坪醫院 醫師 大坪久人

論峙市 九龍精米所 主 朴上根

忠南鴻山市 和信連鎖店

忠南鴻山 日本生命代理店 趙浚相

鴻山邑 池喜烈

鴻山市 鴻山印刷所

鴻山市 永信商會

鴻山市 義信商店

鴻山市 相信自轉車店

鴻山市 平和商店

扶餘郡鴻山面 面長 金顯重

扶餘郡 玉山面職員一同

扶餘郡 南面職員一同

玉山面 尹永大

德川

平南德川邑內 德川醫院 公醫 閔庚贊

平南德川邑內 互友會

德川邑內 綢緞布木及雜貨 第一商會

德宜兄弟商會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德川分店

中央旅館 李台允

德川邑內 金山洋服店

德川邑內 公信洋服店

平安南道德川 德興醫院

平南德川邑內 丸德自動車商會

德川邑內 趙義吉

鴻山市 扶餘產業組合

鴻山金融組合 理事 熊倉新太郎

鴻山市 李秉房

鴻山市 廣春堂醫院

鴻山市 李祖明

鴻山市 李翰圭

鴻山市 朴萬基

日本生命 盧承鶴

扶餘郡 內山面職員一同

平南德川邑 公信印刷所

平南德川邑內 文興洋服店

平安南道德川邑內 綢緞布木 諸雜貨 順昌商會

平南德川邑內 安德寫眞舘

德川邑 最勝亭

德川邑內 徐廷集

德川邑內 東興商會

德川邑內 崔龍德商店

德川邑內 金仁洙

平南德川邑內 永新堂

平南德川邑內 安[illegible]仁

支那目標更躍期待
內로資源開發·外로貿易增進
今一年도光輝잇게하라
穗積殖産局長談

穗積殖産局長

聖戰이 光輝한 昭和第十三年의 新春을 迎하야 삼가 聖壽의 萬歲를 奉祝하는同時에 燦然한 國運의 隆昌을奉祝하는 同時에不堪한다 只今 我忠勇한 皇軍將士는 或은 北支에 或은中南支에 [illegible] 武勳을 빗내고잇슴은 感激感淚에 不堪하는바로 年頭에 際하야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바이다 支那事變은 其出來한바 머러 其根源을 芟除함에는 아직 相當한 時日을 要할 은 北支에 中南支에 我皇軍의 驚異的戰果에도 不拘하고 昨年末 大本營의 發表를 보엿슴에 想到하면 容易히 이를 推知할수잇슬것이다 이에잇서 銃後에잇는 우리는 其地位、職業의 如何를 不問하고 第一線에 勵精하는 皇軍將士의 마음으로써 나의마음으로하고 協心戮力、和協一致 其職責을 다하는同時에 他面 皇軍將士로하야금 後顧의 憂慮가업시 活躍케하야써 最後의 勝利를 確保치안흐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政府는 [illegible] 非常時財政經濟政策을 樹立하야 資金事業及貿易에 眞實로 不得已한 統制를 實施하얏다 即 事變의 目的遂行을爲하야 直接軍의 需要에 充當할 物資와 資金과는 될수록 潤澤히 이를 供給함은 絕對로 必要하야 이를 爲하야서는 一時國民이 어느程度의 犧牲도 참아주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國民生活을 破綻에 陷케하고 國防의 背後인 産業을 破壞함은 間接으로 軍의 戰鬪力을 減殺하는것으로 될 [illegible] 足과 國民 [illegible] 經濟의 元 [illegible] 의 運行의 [illegible] 確保 此 二者를 [illegible] 目標로 [illegible] 臨時資金調整法, 輸出入品等에 關한 臨時措置에 關한 法律 其他各種의 所謂 非常時經濟立法이 公布된것이다 我朝鮮에 잇서서도 內鮮一體 此意의 戰時體制에 順應하고저 中央政府의 諸政策을 遵하야 此等諸法律의 鮮內施行을 보앗는바 그運用에 際하야서는 朝鮮의 特殊事情을 慎重히 考慮하야 實施하고 잇는터이다 생각컨대 我朝鮮은 地理的으로 滿洲、蘇聯에 相接觸하고 一葦帶水로 北支에 臨하야 國防上、經濟上極히 重要한 곳에잇스므로 今回의 支那事變에際하야서는 北支派遣軍團 將兵의 輸送과 此等軍團의 兵站基地로서軍用物資의 應急供給을 할必要에 切迫되어 軍과 連絡을 取하야 官民一致 그遂行에 萬全을 期하고잇는바 多幸히 今日에 至하기까지 極히 圓滑히 그遂行을 보고잇슴은 同慶하는바이다 그런데 새삼스러히 말할것도업시 近代의 戰爭에 잇서서는 非常히 多樣多種의 物資를必要로하므로 此等 物資의 供給의 能否가 戰爭의 勝敗를 左右하는우에 重大한 關係를 갓고잇는터인데 多幸히 半島朝鮮은 地上地下에 無限한 資源이잇서 此等資源은 當局의 適切한 指導獎勵와 民間各位의 多年의 指導經營等의 結果 而今은 灼然히 開發利用되고 잇슴은 時局에 際하야 깃분일이라고 생각한다

고 此觀點으로서보면 昨一年間의 貿易總額은 十五億圓을 突破하리라고 推測되어 未曾有의 數字를 示하리라이다

그리고 朝鮮貿易의 特異性으로 從來 主로 對內地貿易에 依存하고 또 連年의 輸入超過와 最近의 輸入超過의 累增的傾向을 [illegible]할수잇는데 이는 朝鮮經濟의 脆弱性에 起因함것이아니고 主로 機械類等의 [illegible]材料 豆類、石炭、綿絲等의 原料品의 稀移入激增에 基하는 過渡的現象을示함에不外한것으로 이를他面綿絲綿織物、人造絹織物、魚油、硬化油、[illegible] 加工品의 輸出과 [illegible] 如何히朝鮮經濟의 生産力擴充과 農工併進時代의 實相이 貿易에反映하고 이는 이욱고 將來의 貿易收支의 改善及飛躍을 豫想할수잇는 든든한感을 준다

또 半島의 國際貿易中 對滿貿易은 恒常對外貿易의 七割內外를 占하야 昨年의 貿易額과 如함은 一月부터 十一月의 累計에잇서 一億四千八百萬圓을 算하야 이미 前年의 一億一千九百萬圓을 突破하야 이를 滿洲國成立當時에 比하면 實로 倍額으로 激增하얏는바 更一層振興을 圖키爲하야 昨年四月鮮滿産業貿易懇談會를 開催한터이다

야 前年에比하야 도리혀 輸出 이增加하야 今後 益益增進의 [illegible] 望에잇고 또 中南支方面에잇서서도 皇軍의 進展에依하야 반드시 갓가운將來에잇서서는 貿易의伸展을 보리라고 豫想되며 其他南洋方面의 [illegible] 大阪商船의 [illegible]航路가 昨年四月부터 釜山에 定期寄港하게되어 南[illegible]

非常時를當하야
地下資源大氣焰

다음에 鑛業界를보건대 近年來 躍進的發達의傾向을 持續하고 昨年中 새로事業에 着手한 鑛山數는 一千以上을 算한 狀態요 特히 最近의 [illegible]으로 堅實有望한 企業家의 開發에依한 鑛業施設의 機械化와 操業의 合理化와는 資本의 融合에依하야 顯著한進捗을 보이여 半島의 山野河沼는 依然繁昌을 呈하고있다 따라 客年中의 總鑛産額은 一億을突破하야 數千萬圓에達하고 此中 半島鑛業의王座를 占하는金鑛業의 産額은九千萬圓에 達할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半島의 金鑛業에對하야서는 國際收支의 調整을 圖하 [illegible] 企劃하야 着着計畫의 進捗을보고잇다 또本計畫과 相前後하야 朝鮮産金令이 公布되여 今年부터 本格的으로 運用되게 되엿슴으로 金鑛業의 前途는 刮目할만한바가잇슬것이다

近年 國內工業 特히 時局의 影響을 受하야 重工業의 勃興에伴한 鐵鋼의 國內需要는 急激히 增大하야 客年中 드듸여 鐵鋼[illegible] 絕叫되게되매 咸鏡北道茂山鐵山의 開發에 對하야 重大關心을 갓게되엿다 따라本府에서는 其鑛業權者인 三菱鑛業會社로하야곰 其開發計畫을促進시키는 同時에 日本製鐵會社로하야곰 淸津에 製鐵所를 建[illegible]

非常時에對處할 朝鮮産業의躍進相

滿洲國建設契機
工業의環境好轉

이제 먼저工業界를보건대 朝鮮의工業은 永年에亘하야 極히不振狀態에잇서서 其生産額은 僅少하야 一般의需要를 充當함은 不足하야 日常必需品에잇서서 조차 아직其大部分은 輸移入을仰하는狀態에잇는바 滿洲國創建을機로 各種資源의開發、動力及燃料問題의解決、海外市場의開拓 朝鮮의企業的素地에對한 內地資本家의 認識의徹底等 內外共히 자못 環境이好轉하야 玆에製鐵、金屬、人造肥料、硬化油、石炭液化等의 新興工業을 비롯하야 紡績、세멘트、石油、麥酒、製粉製紙等 國內需要品의 製造工業과 琺瑯鐵器、電球、硬質陶器、染料、水産製品等 海外輸出品의 製造工業이 顯著히勃興하얏다

即 昭和十一年의 工産額과如함은 實로 七億三千餘萬圓에 達하야 이를昭和十年에比하면 二割、昭和六年에比하면 約三倍의 增加를 招來하얏다 그리고 그 增加의 內容을 仔細히 檢討하면 昭和十一年의 工産額은 昭和十年에 比하야 化學工業에잇서 三二%、金屬工業과 窯業에잇서二五%、紡績과 木製品工業에잇서 二二%食料品工業에잇서一八%、機械器具工業에잇서 一七%의 모든增加를 招來하고 此 [illegible] 昨年度에잇서서 [illegible]할수잇다

當局은 時局에鑑하야 更一層 振興의 徹底를 期키爲하야 昨年時에 電氣及機械에關한 優良熟練工의 養成、燃料調査委員會、産業에關한試驗調査機關의 連絡會議等을 開催하는外 中小工業振興을爲하야 工業組合令의發布 發明思想의 普及振興에 資하기爲하야 發明獎勵機關의 助成等도 갓가운將來에 實現을보게될터인데 向後는 朝鮮의 資源과 其他의企業條件에鑑하야 石炭低溫乾餾와 液化工業、燃料酒精工業 製鐵業、輕金屬工業、造船、自動車、航空機等의 重工業等의 主로서 國防軍需에關한 國策的諸工業이 一層 隆盛하야지기를切望하는바이다

企業의勃興따라
貿易額躍進顯著

다음에 貿易界를보건대 此亦 産業의 勃興과 相俟하야 如實히 貿易에 反映하야 朝鮮의 貿易額은 顯著한 躍進을 招來하얏다 即 昨年의 貿易額은 一月부터 十一月까지의 累計에잇서 十三億八千萬圓을 算하야 前年의 十三億五千五百萬圓을 이미 超過하 [illegible]

各農作大豊을示現
農家大衆經濟緩和에効果甚大
幾多施設一層改善必要
湯村農林局長談

歲華가 바뀌어 瑞氣가 天地에 漲溢한 戊寅의 新春을 迎하야 삼가 皇室의 御繁榮을 奉祝하고 益益國運의 隆昌을 奉祈하는同時에 半島産業의 躍進的進展에伴하야 民富向上의 一路를 것고잇슴은 二千三百萬同胞와함께 慶賀로 歡喜에 不堪하는바이다 昨夏 盧溝橋事件에 端을發하야 드듸어 支那事變으로 化하자 國家重大의 時機에 逢着하야 上下一體가되여잘事態의 [illegible] 持久 長期 [illegible] 生을 [illegible] 農家 [illegible] 하야 [illegible] 農業의 [illegible] 源의 開發에 貢獻할것이다 이제 玆에 [illegible] 昭和十二年은 稀有의 適順한天候의 惠澤을 바다 各作物共히 良好한收穫을어더 就中 麥類는千四百萬石을突破하고 棉花는二億四千萬斤에達하야 兩者共히 變勵以來의 最高記錄을示하얏다 如斯한豊作을 본 結果 農家大衆의 經濟를 緩和하고 食糧의 充實을 招來하얏슴은 甚大할것이오 或은 이로 數年來의 農村振興運動에依하야 漸次緊張한農村의風潮에 弛緩을 生치안흘가 은근히 憂慮하얏스나 때마츰 支那事變의 勃發에 依하야全國民翕然 銃後의 赤心을披瀝하야 特히軍需馬糧의 供出에當하야서는 收穫後 이미 相當한期間을經過하야 極이 困難한狀態에잇섯슴에不拘하고 잘 豫定數量을 供出할수잇섯슴은 生業報國의 一端이라할것으로 實로欣快히 여기는바이다 (寫眞은 湯村農林局長)

에基하야 生産者의 [illegible] 軍補助로써 價格維持의 [illegible] 備케하얏다 그리고 朝鮮의 田作物의 今後 [illegible]

田作

棉花의 增産獎勵는 昭和八年度의 積極的計畫의 實施以來 해를거듭하기 五年 此間 [illegible] 을 [illegible]하야 今年度는 前述한 記錄的收穫을 擧하얏는바 共同販賣高도 一億二、三千萬斤에 達할 豫想이여 이를 增産計畫實施以前의 共同販賣高 四千萬斤內外에 比較할때는 僅僅數個年間에 거이 三倍에갓가운增加를示하야 慶賀할만한바이다 棉花는 말할것도업시 [illegible] 의 均衡을 圖함에잇서 或은 國際收支의 方面에잇서 國策的으로 重要作物인同時에 農家經濟에 對하야서도 換金作物로 極히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 其價格은 恒常海外事情에 依하야 騰落하야 자칫하면 農家의 收益을 不安케할 憂慮가잇스므로 昨年부터 道農會로하야금 棉花栽培損失補償에 關한施設을 施시키어 農家相互共濟의 [illegible]

畜産

畜産은 古來의慣習을 尊重하야 主로 畜牛、豚、鷄等을 中心으로 施設以來 [illegible] [illegible]

漁獲製品이모다
長足的發展示現

水産業界를 보건대 東海岸의 漁業의 大宗인 [illegible]漁業은 未曾有의 豊漁를 示하고 其他의 魚種도 모두 大體에잇서 前年에 比하야 魚獲高가 增加하얏다 이에伴하야 製造品亦是 顯著히 增加를 보아 아직 確實한 數字를 엇지못하얏스나 昭和十一年의 水産總額 一億六千四百萬圓을 훨신 突破하얏슬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勿論 天惠에 負한바 極히 만타고는 하나 一面에아니 業者의 不斷한 努力과 官의 施設이 相俟한 結果라하지안흘수업다 就中 咸鏡北道漁業組合聯合會、咸鏡南道漁業組合聯合會及朝鮮東海岸漁業水産組合의 劃期的試圖인 飛行機에 依한 魚群探見은 陸上과 臨時設置된 無線電信의 活動과 相俟하야 漁船과의 連絡에 漁況의 通報에 所期의 效果를 擧할수잇섯슴은 欣快不堪하는바이다

또 遠洋出漁로 漸次 第一步를 내지는 蘇聯沿海州의 漁業은 時局이 時局인 이때 蘇聯極東防備의 積極化에 伴하야 [illegible]

肥料

[illegible]

農振運動

昭和七年 窮迫한 半島農山漁村의 民衆更生의 根本 且 恒久的施設로 [illegible]

産米

半島의 昭和十二年産米는 未曾有의 大豊作 (第二回豫想收穫高 二千六百三十四萬餘石)을 報하 [illegible]

(續)

運 餉

平北龍川郡多獅島港 張國敏

平北龍川郡運餉市 信山泉酒造場

龍川郡府羅面北兼洞 張斗星

金聖謙

002368

朝鮮平北府羅面內 白米製造 穀類肥料商 今府羅穀物商組合 發信電略（フ）ヌハ ヤマフ 受信電略ヘイホクフラヤマフ

龍川郡府羅面東端洞 金恒植

龍川郡府羅面德川洞 金聖模

龍川郡府羅面運餉市 林炳茂

龍川郡府羅面元城洞 元城消費組合

平北鐵山郡雲串浦 小溪島藥水經營者 醫師 高光國

龍川郡府羅面元城洞 多獅島旅館 張昌奎

龍川郡府羅面元城洞 鄭道椿

龍川郡府羅 朝鮮日報社運餉支局 支局長 張基敦 總務兼記者 文得雲

圖們

圖佳第三岔口驛前 和信昌採木所 電話一九番

龍川郡府羅面中端洞 司法書士 張基敦

龍川郡府羅面元城洞 張信奎

龍川郡府羅面元城洞 多獅島同友物產社 張元燮

綿絲布 陶磁器 崔在益商店

多獅島土地周旋業 金誠敬

龍川郡府羅面中端洞 文善俊

平北多獅島 精米業 海東商會 金載儉

板谷生命保險株式會社 滿洲支店 河東勳

圖們市 本報寫眞班 總督府指定 日光寫眞館 電話一三四番

圖們市春風街 中央病院 金永燦

圖們市仲秋街 高昌成

間島圖們市 大東貿易商會 李浩然 電話四四五番

圖們市仲秋街 菊地支店 黃基燮 電話六三番

圖佳線三岔口 土曜會 金池鎭 鄭滄洙 林元基 申善君 金學宅 崔宗拜 張仙鳳

圖們市 大本山日光寺 主 金觀月

圖們市中區 食道園 白完基

圖們銀河街 壽星堂圖們支店

圖們市北區 金尙鎭

滿洲國圖們春風街 大東號 電話三三〇番

圖們 カフエー ミス·朝鮮 鄭玉敬

圖們共立病院 電話二〇一番 電話七四八番

圖們仲秋街 延吉營林署指定物資配給所 興林洋行

圖們 朝鮮料理 又春館 電話二三二番

圖們 東一紙物商會

圖們市中區 京城自轉車商會 電話一二〇番

圖們春風街 株式會社 東興銀行

圖們 信聖學校

圖們市中區 朝鮮料理 明月樓 電話二五二番

圖們市西區 朝鮮料理 金泉館 電話四三二番

穀物貿易 天一號 主 全應七

圖們銀河街 間島無盡株式會社 圖們支店

圖們市 奉信洋行 金八奉 電話七番

圖們市 李東鎬

圖們市銀河街 毛皮ナメシ加工一式 日滿毛皮店

圖們北區 印刷名刺 普興堂

圖們北區 時計、眼鏡、寫眞 明時堂

圖們市北區 金昌起

圖們市北區一線一戶 壽生堂藥房 主 金寶民

圖們市 金昌國

東興號

圖們 南部政局長 金益祚

圖們 オリエント寫眞館 電話五六〇番

圖們 許曾鳳

圖們市北區 漢城醫院 許旴京

南陽驛前 藥種 貿易 普濟堂藥房

南陽中央通 洋服 雜貨 卸問屋 阪神屋

威北南陽中央通 既製服 問屋 神田屋

南陽中央通 高山洋行

南陽市柳町通 兪漢泳

圖們市北區 東一室 崔錫利

南陽 朱源淳

商務會長 王德元

圖們市北區 大昌洋靴店

間島省圖們仲秋街 朝日旅館

無名氏

圖們市中區 大滿食堂

圖們 林承烈

圖們市灰布區 明川商店 金承學

圖們唯一釀酒所 許國

造岳

釀業 金信孝

李正煥

兄弟商店

龜屋商店

全炳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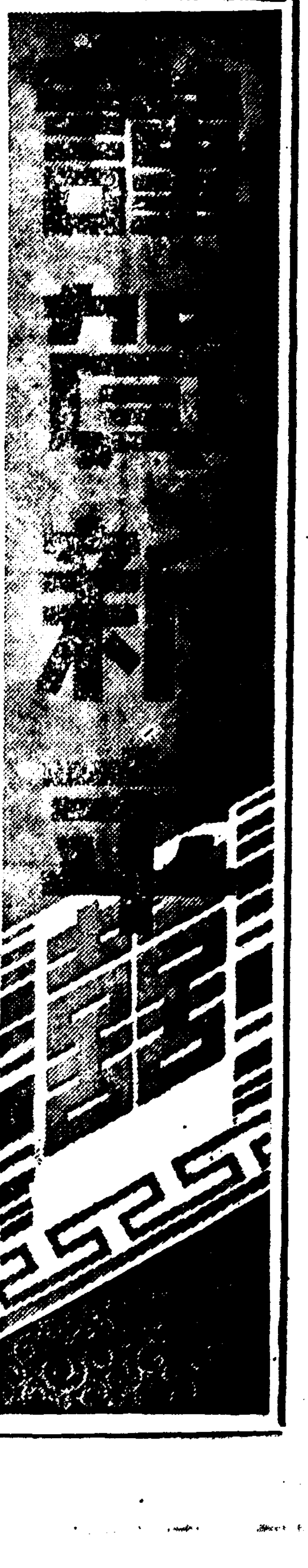
圖協議員 張國賢

龜城館

金之琥

金龍俊

造岳支局 朴宗春



謹賀新年

仁川

仁川輸移出白米製造業組合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一番地 株式會社朝鮮取引所仁川支店

仁川府西京町 東亞百貨店 電話一一一七番

仁川府桃山町 朝日釀造株式會社

仁川府本町二丁目十八番地 仁川朝鮮酒販賣株式會社

仁川府京町 朝鮮料理 日月館 電話六二三番

仁川府港町一 森信運輸株式會社 電話長一一六三番

仁川府港町 富川通運組合 電六三一番

富川郡文鶴面 富川釀造株式會社 社長 李云先 專務 李晋甲

京城電氣株式會社 仁川支店 電話一三三四番 一〇六七番

鶏卵栗菓子、草粉、刻苦草、素麵製造元 朝鮮仁川府京町 海陸物産 青果練物 貿易委託 海豐商會 製粉工場 仁川府龍岡町壹

仁川銀行團 朝鮮銀行仁川支店 朝鮮殖産銀行仁川支店 朝鮮商業銀行仁川支店 朝鮮貯蓄銀行仁川支店

고추가루、실고추製造元 天一製粉工場 電五二三番

唐麵製造 天一製繩工場 電話五二三番

富川郡蘇萊面梅花里 李圭銑

仁川府 永井照雄

富川郡蘇萊面梅花里 咸顧植

株式會社朝鮮取引所 米豆取引員組合

仁川府龍里町一五三 永福質屋 主 金性煥

仁川府萬石町一五 安昌精米所 電一七二番

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仲買人 仁川府細生町(仁川驛前) 海陸物産貿易及委託販賣業 善永商會 鐵道貨物取扱業 ㊦善永運送店

仁川府花房町二丁目一一(仁川驛前) 海陸物産委託販賣並ニ運送貨物取扱業 三成運送部 萬亨大 仁川商會

仁川府港町穀物協會內 穀物仲立業 勤業所 電話長三五三番 二二七番 電略(キン)又八(三) 本所仁川府栗木町五五

仁川府龍里町 洪在景

仁川府京町 金商會紙業部 金求龍 電話長七九一番

仁川府新町四六 ㊆白米 電話三三一番

仁川府 仁興精米所 李興善 電話四八二番

仁川府柳町 鷄林釀造場 宋斗厚 電話八八五番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三 穀物仲立業 三進商會 電話長五〇九番 三九番 電略(サ)又八(〇三)受信

仁川府花水町 金泰勳 電話六二一 九四番

仁川府港町一丁目 忠南汽船株式會社 瑞仁商會 尹在獻 電話八三四番

仁川府金谷町四ノ四 金銀細工 仁信商會

仁川府栗木町 仁川婦人病院

仁川府京町二三七 友松堂家具店 電話三九二番

仁川府京町二三九 龍洞家具商會

仁川木材商組合

仁川府京町八十番地 綿布 木商 豐富商會 吳正根 電話二三〇九番

仁川府京町 池宗薰

仁川府龍里町三三七 中央旅館 電話七八八番

仁川府教育會

仁川府西京町二〇九 綿布 木綿商 錦成商會 電話九八九番

仁川稅關沿岸貿易地帶使用組合

仁川府京町二〇七 설렁탕 냉면 各種飮食 新京館 電話四五二番

仁川府金谷町五一 李順日精米所 電話九四五番

道立仁川醫院

仁川府龍岡町 高級洋服調進 仁成洋服店 電取二九〇番

仁川府本町一丁目 日本水産特約販賣 官鹽、原鹽 海陸物産卸商 松永商店 電話一〇二七番

仁川府龍岡町四〇 廣仁商會 主 金長福 電話一二三五番

仁川府花町 肥料商 安河內商店 電話一一五一番

富川郡永宗面雲北里 具昌祐

富川郡永宗面雲西里 金鍾顯

富川郡永宗面雲西里 金達顯

富川郡蘇萊面 茂芝講習所 河奎泓

富川郡蘇萊公普校 學務委員 咸洙春

富川郡蘇萊面果林里 金炳昇

富川郡蘇萊面 崔官用

富川郡蘇萊面 金月龍

富川郡蘇萊面大也里 金永贊

仁川府港町一丁目二 雜貨商 金相浩 長電話五三〇番

仁川府花房町三丁目 京畿道漁業組合仲買人 ㊉金燒源商店 長電八七六番

金成國 (仁川)

仁川府京町七七 綿布 布木 迎還商店 電話八九四番

仁川府海岸町 米穀雜穀商 森益商會 電話三五二番

仁川府大和町 おたふく綿 仁川工場

仁川府敷島町 花町貸座敷組合

仁川府大和町四三番地ノ一 朝鮮麴子株式會社仁川支店 電話仁川七五番

仁川府柳町 朱命基精米所

仁川穀物協會

仁川府商水町 百東精米所 主 尹基奭 電話四四五番

仁川商工會議所 會頭 吉田秀次郎

仁川朝鮮酒酒造組合

仁川府海岸町三丁目 米穀 雜穀 各種肥料 セメント 各種石油 穀物委託 貿易商 殖產商會 電話(長)七三七番 振替口座京城四〇八五番

仁川府京町 朝鮮料理 郡城閣 電話九七八番

仁川府京町 朝鮮料理 翠香館 電話五九五番

富川郡大阜面 面長 金完洙

仁川府西京町二〇八 仁川洋服店 電話七九八番

仁川府港町一九 劉君星

仁川府京町二三 安斗濩齒科醫院 電話二二六七番

仁川府龍岡町 東光寫眞館 寫眞機材株式店 主 申麟求

仁川府龍岡町一(上仁川驛前) 各種雜穀 ㊇產業商會 主 金今峯 長電話五四五番 電略(サ)又八〇(サ)

仁川府龍里町 株式會社仁川券番 創立事務所 電三八六 三七四

仁川府松林町 大東釀造株式會社

仁川府龍岡町 深見寅市

仁川府京町一八九番地 各種雜貨 中央[illegible] 林利均 電話四九六番

仁川府栗木町 宋炳喆

仁川府泰昌商會 金泰性 電話一〇一六番

仁川府西京町一三二番地 ゴム靴雜貨商 朴在中 電話一二四八番

仁川府龍岡町一番地 松島自動車株式會社 常務取締役 鄭旭鉉

仁川府京町二四〇番地 安基榮

仁川府栗木里一番地 砂糖 水飴 雜貨都賣商 富豐商會 電話長九一二番

仁川府萬石町一七 高田商店

仁川府京町 金允福 電話二四三番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三 米雜穀貿易商 新華商會 電話長二〇六九番 三八五番

仁川府龍岡町 司法書士 李東宇 電話一一〇七番

仁川府龍岡町 米、雜穀 永光商會 電話六八七番

富川郡蘇萊面 嚴柱東

富川郡蘇萊面 天乙醫院文鶴[illegible]

富川郡蘇萊面 文昌商會 主 文[illegible]山

富川郡蘇萊面 富興自轉車店

富川郡蘇萊面 嚴元燮

富川郡蘇萊面 朝鮮土器工場 徐廷[illegible]

富川郡蘇萊面 振興會長 朴[illegible]俊

富川郡蘇萊面 振興會長 全光善

富川郡蘇萊面芳山里 振興會長 李君信

富川郡蘇萊面芳山里 防護分班長 劉興鳳

富川郡蘇萊面 茂芝講習所 全興烈

富川郡蘇萊面 李漢永

富川郡蘇萊面 南基一

富川郡蘇萊面新川里 簡炳烈

富川郡蘇萊公普校 學務委員 白善基

富川郡蘇萊面議員 申鉉國

富川郡蘇萊面議員 邊宇燮

富川郡蘇萊面議員 金建煥

富川郡蘇萊面議員 閔正鉉

富川郡蘇萊面議員 李順[illegible]

富川郡蘇萊面議員 丁大權

富川郡蘇萊面議員 李泰圭

富川郡蘇萊面新川里 李範燮

富川郡蘇萊面新川里 金鎭澄

富川郡蘇萊面道倉里 金剛商會 主 鄭明燮

蘇萊面道倉里 防護班長 高源舜

富川郡蘇萊公普校職員一同

仁川府京町 高級綢緞商 今龍商店 電話五四八番

仁川府西京町 迎春釀造場 主 朴昌遠 電話一一六番

仁川府西京町 丸三果物商店 曺祥吉

仁川府仲町 丸中商會 張龍浩 電話六九四番

仁川府栗木町三二 勤業所員 金在潤

仁川府萬石町三七番地 東洋紡績株式會社仁川工場

仁川府海岸町三丁目八 米穀雜穀 海外米肥料委託貿易商 李聖宰商店 電話一〇七五番 振替京城二六三九四番

仁川府海岸町 仁川物產客主組合 電四八番

月尾島遊園株式會社 取締役會長 吉田秀次郎 專務取締役 今井省三

仁川米穀商組合

仁川府昌榮町 仁川釀造場 崔炳斗

仁川府山根町 大和釀造場 丁大賢 電話一一二三番

仁川府龍雲町 張光淳

仁川府龍岡町 仁川興業株式會社

仁川府港町一丁目二 今星鐵工所 主 李河泳 電話六五三番

仁川府海岸町三丁目五 仁川鹽共同販賣組合 理事 崔炳熙

仁川府海岸町三丁目五 仁川鹽販賣組合

京城地方法院所屬 司法書士 康善三 仁川府西京町 電話四六七番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三 米穀仲立業 米友社 洪 電話長二一七 二七

仁川府新町拾六番地 米穀及海產物商 奉興精米所 崔 電話一一七二番

仁川府海岸町二 朝鮮石油會社代理店 內外石油株式會社 仁川出張所 電話八一〇番

上仁川驛前 金錫永齒科醫院 電八九六番

仁川府龍岡町 永信堂書店

仁川府昌榮町 光成泰 電話四九八番

京畿道富川郡永宗面 永宗通仁組合

天日鹽 販賣 京城專賣支局仁川出張所

仁川醫友會 (五十音順)

仁川府花房町 鄭泰翊

仁川府西京町 洪在範

仁川府龍岡町五五 京畿道漁業組合仲買人 日進商會 朱成樂

仁川府龍岡町五五 李種潤 電話三一一番

仁川府龍岡町 米穀商 宋雲導 長電話三六八番

仁川府金谷町一〇 勤業所員 張仁秀

仁川府栗木町五七 勤業所員 金福根

仁川府旭町 河相勳

仁川府京町 和洋菓子 金龍權商店 電話六七九番

仁川府京町 仁川堂藥房 電話七〇六番

仁川府龍雲町 救世醫院 電話一〇七〇番

仁川府京町 中央醫院 閔正圭

仁川府龍洞醫院 鄭文煥

西京町 天恩

仁川驛前 ㉿仁川荷主運輸組 電話五三三番 上仁仁營業所

仁川府龍雲町 永昌醫院 院長 李枝應

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仲買人 海陸物產委託 仁川府京町五九 寅和商會 朱寅洙 電話八二八番

仁川府花水町 順昌精米所

仁川府西京町 金城旅館 電話二六五番

仁川府西京町 物產客主 入成號

仁川府龍岡町 華城自働車株式會社仁川出張所

仁川府龍岡町 石炭 木炭 問屋 英興商會

仁川府西京町六 喪中欠禮 物產客主 順天號 主 玄惠暎

仁川府西京町五 喪中欠禮 物產客主 金東秀

蘇萊面新川里 喪中欠禮 徐明雲

富川郡蘇萊面新川里 喪中欠禮 徐明淑

仁川府松坂町 東洋ブロック建築工業社 電話六八四番

仁川稅關長 小田正義

仁川府大和町 李祥雲精米所 電話一三六一番

仁川府萬石町三三番地 株式會社朝鮮製鋼所 取締役會長 金子[illegible]權 取締役社長 鈴木種一 專務取締役 平野稔彥

仁川府萬石町七四 喪中欠禮 宋重學 電話九八八番

利川

利川郡利川面倉前里 株式會社 利川產業社 電話一一二 振替京城一九三三三番

洋品百貨 文房具 雜誌石油 運動器具 共信商會 電話一二番

利川稅務署

利川酒造組合

利川邑內 布木商 三益社 電話一〇二番

利川邑內 錦山館 韓東洙 電話二八番

利川印刷所 主 李圭台 電話一〇番

利川郡利川面 文俊基

醫療藥品 有名賣藥 東亞藥房 電六三番

利川酒造場 利川精米所 電六番・五三番

오―케 레코―드 百貨店 永信商會 主 河逸賢

利川邑內 東仁館 主 崔仁釆

利川邑內 金炳哲

利川邑內 申鉉泰

利川驛前 東一精米所 電四一番

利川溫泉 靑泉館

利川邑內 穀物檢查所員一同

利川驛前 ㊥賃貸トラック 主 申鉉泰

天日堂時計舖

三嶋洋靴店

陝川郡公立學校長一同

草溪產業組合

利川邑內 昌鉉堂 電取六六七番

利川驛前 京南病院 電話六二番

利川驛前 利信商會 電話四三番

利川邑內倉前里 金在燮商店

利川邑內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利川分店 主任 朴永九

金錫鉉

利川邑內 池內吉藏

京畿道利川 松永齒科醫院 院長 齒科醫師 松永靜枝 東洋齒科醫學士 時岡良平

利川市場 布木 우리商會

利川邑內 平和樓 主 宋光山

世信堂時計舖 主 李相說

鮮一百貨店 兪炳羲 電話一五番

京東線利川邑內 京東ゴム商會

利川邑內 吳濱根商店

利川帽子店 主 辛在永

廣德商店 主 任善宰

泰信洋服店

李宗載

太平堂醫院 電話一〇一番

自力洋靴店

草溪

陝川郡雙冊面城山里 黃沲釀造場 主 李台圭

陝川郡雙冊面城山里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草溪代理店 李民奐

陝川郡赤中面上部里 金判道酒造場

陝川郡草溪 內科 小兒科 回生醫院 醫師 金永浩

陝川郡草溪市場 綢緞布木日用雜貨食料品 柳奉春商店

慶南陝川郡草溪 浩然養蜂園 主 成海雄

陝川郡德谷面栗旨里 洛東釀造場 主 鄭鶴伊

陝川郡草溪面 草溪金融組合

陝川郡草溪市場 和洋酒 食料品 慶華堂 主 盧正述

陝川郡草溪市場 司法代書人 南相直

陝川郡草溪市場 綢緞布木日用百貨 盧甲述商店

陝川郡雙冊面下新里 金永元酒造場

陝川郡草溪市場 綢緞布木 日用百貨 一慶商店 主 金泰浩

陝川郡草溪市場 綢緞布木 日用雜貨 白景淳商店

陝川郡草溪市場 中央菓子店 主 尹且岩

陝川郡草溪市場 司法代書人 李且鎔

陝川郡草溪 大同醫院

陝川郡草溪面大坪里 盧浩容

陝川郡德谷面壯里 李漢雨酒造場

陝川郡德谷面下倉里 精米業 安鎭漢

陝川郡雙冊面上新里 李天封

陝川郡草溪面栵下里 吳龍雲酒造場

陝川郡草溪面元堂里 尹鼎均

陝川郡草溪市場 草溪藥房主 李爾信

陝川郡草溪市場 尹泰瑞

陝川郡草溪面栵下里 盧秀東

陝川郡草溪面 協議員 金甲千

陝川郡草溪面栵下里 盧[illegible]鎬

陝川郡草溪面 協議員 尹炳瑚

陝川郡赤中面 協議員 孫且[illegible]

陝川郡赤中面上部里 布木商 申載文

陝川郡赤中面上部里 吳道浩

陝川郡栗谷面甲山里 金[illegible]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

事變後北支 朝鮮人問題

認識矯正이最急務

明朗北支에進展안되는이問題

活動舞臺를開拓하라

사변반개년에 중화민국림시정부(中華民國臨時政府)의 수립을보 북지나는 새해에 들어서 다시 일단의 비약을 볼것이다 실로동양의평화는 북지의신정권이 중국의중앙정권으로 발전될것이 약속되고잇는데서 새로운페지를 짓게되는것이다。그간반개년의 사변은 전란의소용돌이속에서 치안회복의 제일단계를 지엇고이제새해로부터 제이단계으로 신정권밋헤 전개될평화공작은 정로기로 들어가게될것이니 정치·경제·산업·사회각방면의 사업이 일만지재휴(日滿支提携)밋헤 면목을 새로히한다면 여기에 당연히 우리의관심을 끌게될것은 지리적으로 가장접근되여잇는 조건으로서는 어떤판계를 가지게될것이냐하는것이다、물론지리적관게는 산업경제상판게를 가장도탑게할조건이어서 사변이후로도 벌서조선과 북지와의판게는 특수한형태로서 긴밀하여가고잇거니와 금후는 일층판게가 밀접하여질것이며 따라서 조선인의진출은 여기에서 절대문제될것이다 즉만주국의 성립에의하야 종래문제되여오든『백만의조선인』문제가 새로운문제로 우리압해 전개되엿든것과 어느면으로보면 저이가는성질로서 발전될것이다 다시말하면 이왕에 그땅에건너가잇는 조선인문제는 어떠케 되여잇섯든가하는문제가 새로운견지에서 검토될것이고 동시에 금후조선인진출은 어떠케될것인가하는것이 론의될것이다 벌서사변이폭발되면서부터 북지의조선인문제는 크게주목을 끌엇다 남총독(南總督)은 사변이폭발되면서 북지사변의 금후전개가 어떠하리라는판측미테 북지에잇는 약일만오천명의 조선인의보호는 만전을기하고잇고 금후의생활문제에도 각별히 고려하고잇스니 어전은 안심하라고 일반민중에게 재삼부탁하엿섯다 남총독의 이러한부탁의말은 그때일시의문제가아니고 적어도 북지의 새력사와 한가지로 금후진출할 조선인문제도 언외에포함되여 잇섯슴을 알수잇는것이다 과연 금후의 북지문제에 조선인의진출이 어느방면으로보든지 심상치안키때문이다 그러면북지의 새로운력사의 발전을바라보며 동시에북지의 조선인문제가 어떠케 발전될것이냐하는것을 생각하야 우리의 금후각오의참고를 삼고저하는바이다 뿐만아니라 사변전부터 북지의 조선인문제란것은 북지의여러당국자간의 괴로운문제로 론의되여왓다 하로바삐 해결치안호면안될문제로극히 미묘한 공기에 쌔워잇다 어려운현지의 사정을보고볼때에 이문제는 조선인된 우리자체가 하로바삐 더먼저해결토록 힘써야할 긴급한경세에잇는것이다 즉금후북지의 새로운개발과 한가지로 조선인의진출을 기약한다면 종래취급되여오든 조선인의문제 즉종래의공기를 일소식혀야할절박한처지에 잇는것이다 북지의모든면목은 새로워저가고잇다면서 조선인문제만이 새로운면목을 가추지못한다면 어느조선인의 발전과면목을위하야 중대한문제가 될것이니까

면장사는 보통장사보다 몃배식 엇동한 리익을 어들수잇다 이런것이 용이히할수업시되니 꿋 생활난이닥처오게되며 조선인자체로서는 생활문제가절박하여젓고 또 일면에 어런방면에 종사하든만큼 생활의태도가 극히 방랑적이어서 당국자로서는 그 취급이 곤난되엿다 생활난에직면하자 그들의 생활수단은 다시 한층더 저급하여젓슬것도사실어다 어런상태에잇서서 조선[illegible]이니면 북지에서 그리조흔 상술가지는 사람이적게되엿다 그뿐아니고 어려한 밀수입어나아편장사에 종사하든사람은 만주와 열관강국경방면에서 그럼부정업에 종사하든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오래해를두고 그런업에종사하여온만큼 사람의 질로서 그려조케평가할수업는것이 만흔것도 사실이엿다 그러든것이사변이후에 어르러서도 공기가 용이히 일신되지안코잇서 북지에잇는 조선사람들 자신들도 이문제를 호전시키고저 애쓰게되엿다 즉 북지의 국면으로 새로히 전개되고잇스니 대국을파어 어 대국에 명예잇는 활동을할기회를 엇도록하여야할것이다 만일이때에 명예를 새롭게하지못한다면 금후활동할기회는 더욱맥힐것이요 새로조선서 진출한 사람들을 을위하야 더곤난한 일이될것입으로 하로바삐 명예를회복하여야한다는 공기가 노파지게되엿다

冀東貿易의戰士로

版局一變轉落流浪

북지조선인문제의 발전은 사변전 북지정세의 변천과 병행적으로 발달되엿으로 볼것이요 다시 그전의사정을말한다면 만주국의 발전에따라서 문제된 만주조선인문제와 또한 판게가업승을 말하지안흘수업다 그리유문제의 발단은 어데잇는가를생키로하면 말하기에도부끄러운바만라 그러나 조선인문제의 새로운 출발을위하야 우리는 종래의 문제는잇는 그대로 해부할필요를 느끼는것이다 그러면 오늘 북지에서 문제로되여잇다는 조선인문제의 초점은 어데잇는가하는것부터 말하기로하자 물론문제되여잇다는것은 당국자들이 조선인을 어떠케보고잇느냐、하는것이다 이를말하면

一、북지의 조선인은 일반적으로 지식과그교양정도가 낫고 그직업이 아름답지못하다는것이고 따라서 신용이업다는것이다

一、물론 북지에잇는 조선사람이모조두무식하고 교양이업는것은아니나 대체에잇서서 그러나날 면치못할 정형에잇기도한그우에 문제의 직업이라는것이 소위금제품(禁制品)이라는 아편장사와 밀수입(密輸入)에 종사하는 사람이만허서 대개일확천금을꿈꾸고 다니는만큼 신용업은 행동도만히한다는것이다

一、어려한 벼난이 사변전에 문제된것은 일지외교판게에잇서서 중대한 안동이되엿다는데 더 시끄러운 문제로 취급되여오것이다

一、그러타고해서 밀수입과 아편장사를하다면 천진(天津)북경(北京)에잇는 조선사람이 모두가 한것도아니고、밀수업어나아편장사는 또 조선사람만이 해온것도아니다 수십개국사람이 틈틈는가운데 에서는 어느나라사람을 막론하고 아편장사나 밀수입을아니하여온것이업는중 조선사람은 자본이업는판게로해서 자본잇는사람들의 앞잡이노릇을 만히하고 또점은 자본으로 더만흔리익을어드려니까 남달리더모험도하지안호면 안될사정에잇섯을뿐이며、그만큼 모험을 더만히하게되니 그전의 지나편헌과의 충돌도더격심하여질수밧게업섯다 그결과가 외교상감정문제가되고도 일면에 지나민중에대한 민중적감정도 사게된바 컷다는것이다 문제를어르키엿다는것이 또 조선인편만어아닌것은 물론이다。

一、일면에、 북지의 특수무역(特殊貿易)시대로부터 기동무역(冀東貿易)시대로들어가면서 일본상품이 북지로 팽창히흘러들어갈제일선에서 활동한 사람중에조선인의 존재가 극히 뚜렷하엿든것은 더말할것도업다

대체로 어려한 정세에잇는조선사람생활상태가 문제의 초점이되여왓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수단이라는것은 언제나께속할것은아니엿다 일시적으로끄치고야말수밧게업서되매 조선인의문제가까다로운문제로 대사편려로되고만것이다 즉 재작년부터 밀수입에 어렵게되며 아편장사의 처재가심하여지니 조선인의 생활근거는 근본적으로 동요를보게되엿다 밀수입이나 아

有能한事業家의 積極的進出이必要

指導的活動이잇서야한다

그럼으로 금후북지의 조선의 조선인 문제를완말하고 또유요하게 전개시키면 먼저는 이왕에가잇는사람들이 모든활동에열심을다하여 조선인의 신용을회립시키야할것어려니와 여와동시에 조선내의유능한 각방면사업가들도 면히진출하야 실제로그곳조선인들을 만히 지도하하고 판게방면에 조선인문제를 원만히 인식시켜도록 활동하여야할것이다 생각컨대 조선인문제가 만주에서 론란된것과 거의가튼성질로 북지에서도 론란되고엇다는것은 여러가지로 리유도만흘것이다 조선인 자신이 넘어도 리해 업는 행동을 하엿든탓도만호하나 그리면은 그러치안홀수업는사정이 또만있을것도용인하지안홀수업는 것이잇다 그러나 그동안조건이 왜정당한 사업에 참여치를못하고 천한직업소위 부당하다는직업에만히 참여케되엿던가는 어에설명할것도업시『그때에는그직업』에 직업으로서는 가장 유리하엿든때문이다 사변이후로 가장 눈에띠우는것은 천진이나 기타 전선에 조선인의 소위인육상(人肉商)이 대번창한다 물론 이인육상이란것은 조선인만이 도마련가지고 하는것도아니다 내지인들도 만히하고잇다그러나조선인은 적은자본을 가지고만흔돈을 모으기위하야 위험을 무릅쓰고제일선에라도 따라나어가려고 군용철도를 얻어타고 잡어다가 군의 노력을사는등 그래서이 몰론 초래하고 엽치엄다는등 이런파경에 여기 저기에 버려저잇서 조선인하면 어런 것이나려상케줄되고야 조선인을 그리장하게볼리든 어다 이러한 직업을조선사람이 남보다도아장을모릅쓰고 하개좀되여잇는것이어 본래부터 떡한사정이라고할것이다하여간문제는 아프로더중대하다 사변이후도 북지로들어간조선인의수효는 확실치안흐나 삼사천명이상에 달할것이다 그러면 그들이모두 어떠사람일까뭇지안허도 간단한상직장사에 도인육상에 소상인거라 로동자를여 대부분일것이다 그러고 그들은 어떤모에던지자련좀이떼잡고 성공하려는것보다는 임시일서에 큰돈을 잡겟다는부류의사람이 역시 만흘것이니 일확천금이란것이 그리용이한일이어 아님은 더말할것도 업거니와 그러하려는 사람일수록 자기개인의 리익만어주하고 한편밟는을 돌려면 그뒤에는『조선사람의성깨가 어찌 되더지 다시 생각할 여지가업는 사람이 도대부분일는것이사실이다 어려케된다면 금후 조선인의 진출을위해서는 더욱더욱 곤난하고 현재 북지에자리를잡고 사업을하고엇는이들을 위하야서도 또곤난할것이다 그럼으로 금후 북지가 용하조선인의 진출할곳이된다고할진대상당한자본가지고경륜도가진유능한사람이속히진출하여야할것이다면일그러치안흐면금후조선인의만주어국이허제한되는경우도업지안흘것이어하면되는것이어다

882369

唐山에農場計畫

北支의避難民을收容하도록

總督府當局의對策

여려한 정세에 엇서서 조선총독부당국도 접부터 그대책을 연구하여왓다 재작년부터 북지의 조선인문제가 주의를 끌게될때 그곳조선인을 어떠케하면 정업에 돌아가게할것이냐하는것을 두고두고 연구를 거듭하게되엿다、즉

一、밀수업도 아편장사도 불계가 정당한 생업이어날수더러 정세자 떨판것스니 하로바삐 정업에돌아가게하여야하겟는데

一、그방법으로 밀수와 아편장사를하다가 생활의근거에백힌사람을 위하야 북지에 농장을 경영캐하여 일부는 수전(水田)농사를 시키게하고 또동사를할수업는것은 그곳 방척(新編)공장등의 겨계를편러노든이커든조선하여주자

一、만일 그러케주선하여주어서 정업에종사치못하다면할수업스나 그때는 현지당국이 축방을 한대도 할수업다

는 견해를가지고 그대책을로 계획을세우고 현지의 판계당국과도 충분한협의를 거듭하여와섯다 그러다가 사변에복하여 계획이 일부중절되고 일방에조선인에대한 일반적공기가 의연히 자대문지못함에 총독부당국으로서는 다시피건원등을 동원시키어 조선인 지도에만흔힘을 쓰는동시에 농장사업의 계획을 다시계속하게되엿다 그리하여게동정부구여내의 당산(唐山)에적당한 농장지대를 물색하여 북지에서 종전 보다도 사변이후 느러게된 조선인을 수용하고하여 금춘부터는 농장에드러가게정하여당한수용에대할것이다 여하간 사변이후 조선인문제해결을위한 사업의 열단이되는것이다 그러나 여겻은 단순한 구제사업에 지나지못하는것이요고 조선인의 북지진출에대한 사업의 출발이라고해지는 딸하지어렵고 우선안정된 생업을 엇지못하고 문란하든 조선인을위한 사업으로서는 먼도가게대되고엿다

堂堂한天津民會館

북지조선인의 근거지는 역시 천진과 북경이다 각히사천여명식거주하고 아동교육기관은 북경에서는 내지인소학교의 분교의 형식으로되여잇고 천진은소학교에서 수학케되여잇다 그리나 학교문제도하로바삐 개선하지안호면 안될형편에잇서 그곳조선인들이 전부터 애쓰어오구하고잇는때이다 그러면 그곳조선인의 거민으로는 민회가잇는데 천진조선인민회는 상당하야에 대경당이어잇고 유지들이지경영하는 당당한것이다 주소는일조계추산가(日租界秋山街)에잇다

民會의自治等으로 地位向上에注力

事變發生하자義勇隊도組織

第一線에서大活動

조선인의문제는 언제조선인자신이 그해결에 힘쓰지안흘수업섯는것이다 전부터 천진북경의 조선인유지들은 문제를어하여 거지아려사변이나 대사변도는 공통잇섯다 우려실제종의주저하든바도 국의지시밋테노력하고 천진은만도 부적업를 직업으로 저화하도록 힘써야겟다는 견지에서 민회(民會)에서는 간부들이 솔루히엔의 한계과 자치적으로 직업을고쳐고 명예를향상시키고 신용을회복하도록 서로힘써기도하고 감정도하게된것이다 물론 그러지안흘수가업섯다 복지에 자리를잡고사는지 오륙년내지십년 더오랜사람은 이십년이된사람도잇는데 천진북경만하여도 근만명이나잇는것이 정상적직업을 가지지못하고방황한다는것은 그들자신들로도 극히 불리할일이고 손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더욱 중대문제이라 각별할 보리는 조선인간에『우리문제는 먼저우리가 해결하도록 힘써야한다』는 표어를걸고 유지들이 분기하게되엿다 그리하여 기회잇는대로 민회에서는의원들이 모이어 의론한결과 아편장사하는 사람들을 려가지고지업을 고치도록하자고 권하기도하고 도집세문제등으로 지나인등과 문제되여있는것등에도 민회간부가나서서 원만히해결을하여 조선인의 신용을회복도록하는등 힘쓰게되엿다 물론 이런것이 그리쉽게 효과가잇것다고는 아니하여도 그만큼힘을쓰게되것만으로도 반가운현상이엿다 도한편으로 천진가튼곳에서는 조선인의생활향상을 위하야 는곳에 출입하는것도 삼가도록 민회측에서 만히금하엿다 그예로서는 이태리조계(伊太利租界)에잇는『하어아파이』라는거기장은 천진의명물이라고할만큼공개된도박장인데 여기는 각국사람들이만히 출입하여 턴어시돌을 허비하고 잇는것이 만흔중 조선언도 그수효에 북지안흘수업감이라고하야 조선인의 선거물움들에는 이런곳에 출입하는것도 금하여야 할것이라는 견지에서 민회간부들이 업쓰게되엿파흥하기까지 하는등 여러가지로 조선인의 선용을 회하기에하야 진력하기도하여왓다

어가지하여 작년봄이때로 조선인문제가 각방면에서 씨끄러운문제로 론의될수록 그반면에는 조선인자신들이 자치적으로 신용회복에 힘쓰게되엿든데 마츰 이번사변이 폭발되엿슬때에는 천진가튼곳에서는 조선인의 활동이또한볼만한것이잇서서 조선인의 명예를나타내인것도크다 본래외지에 나가잇는그들의 의지하고 지도를밧고 도움을밧는것은 국가기관이어서 전부터제국신민의 자격을 두러히 항생각미테 사사건건에 령사관수이며 대사관 또는군당국의 지도를 바더왓거니와 사변이 한번폭발되자 천진에서、의용군(義勇軍)이조직된때 조선인도 어배명의 의용군을조직하여봇고면 북지의 활동을하는 중 귀중한 희생자도 내이엇까지 잇섯다。또 천진에서 활동한 조선인으로서는 천진재류조선인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부대에 소속되여든 조선인자동차운전수 오십여명이어 철통이십구일 천진충전당시에 엿까지 분투하엿다는것은 또한 유명한이야기가 되여잇다 여가터하여 사변이폭발을 보면서조선인들은(쏜선하야 활동을하여도자치적통제에 불명예한 일을 남기지안토록 힘쓰게과 그현악한전란의 소란가운데서 조선인의 불명예한일이라고는 업섯든것이다 그리하여 사변에 당하여서는 일단조선인의 신용을 더욱하함수이섯다 그러나 이것뿐만으로서 힘을 다하엿다고 할수는업서 민회측국자며 기타유지들은 일층 진장하여 조선인문제의 원만한해결을 게대하고있다

謹賀新年

公州

和信連鎖店 共榮商會 電話五五番

忠南公州旭町二九六 辯護士 尹用燮 電話二一一番

公州邑旭町二七六 李昌浩

公州郡新上面 道會議員 李斗寧

木洞面利仁里 貨物自動車部 主 趙南復

公州郡鷄龍面甲寺宗務所 住持 朴正善 法務 盧秉燦 財務 金正會 書記 洪慶植

公州公立高等普通學校 公州公立農業學校 公州公立高等女學校 公州公立尋常高等小學校 公州錦城公立普通學校 公州公立普通學校

公州郡反浦面馬岩里 道德金山事務所 金庸杜 權鷄龍

公州郡廳 郡農會

辯護士 洪兢植 電話一一一番

公州商業會

正安面雲宮里 姜鳳周

鷄龍面敬天里 金教駿

李炳道

公濟醫院 醫師 梁載淳 電話五十一番

公州稅務署

公青酒造組合

各種化學品 化粧品 香料 製造元 花香堂 金容熙

이꽃다운婦人會 會長 李英淑

南一商會 電話一三一番

公州金融組合

牛城面所 職員一同

公州邑常盤町 洪冠杓

寺谷面 朴在漣

材木 柴炭 興信商店 主 李興元

公州山城町 (卜)貨物自動車部 金壯憲

公州郡反浦面 興中大禮 朴金培

公州本町 朝鮮料理 錦樂園 電話一三五番

石版活版 公州印刷所 主 尹龍淳 支店 扶餘邑內 忠南印刷所 電話二八番

公州邑常盤町 朴元默

南鮮合同株式會社大田支店 公州出張所長 長田眞玄

司法書士 徐周聖

南鮮興業株式會社

公州邑長 高原圓治郎

公州釀造組合 電話五七番

徐惠淳

公州旭町三五 司法書士 白樂俊

梁成木工所 梁善一

李成汝

廣昌堂 金洛鉉 電話長一四二番

醫師 金綃圭

鷄龍面長 鄭寅珏

司法書士 金泰顯

陳鼎燮

公州消防組 組頭 岩崎角三郎 副組頭 梁澤榮 第一部長 三戶正助 同小頭 金孝成 同 板倉精一 第二部長 小川常助 同小頭 未岡時 同 金永德

麟蹄

麟蹄土曜會

麟蹄郡麒麟面事務所 職員一同

麟蹄郡麟蹄面上東里 金基璐

麟蹄金融組合 麒麟支所 職員一同

麟蹄郡瑞和面事務所 職員一同

麟蹄郡麒麟面芳東里 崔三峰

麟蹄郡內面事務所 職員一同

麟蹄金融組合 瑞和支所 職員一同

麟蹄釀造場 申惠休

麟蹄郡瑞和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麟蹄郡麒麟面酒造場

鎭川

麟蹄郡麟蹄面上東里 李益奎

常山精米所 李鍾漢 金宇泳 閔範植

李載根精米所

穀類 布木 合資會社 三成商會

湖南精米所 許週

穀物 肥料 共益商店 主 鄭載元

退潮

咸鏡線退潮驛前 水產業 金允瑾

咸鏡線退潮驛前 綿布 百貨 ゴム靴 權緯周

咸鏡線退潮驛前 海陸物產 貿易委託 (永)永成商會 主 崔吉河

咸鏡線退潮驛前 (金)運送店

咸鏡線退潮驛前 生賣大豆 諸穀荷造 取扱 海成組

咸鏡線退潮驛前 明太子漬 海產物加工 (金)丸金工場 食料販賣部

咸鏡線退潮驛前 運送 海產物 (上)山田商店

咸鏡線退潮驛前 林壯學

咸鏡線退潮驛前 明太子 桶製業 (は)丸林工場

咸鏡線退潮驛前 泰昌商店

咸鏡線退潮驛前 黃澤鍾

咸鏡線退潮驛前 洪淳鎭

咸鏡線退潮驛前 協同運輸組

咸鏡線退潮驛前 兄弟理髮舘

咸鏡線退潮驛前 林道學

咸鏡線退潮驛前 李好楨

咸鏡線退潮驛前 兄弟商店

咸鏡線退潮驛前 李達模

咸鏡線退潮驛前 金鳳鎭

咸鏡線退潮驛前 漁業組合

咸鏡線退潮驛前 金奭哉

咸鏡線退潮驛前 (二)運送店

咸鏡線退潮驛前 朴海龍

咸鏡線退潮驛前 安井旅舘

咸鏡線退潮驛前 金鍾洛

咸鏡線退潮驛前 退潮代行營業所

咸鏡線退潮驛前 姜明昱

壽

映畫人의 敵은 貧困

血戰의 廿年歷史! 聖스런 그들의 犧牲!

先覺者 李基世氏外 浮動한 映畫人群像

가시덤불속에서 걸어나온 조선영화! 그력사를 들추어볼때 우리는 그들의 역전고투의 거룩한 노력의 자최를 찾지안을수 업다. 다음에 소개하는글은 초창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조선에 영화계를위하야 희생을 바처온 이길의 선각자요 선배인 리기세(李基世)씨의 담화를중심으로 역거노흔 "조선영화의생장사(生長史)"를 쓰노라고 노력하여본것이다

連鎖劇時代

지금으로부터 이십삼년전에 소위 신파극단이 경향각지를 순업할때에 연쇄극을 상연한일이 잇섯는데 그것이 림성구(林聖九) 김도산(金陶山) 리기세(李基世)씨등이 주관제작한 것으로 그의대표 작품은 "장한몽(長恨夢)" "우의(友誼)"등이다 당시에 일류배우로 등장하든 인물들은 림성구(林聖九)씨하에 한창렬(韓昌烈) 김순한(金順漢)씨이고 리기세(李基世)씨하에 윤혁(尹赫)씨와 당시 여배우역을 하든 고수철(高秀喆) 리응수(李應洙)씨등 그리고 김도산(金陶山)씨등이엿는데 이들은 당시의 전조선을 망라하야 명배우로 이름을 날렷다 이당시에 연쇄극은 대호평을바더 그들이 간곳마다 대만원의 성황을이루어서 생활은 유족하야 떠호화로웟스나 일반영화감독 영화인(카메라맨)이아니고는 맛보지못할 우숨고도 눈물겨운 고난의길 몃가지의 에피소-드가잇다

그때 리기세씨일파 십오명이 우정 로케순을하려고 대구(大邱)달성공원에 갓는데 생후처음보는 민중은 이소문을듯고 삼사십리 밧게서까지 구경을오게되여 관중이 너머 만흔닭게로 로케순을 못할지경이되엿고 군중을 정리하노라고 대단한혼잡이 드르잇이잇고 다음 대구에서 자동차로 경주불국사(慶州佛國寺)를 드러가게되엿는데 로케숀을 나가려고 한편에서는 분장을하고 한편에서는 그들의 보따리가 풀려지게 시작되자 총 칼등이 나오는것을 처음보는 절중들은 강도단이나 아닌가하야 근처 경관주재소에 고발을하게되엿다 대경실색한 경관들이 달려왓슬때 과연 그광경을 처음보는 경관들도 강도단이아닌가하야 취조를 하는데 장시간을 걸려서 연쇄극장면의 촬영이라는것을 리해케한후 그장면을 촬영한일이잇섯다

春香傳當時

지금으로부터 십륙년전 조선영화가 완전한체게를 형성하야 제작되는 시대이니 이때야말로 조선영화인들의 본격적으로 처참한 형극의길을밟는 시대이다 이때만하야도 사람들이 어수룩한탓이엿든지 영화인들은 한등의 물질적요망도업도 그저 영화도(映畫道)에나서서 성공을해보겟다는 희망을가지고 나섯는데 그러타해서 제작소측에서 생활비를 지불하는것도 아니엿다 여기에한가지 례를들면 독자의 기억에남어잇는 라운규(羅雲奎) 주삼손(朱三孫)등은 먹을것도업고 잘데도업서서 호떡한개를사서 두사람이 눈하먹고 빈창고에 들어가서 숙박을하며 현장태의 성공을 눈아페것가히 그려보든일도 한두번이 아니엿다고하며 부산(釜山)에 조선키네마회사가 해산되엿슬때에 그들은서로 손목을잡고 전리경이 보는서울까지 도보로 거러오면도엿섯다고한다 그때에도역시 영화인은 일반사회에서 리해가적고 굿장이니 풍각장이니해서 어느누구한사람을 붓잡고 사정을 말할수도 업고 그들의성공은 서로영화인끼리만 알고 지내엿다

그들이 찰시청(察時?)에 라운규씨원작 「아리랑」 …

初期의 名作四題

上左=朝鮮劇場에서 製作한 "春香傳"(主演은 金肇盛、韓龍) 上右=故 羅雲奎氏 一人三役의 "아리랑" 下左=尹白南氏監督의 "雲英傳" 下右=故 李弼雨氏가 監督主演한 "精婚"

하소연할수밧게 업섯다한다 당시의촬영기사로는 리필우(李弼雨) 리명우(李明雨)형제분이엿는데 제작용으로 카메라 크랭크를 돌리기 시작하는때이라 촬영을할때에 몹시 곤란하야 촬영하는데 필요에대하야 전재가가아니고는 촬영을못하엿다 원체 헌기계를 갓다가 쓰기때문에 촬영할때에 한커트하커트마다 촬영기에 고장이생기기에서 무진한애를 썻다는것도 그들의 뼈굿아픈고심의하나이다 조선영화가 생긴당초작품 춘향전(春香傳)=大正十三年朝鮮劇場主 早川孤舟가 製作一萬圓으로 제작한作品 監督 早川 主演 金肇盛 韓龍女史=이처음 조선극장에서 봉절될때에 한가지에피소-드는 당시 조선극장에서 봉절하게되엿는데 조선사람의손으로 제작된 작품이요 언어풍속이 가튼 조선사람들이 활동사진에 나온다는 선전에따라 극장으로 모혀드는 사람들이 초저녁에 초만원이여서 극장이나 판계를 사이에 해가을에 부산(釜山)에서 오십만원자본의 「조선키네마」가 창립되엿스나 「바다의비곡」(海의悲曲) 「운영전」(雲英傳) 「신의장」(神의粧)의 세작품을 만들고는 해체되엿다 대정십삼년에 조선키네마회사에서 「흥부전」(興夫傳) 「심청전」(沈淸傳) 「놀부흥부」 … 윤백남(尹白南) 등이 … 그러나 리수일역을 주연하엿는데 그곳에서 영업하게되자 주연가리 배우를 일허버린 회사측에서는 할수업시 주삼손(朱三孫)씨를 등장시켯다 그래서 장한몽에는 리수일이 가두 사람이되여서 관객들의 우숨보를 터지게 한일도잇섯다한다

아리랑時代

대정십오년에 경성에 「조선키네마」가 창립되자 소화이년에 고라운규씨원작 감독 주연의 「아리랑」이 제작되엿다 이 「아리랑」이 의외에도세인의눈물을 짜내일만치 위대한 경이적출현이엿스며 그당시에 영화아리랑으로 말미아마 전조선의 방방곡곡에는 아리랑민요가 불리엿고 일본에까지 큰센세이숀을 조선영화로서 비로소 이르키엿다 이때의 조선은 신사조(新思潮)가 밀려드러오게되여 영화작품에도 「이데오로기-」문제로 싸움과나판이 만혓스며 이데오로기-작품을 만드러도 말성 도평범한작품을 만드러도 말성이되여서 정신적형극의길을 걸게되엿는데 제이기당초는 제일기가리 처참한 길을 것지는아혓스나 제이기초반기에 잇서서는 경제적고난이 몹시도 만혓다 제이기에 등장한 영화게인물들은 라운규 윤봉춘(尹逢春) 리금룡(李錦龍) 홍개명(洪開明) 리경선(李慶善) 정기탁(鄭基鐸) 주삼손(朱三孫) 신일선(申一仙) 리창용(李創用)등이다 그들의고난의 일단을말하면 다음과갓다

初期의 漢員(上와 初期의 中古品撮影機)

그들이 찰시청(察時町)에다가 라운규프로덕순이라는 간판을부치고 일홈을하는때인데 자금은 업서지고 영화열은 심하야이라 고난을 갈수하고잇는데 지금으로부터 십여년전 여름철의 이야기다 그들은단체생활을하면서 잇섯스나 기아를 면할려고 할수업시 영화도구 양복을전부를 잡혀먹고 그들의 합숙소에는 양복한벌만 벽에거러노코 모두가 「사루마다」 만입고 잇는형편이라 누구든지 외출할때에는 벽에 거러두엇든 단벌양복을닙고 출입을 하게되며 키가 큰사람이 입을때는 양복이 적어서 팔불견 키가적은이는 양복이너머 커서 우숩거리가 만헛다 그리는사이에도 영화인들의 노력은 계속되며 제이기에드러서 당시의 대표작품 「아리랑」 「먼동이틀때」 「아서라 회륜수」 「바다와싸우는사람들」외에 사십여종의 작품이나와 맹렬적 영화팬을 만들게되엿다

제삼기에는 당연히 「토-키-」에대한 이야기를 할것이나 이것은 저면편게로 다음기회로미룬다

裸體"모델"을보고 얼골붉힌이야기

畵道精進四十年

高羲東氏

오원장승업(五園張承業)하고 구주(九主)류한국(劉漢國?)을 자자처든미(赤隱?)조조(趙錫晋)의 군자들보두든며 조조(조석진)의 군자들이 참리버림 한운창(韓雲倉?)의 수업이 우평하지만 조석진 안중식(安中植)으로 고희동(高羲東)선생은 다시다서 피한 운이 … 재리유요 서양화에대한 기초지식이 전연업다는것이 물재리유로 일화은 보기조케 거절을당하고말엇다 그러나 당지한국정부학부에서보낸 소개장이 주효하엿든지 유독 하나뿐이 미술학교를 지원함으로 학교당국에서 희귀하게 생각하엿든지 특례로 가입학이되엿다 상활로 방벙어리를 달란는 소리가튼 어학의힘대주먹으로건너간 이화생이 무척거하든 지장 스러웟을게라 사실열화롯날 연희하야 장원(壯元)선생의 지도를 밧게되엿는데 거문거당(巨幹堂?)으로 서종편 일본 지리인 경과한후 겨우 몸에 러번이 여러된세운이다 눈오는 흐려한 게동무로든디 록 …

로든 드럿든것이나 별안간 당하고보니 당황하지 안혓을수가 잇나 그러나 보울곳자 거짓말가리 숫흐도 잡념이 업서지고 말드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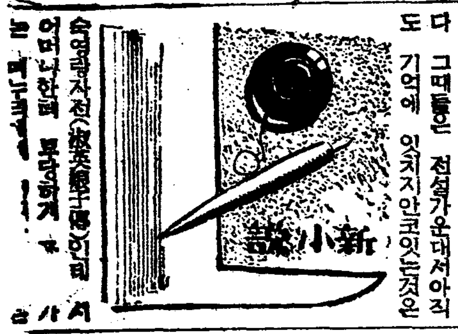
당시 우리생들은 나를가르처 「에-기롱대 하는사람」 또는 「기롱내 나는사람」이라고멸시하야 이여관청에서 척구하나엇서 고뇌하게 지낫스며따라서 내가 머물고 잇는하숙은그들과 멀리 떠러저 잇엇다

한편에 고국에도라와서 통상을 단기계되면 게옷에는누정국측이 그림그린다는 어떼와서 보는자

『네나무리칭은 저만해 열흘…』 고 흉하까지가 하며 조롱어심하얏다 그중에도 고미소를든치 못한것은 이런것이 잇섯다 『저 부대조각에 고약칠하는구경가세』

×

오계년전의 동경생활을 마치고 귀국한후 서화협회(書畫協會)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연구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십칠년전 중앙고보(中央高普)교원 서화협회 미술전람회를 열엇다 그때 출품수야 련태평(水野?)씨도 어희장에 와다가 매우 경탄하는 의미의말을하얏다 『그래 다무어야 평양원인가 그릴데서 굼고도 그림이야』 …



新小說元祖 趙一齋

洛陽의紙價를올린 長恨夢·雙玉淚

趙一齋의 前半生 後半生 사진상은 소시적의조일재 하는 최근의조일재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전아직소설이 무엇인지를 알지못하든때 처음으로 신소설의 체재를완전히가진 작품을쓴이는 조일재(趙一齋)선생이다 선생은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 중학시절에 수학하고 로위환바되야 그아드님이 의사로잇는 합동제혜원(濟惠院)에서 기자는 이해도 저무러가는것 달른오는 어느날을 라서선생의 병상까지 방울흔겨 소설의선배로서의 추억담(追憶談)의한토마을 듯게되엿다

선생은 이미일년 동안이나 절대안정의 선고를밧고 손하나깜짝하지안코 누어만잇서몸은 쇠약할대로 쇠약하야 말조차잘하어듯기어려웟스나 그래도 소설이란말에 눈동자는 저유이 빗나고잇섯스며 끈갑개속에 잠겨잇는듯하얏다 선생의 이야기는 아래와갓다

×

내가 소설이라고 처음쓴것은 스물네살때 즉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전 더부러희(德富蘆花)의원작불여귀(不如歸)를조선말로 번역하야 그내용을변하야 가지고 소위 조선 신소설로 발표한것이다 그후런달아 장한몽(長恨夢) 쌍옥루(雙玉淚) 단장록(斷腸錄)등을 매일신보(每日申報)에련재하얏다

내가 이러케다른사람이 기상천외(奇想天外)(당시는 이러케생각하얏다)로녁이 엿든 신소설을쓰려고한 동기는 대개 이러하다 내가 겨우칠팔세밧게안됏슬때 우리집은 동내어른들의 집합처로되여잇섯다 지금도 농촌에가면 그런지만은 그때의 서울은 처에서도 겨울이되면 밤은길고 별로할일도업슴으로 어른들이 모히기만하면 춘봄 동경가튼것을 켜노코 열전풍류주면 흑담배가가 가른데서 살수잇는 목판(木版)으로된 전설(傳說)을 큰소리로읽어이게 읽기를시작하얏다 이런때에 놀러단니도 거이무의식적으로 겨테서 자미잇게듯고잇섯다 그때들은 전설가운데서아직도 기억에 잇지지안코잇는것은 …

(菊池幽芳)의 『나의죄』 라는것을 그대로 번안하얏다 이리하야 이러한생각이 싹트게되엿스나 그동안 너코 내용은 전혀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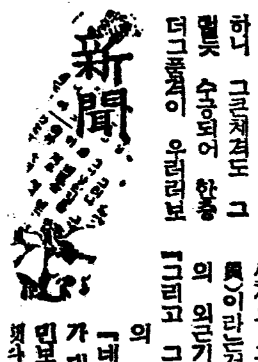
告)에 그림 사진까지 박어뿌렷다고하얏스며 빠리까지 박어뿌렷다 이것이 련재되자 아연히 계를모으게되야 매일독자로부터 몃십장식 소감의엽서(葉書)가 드러오든 각지국에서는 이소설로부수가증가한다고 거이련일부수증가청구가 닥지하얏다

특히 이소설은 평양의 대동강(大同江)을 주요한 장면으로 너헛슴으로 평양회류계에서 큰선풍을 이르켜 평양지국에서는 당일에오백부의 신문부수 독신이잇섯다고 판매부(販賣部)에서축하연까지 베풀어준 일까지잇다 참그때의 인끼는 더말할수업을 만치 고조되얏스니 이러한 우수운일까지잇섯다

참그때는 어디를 가든지 장한몽소문 내소문으로 떠들석하얏다 그리고 내가쓴 작품이라고할른지 신소설 가운대서 가장회심작품이라고하면 역시장욕루장한몽이라고 생각된다

新聞記者半世紀

當時의 …



조선의 신문은 지금으로부터 오십오년전 리태왕(李太王)이십년때에 창간된 한성신보(漢城申報)가그효시이다 그후 명치(明治)삼십년에 독립신문(獨立新聞)이 나오고 명치삼십년에이것이 폐간이되자 경성신문(京城新聞)과 매일신문(每日新聞)이란것이 나와다가 꼿경성신문을양수하야 황성신문(皇城新聞)이창간되고 매일신문이 제국신문(帝國新聞)으로 되여나왓다 그리고 가튼명치삼십년쯤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나와고 광무(光武)구년쯤에 천도교(天道敎)를 배경으로하야 만세보(萬歲報)가 나와고 그후황이(皇)시년에 대한협회(大韓協會)라는정당의 기관지로 대한민보(大韓民報)가 창간되여 명치사십삼년부터 일한합병때까지조선신문이 전성기를 이루엇는데 그시절에 만세보(萬歲報)의 사장이요 또는 대한민보(大韓民報)의 사장이엿든 오세창(吳世昌)씨를 현재 시내도의정(敦義町)사십오번지 자택으로방문하야 오늘날 이러케 발전된 조선신문이 녯날그시절에어떠케 의괴로웟겨고 나허젓스며 얼마나험준한 형극의길을 돌코 와는지를 그몸소겸어온선생의 육체(肉體)에 물어보기로한다

별다른 까다라운 수속을밟을것도업시 조용한선생의 사랑에서 기자는 마치자기의 할아버지를 맛나뵈옵은 듯이 삼가히무릅을꿀고 정좌한다음 선생아페다좌(端坐)하게되엿다 이간이넘어는선서의 사랑방에는 서화가걸려잇고 책상우에는 고서(古書)가 싸혀잇섯다 선생역시 보료우에 단정하게안젓는데 회색 주의를입고 흰머리에 유건(儒巾)을쓰고잇는 그자태가 자못 정중하여다 이이가 글씨잘쓰시기로 으뜸가시는 오세창선생인가하고생각하니 글씨하나를 일생에다거 오는거장(巨匠)인양하야 스스로머리가 숙어지는듯! 그러나도 한이이가 그때당시 한정당의령수로 두신문의 사장을지낸 인가하니 그런체격도 그럴듯 숭엄되어 한층 더그풍격이 우러러보였다

이러케 기자의 뭇는말을 선생은 우슴나조로 부정을 하면서 『아-니 그때발국이라는것이 정부의 기판으로 판청과가튼것이니까 나도처음 주사(主事)라는 벼슬을하야 그신문의 일을 보앗지 그러니 그때나는 관리(官吏)엇지오』 『그러면 그때의 신문기자는관리엿겟습니다.』 『네 그러치요』 신문주사(新聞主事)라는 판리이름을 생각하고 저윽녯날이로구나하는 생각이 더하엿다 『선생이 만세보(萬歲報)를 창간하야 그사장으로 게섯다지요?』 『네 내가동경(東京)가서잇슬때에 리인직(李人稙)이가 신문을해보자고 권하기로 동경서 손의암(孫義庵)과 의론해가지고 리인직이가 경도(京都)『미야꼬』(都)신문에서 종경험이잇는것을 다행으로 동경축지(築地)에서 주자(鑄字)와기게를사노든데 『언문루리가나』(諺文振假名)주자도 사지요 그래가지고 조선와서 창동(倉洞)에 큰집한채를 빌려가지고 신문을햇는데 리인직이가 주필을 마타보고 내가 사장이라고햇지요 그때 그신문의특색이라고는 『언문루리가나』쓴것과 리인직이가 소설혈의루(血淚)니 귀성(鬼聲)이니 하는 그야말로조선에서는 처음가는 련재소설을써서 큰환영을바닷지요』 『그때 신문사에도 지금과가티 외근기자가 잇섯습니까?』 『그때는 신문기자라고는 하지안햇지요 신문사원이라고 햇지요 그리고 탐보원(探報員)이라는것이 잇섯는데 지금의 외근기자격이되겟지요』 『그리고 그다음 또한 신문사의 사장을하셧다지요』 『네 대한민보(大韓民報)가 대한신문… 대한민보(大韓民報)라는것을 …

釜山ゴム工業所 主 張性源 營業所 神戸市林田區若松町一ノ六 工場 同市同區大橋町六丁目 電話兵庫一五七二番

本社 東京市日本橋區江戸橋一丁目 朝鮮中央店 京城府本町三丁目 蛇の目ミシン發賣元 帝國ミシン株式會社神戸支店 神戸市加納町五丁目瀨道交叉點 電話三宮二八八三番

謹賀新年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 生勝代理店 金起權 京大鎬 本社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丁目 電話土佐堀 三八七八番 事務所 神戸市葺合區筒井町三丁目二三

朝鮮料理 春日館 主 金得基 美女 梁蘭玉 外四名 神戸市葺合區東雲通三丁目十二

相愛會兵庫縣本部 會長 金連壽 神戸市葺合區日暮通三丁目一ノ一 電話葺合六七〇〇番

滿鮮中國諸入製造綿網卸小賣 韓彰錫製綿所 神戸市葺合區南本町四丁目七 電話葺合(2)七一四六番

朝鮮料理 和洋料理 慶南館 主 金永守 神戸市葺合區東雲通二丁目三ノ四

化學リグレー入 新古ゴム一式 山中ゴム商會 主 蔡洪錫 自宅 神戸市林田區細田町三ノ一五七 營業所 同市同區眞野町一八八號 電話湊川二七七一番

ズック靴各種 先丸地下タビ 輸出及ビ内地向 神興ゴム製造所 金光信 神戸市林田區神樂町四丁目四六 電話湊川(5)二五二

オートバイ 小型自動車 販賣修繕 耐久モーータース商會 主 金好質 原籍 全南木浦府陽洞八六 營業所 神戸市林田區大橋町四丁目二七 電話兵庫三七七四

朝鮮소리 蓄音機 ウヤマ 宇山商店 主 宋大鉉 神戸市葺合區北本町五丁目一〇八

手編毛糸 多少ニ不拘 地方注文ニ應ズ 花村商店 神戸市兵庫區水木通四丁目三 電話湊川(5)六二八九番

大和親睦會 會長 白文圭 神戸市葺合區日暮通四丁目十七ノ二

皇漢藥研究所東洋醫道會正會員 林泉堂漢藥房 林鍾明 西宮市森下町四四七番地 電話西宮四六三三番

防水小物 自動車用 家庭用 各種一式 吉由製作所 主 丁且云 工場 林田區正覺町三ノ三 事務所 林田區明泉町三ノ四一 電話兵庫三五七一

古物 寄物販賣 …

達山商店 主 李陶炯 古鐵・空瓶 製紙原料 神戸市林田區北町一丁目六五

古鐵・空瓶 製紙原料 李聖澈 自宅 林田區權香町一丁目一〇ノ三 營業所 同區菅原通三丁目高架下

ウエスト・古着商 福本商店 主 表良元 原籍 全南務安郡慈恩面白山里 現住 神戸市兵庫區須佐通五ノ一六 電話兵庫二三三五番

日東青年團團長 日本共立生命保險株式會社社員 鄭石攻(岩本玉吉) 神戸市林田區六番町六ノ一〇

製紙原料商 共立商會 主 李珍珩 神戸市林田區日吉町二丁目一 電話湊川二六一三番

高等卸賣 醬油專門商 小賣 主 金大昊 神戸市林田區久保町二ノ一八

光山理髮館 主 金泰元 神戸西開地近 神戸市林田區二葉町一丁目二番

東亞ホテル 李萬龍 崔命錫 金寧珍 神戸市神戸區北野町

鄭永祥 朝鮮料理日成館 神戸市葺合區八雲通三丁目十九

田小祚 朝鮮飲食店主 内鮮料理 神戸市葺合區若菜通五丁目一五

垣岡商店 電話葺合三〇二三番

金城製靴店 主 都聖鶴 神戸市葺合區布引町二丁目四二

何換堂藥房 主 閔丙田 神戸市灘區中原通一丁目一〇九

製紙原料 古物商 問屋主 洪春瑞 神戸市灘區下河通一丁目五一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林田事務所 神戸市林田區川西通四丁目三三

製鋼原料商 田原支店 金李五用 神戸市林田區刈藻通二ノ一五二

姜大還藥局 神戸市林田區刈藻通三丁目六九

朝鮮漢藥房 朴龍斗 原籍 慶南東萊郡 現住 林田區西尻池五ノ六

綢緞 布木 食料・日用品 岡商店 神戸市林田區東尻池町五ノ五九

朴基奉 古物 金屬 古着 切賣物商 神戸市林田區菅原通七ノ一四八

新昌自轉車商會 疋田正男 神戸市林田區金平町二ノ二五

慶尚倶樂部一同 市内林田區權香町一ノ四四ノ五三

内鮮協和會 日東青年團 代表 前田任 神戸市林田區權香町一ノ一三 電話兵庫四九五〇番

米穀 新炭商 韓仁元 神戸市林田區日吉町一ノ一〇〇 (但若松小學校北門前)

朝鮮料理 永樂館主 崔駿根 神戸市林田區菅原通七丁目一四五

煉炭 木炭 古澤商店 主 黃寧河 林田區神樂町五ノ三八

綢緞 布木 雜貨 西村商店 神戸市林田區西尻池町五ノ九三 (日田朝鮮市場)

製粉 兄弟商會 表應根 神戸市林田區川西通四ノ三六 電話湊川三〇七六番

酒類 醬油商 諸葛南石 市内須磨區水笠町四ノ六四

更生堂漢藥房 孫炳璉 神戸市林田區權香町一ノ四五九

土木建築 請負業 橋本金次郎 神戸市林田區菅原通三丁目一七八 電話湊川五四六〇番

秋田商店 李相基 神戸市林田區西尻池町五丁目一 電話兵庫四九七〇番

福永洋服店 神戸市葺合區脇濱町三丁目一

主 李洙英 藥局 神戸市林田區西尻池町九五

酒類 醬油商 康元澤 林田區西尻池町五ノ六六

半島國防青年團 神戸市林田町二番町四ノ一〇五

さんば 助産婦 梁成烋 神戸市林田區西尻池町五ノ二二

綢緞 布木商 金鳳林 神戸市林田區西尻池町五ノ八九

金龍根 神戸市林田區三番町五丁目五七

主 千葉食堂 神戸市林田區久保町五ノ一四九

安小德 神戸市西代 …

張德信 神戸市林田區三番町五丁目

製靴 申又世 神戸市湊區北町七丁目

米穀商 吳述根 神戸市須磨區上手町一ノ六 電話須磨二八三〇番

神戸市湊東區東川崎町七ノ二五三

俳優學校創始者

七顚八起! 이제는 "三談" 三昧境에

玄哲氏

조선의 신극이 오늘날 이만치이라도 존재를 가지게된것은 그나적으나 파거 반반세기(半世紀)동안 여러연구가(研究家)들의 노력의결정으로 보지아니할수가업다 최초조선신극운동으로는 림성구(林聖九)씨 고김정진(故金井鎭)씨를 비롯하야 가위우후죽순(雨後竹筍)가티나왓스나 이사견저사견으로 모두다 중도에여념이업시 칠락팔렴한사람이만헛스되 오직 현철(玄哲)씨외 멧메분이 악전고투를 계속하야 조선신극계의 개척에 끈힘업는 노력을 하여왓다

그러면 이길의 위대한 개척자 현씨의 거러온 길은 파연 이떠한가? 씨는 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 옛날인 광무(光武)시절에 멀리 동경(東京)에 형설(螢雪)의 공을 닥고자 그곳중학교에서 공부를하다가 불행히상주(喪主)의몸이되여 학약불성사불환(學若不成死不還)이란 구든결심으로 조에깨드러버린후 경성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에 전학하야 명치사십년에 우수한성적으로 얼을맛친후 그해가을에 다시동경으로가서 의학을전공하라고 제국대학을 목표로 고등학교입학준비를하다가 인생의지나가는 발자최가 너무무상함을 늣기고 대중을위하야 신극을연구하기로마음을 돌렷섯다

◇

그당시조선에는 아직하나도연극이업슬뿐아니라 소위지식계급이나 행세하는지식층은 연극을 하든지 배우가되면 자기자신만 망하는것이 아니라 일가문중이 망하는것으로 아는 놀라운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씨는매연한결심으로 그때동경서 조도전대학문과 파장(早大文科科長) 평내박사(坪內博士)가경영하든 문예협회(文藝協會)후신으로 시조도전대학강사로 미학자(美學者)인도촌포월(島村抱月)씨가 주재하는신극운동단체예술좌(藝術座)의 부속연극학교에 제일기로 입학하야 그학교또한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얏스니 아마도 우리조선서는 연극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분은 오직 이현철씨가잇슬뿐일것이다. 이와가티 순서잇게 연극학교를 전공한씨는 그당시 여러동지생들로부터 가티동경에서 극계로진출하자는 권고를바덧스나 씨는 조선에다운 새연극보급의 시급한필요를 절실히늣기고 이것을 거절한후 조선으로 도라왓다。

◇ 이때는 조선에도 그전에업든 소위 신파연극이라는것이 잇섯스나 조선의 신파연극이라는것은 일반이 다아는바와가티 진고개에서일본내지인들이 정말배우도못되면서『시바이』하는것을보고 그냥 숭내낸것이 조선신파연극의시초이엿다 이런극단이 생기자 뒤를니어 다소지식계급이 경영하는신파연극단도 생기기는하엿지만 순서잇는의리미테서 조리잇게 공부한씨의안목으로볼때에는 파연한심하얏슬것이다

그리하야 조선정취에 맛는 새로운 연극운동을 이르킨는데는 아모리하여도 고래로 조선파 밀접한 문화를 가지고잇는 지나(支那)를 보는것이 가장필요할줄 절실히 늣기고 씨는그길로 지나의중심지인 남방상해(上海)로향하야 려장을 푼후 지나연극을 연구하게되엿다 그러나 씨의 지나시대는 파연수난시대이엇스니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전 옛날에는 조선도 신학식을 요구하는 때이엿슴으로 당장시시한 동경유학깨나하면 당장에 영달하야 군수영감 판사영감이 대번에되는판이다

그리하야 자질을 외국류학보낸 부형들은 그자질들이 도라오는날에 영달할것은 거의 떼논당상이라고 밋고잇슨이때 그자제를 칠팔년동안이나 외국류학식힌것이 겨우 광대공부? 를 하야가지고 도라와서 또다시 지나로 광대연구를 하러갓다면 선선히 학비를 계속하야 줄리가업는것은 현철씨의 부형뿐만아니라 그당시 조선부형은 다 그리하엿슬것이다 그리하야 씨가 상해로간후로는 학비가끈허지고 귀국한다면 려비는 보내주겟다는소식뿐이엿다 그러나씨는 구든결심을깨트리지안코 천신만고하여가며 그날 그날을보내다 상해송천두뿐으로 한끼의 기갈을면하고 금침이업서서 신문지를덥고 깔고 밤을지낸때도 이때이엿스며 자살을하랴고 황포탄(黃浦灘)공원에서 방황새워본때도 도한며번이엿든지 모른다는것은 씨의눈물겨운 감개무량한회고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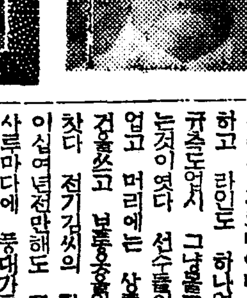
그러나 지성이면감천이다 당시상해서 신극계에일한 배우인 구양여청(歐陽予倩)이란 사람을 우연한기회에 만나서신기연극학교를경영하게되어서마츰내 그무쌍한고생을면하엿다 상해서만이년동안 지나연극을 견학연구한후 다시귀국하기로하매 여러지나인 친구들이 손을잡고가치지나서 지나배우가되어가지고 신극운동에 분투하자고 려권을 바뎃스나 조선의 극계를 위하야 무엇을하랴고하는씨는이것도 역시 거절하고 마츰내귀국하얏스니 이것이 그때지나서도 본격적신극 지식을가진 사람이귀하얏기때문에 씨를 그러케 지나인들이 놋키슬혀하얏든것이다。

귀국한씨는 조선의 신극을근본적으로 씨를 새로뿌리고자 우선 인재양성에 착수하야 연극학교를 전후다섯번설립하엿고 영화제작을두번하얏스며、극장창립에 분주햇든일도잇섯고、또극장경영도 한번하여 보앗섯다、그리고최후로는 재래극단을 다리고지방순회도 한번 한일이잇섯스나 모두다씨의리상과가리 되지못하야 지버치워버리고 말엇다 그러나 조선의 어느극단이나또는 어느영화단체나 씨의문하를 지나간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중요한역활을 아니한곳이업다

외면으로보아 씨의 신극운동은 실패라고할는지모르나 그것은다만나무가커서 조홧슬때 가보리지아니한것만 보고 하는말이다 그나무가크게되는 그양분인토양(土壤)의 공로를 생각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지금씨는 독자의창안삼담(三談)삼매경에서 새로운 천지를개척하고잇다

當代隨一의女裝男俳優 上은 『코르시카』兄弟에 伯爵夫人으로 扮裝한 故高秀喆君 下는 『長恨夢』에 沈順愛로 扮裝한 李應洙君



寫眞 바른편은 『人形의家』의 試演舞臺面과 玄哲氏門下生一同 왼편은 조선서처음잇는 朝鮮俳優學校第一期卒業生

처음 … 하야금 미술(美術)을 개척한 분이오 붓끗을 통하야 … 한 표현을 하는분가 … 각치 못하게한다

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 아세아(亞細亞)의 천지를 뒤흔들어노흔 일로전쟁(日露戰爭)의 풍운이 아직 사라지지안흔 당시 동경(東京)에는 구한국(舊韓國)명문거족(名門巨族)의자질 이백여명이 모여들어 청운의뜻을 품고 너도나도 할것업시 법학또는 정치경제학만을 연구할때다

이때 조선사람으로서 양화공부하러 도동(渡東)한 최초의인물 고희동(高羲東)선생 그는먼저팔한 미래 정치가들의 눈에 이단자(異端者)로 보엿슬것이며 동떠러진 길을것고 잇는것가티 알려젓슬것이다 이때부터 선생이헤치고나온 가시덤불길 삼십년의 기록을 더듬어보자

×

약관(弱冠)을 지난지 얼마안되여 처음에는 동양화(東洋畫)를 공부를하엿스나 교수법이 체게서지못하엿슴에 불만을가지게되엿다 점점취미를 못가지게되든차에 당시양인들이 가지고온판화(版畫)등을보고 이에자극되여 불현듯 새경을좀연구해보겟다는 생각이용소슴처서 성미급한나는 드디어 도동을 결의하고말엇다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전 스물네살때봄 동경으로건너가서 미술학교에 입학지원을하얏스나 그때 내가학벌이 업다는것이 첫

나기도전에 교실에 … 수속만이 버려저서 그시간은 모다 동물이 다보고말엇지…… 그다음부터 발달의 수개월동안생활이 『요ー고ー몽모 우마꾸가이따네ー』(야ー 고꾼도잘그렷는데) 그놈의『몽』소자가 매우 귀에 거슬리기는 하엿스나 그러저럭 음영을 좀 아라보게 되엿슬때 다 하룻은 교실에 드러갓드니 빨가버슨미인이 몸을 이리저리 틀며『포ー즈』를 지정하라고하는데 라체『모델』에 대하야 말

오 기가 … 하는데 하룻은 석고상(石膏像)기초 련습을 하는데 이『모델』대신에 나와섯다 실물을보고 그리는것 즉사생(寫生)은처음이라 아모리 보아도 전체가 히기만함으로 어리둥절하고잇섯드니 선생님이 중미방하게 생각되엿든지 『어디가가장어둡게보이느냐』 고하시기에나따는 정직하게 『코스구멍이 가장 어둡게 보입니다』고 햇지요 『나루호도 네ー』(따는그러켓군) 하는 선생님의 말끗이 미처 끗

『저친구눈에는 흥물이 아마 푸르게 보이는겝세』 『저런 우수운짓을 하려다가끄라』

알몸속에 잘드려든 극동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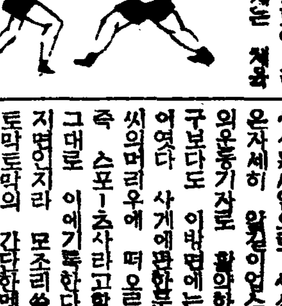
을하는사람이 만흔것은 매우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서화협회를못오지 벌써 이십년이되엿지만 도 경비문제로 연구기관하나업서 철이 못한드릿을뿐아니라 좋은 희망가 한것조차 한번도업스니 개최자들것도 업스며 현재도황 향을 본기곳을 가서볼곳이 업다 나와가티 종이한 사람의 진흥을보면 처음돗을보잘것 업는 사람이 도올때 그림공부하는 사 람은 첫재 마음을 굿게 먹어 야 할것이며 … 절대로 어희동(圖書)저회등으로 … 동행을 하지말것이다

(사진은 고희동씨와 씨의 작품 상은 종이작품 자백, 하는 씨의 자화상)

三十年前運動은 靑年會가總本營

金東轍氏

―運動場도器具도업든 그當時의話題二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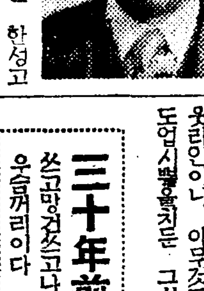
구석에서 스포ー츠조선이 고고(呱呱)의첫소리를 울리게 된지가 사십여년—그동안에 수만흔 선배들의 각고면려(刻苦勉勵)는 드듸여 열매를지어 이미 세계마라손제패의 영예를 획득한것을 비롯하야 권투(拳鬪)는 동양을 대표할 수준에이르럿고 축구(蹴球)도 국제적무대에 미미하나마 발돋움의자석이 지어지잇다 도라보아 리조오백년의 문약파치게는 체육운동에까지 퇴보를보게하엿스니 조선고유의 운동인 활쏘기、택견、건네뛰기、씨름등과 녀자로서는 널뛰기가잇섯스나 신사조가 이땅에수입됨에따라 현대스포ー츠가 수입되엿스나 일반은 동방례의지국이라는 엄격한규율아래 체육운동의 가치를 몰보지못하고 군자는 방안에드러안저서 독서와 양반행세나하고 운동하는사람을 일종의 작난꾼으로

나 광대처럼 보는 그시대풍조를 버서나 오늘의 현란한 무대를 이루기까지에 가시밧속을헤치고 거러온선배들의 고심담을 들고저 지금으로부터 사십여년전에 다년간의 선배이요 현조선축구선수권자인 김동철(金東轍)씨를차젓다 씨는 …

…

기를햇스나 일정한경기장도업고 넓은 마당이면 모여서 꼴문표시하고 라인도 하나업고 별다른규측도업시 그냥볼고가서 차는것이엿다 선수들의 유니폼도업고 머리에는 상투를틀고 망건을쓰고 보통조선옷을입은채 볼을찻다 …

그러나 그당시에는 볼을 던지고받는데 곳잘볼뿐이고 대항경기를할만한 규측도모르고 크로ー브도 루수와 포수외에는쥐여보지도 못하든때이엿다 그후삼년이지나서 지금 제일



고등보통학교의 전신인 한성고등학교(漢城高等學校)에 야구팀이 생겨서 황성기독교청년회와 대항전을 하엿다는것이 야구전으로서는 처음이엿섯다 이때의 구경꾼들은『다이야몬드』안에까지 드러와잇다가 단단한볼에하나 어더마지면 하루만흔 작난에 그러워할만의 작난을왜하느냐고 비웃는 그시대도잇섯다 그리고정구(庭球)로말하면 개인

으로"티켓"을사서 가저본일이업고 학교에서 한패에 누구든지 모저나가 학교소유의『라켓』을먼저잡는 사람이 운동할권리를가젓고 써브라인이니 아웃라인이니 아무것도업고 볏드로드업시행하진 그시대도잇섯다

이십년전까지도 적기경씨가 밤이면 다른발집 연습을 하다가 (중략) 경중일이한두번이아니엿다한다 이러한 가운데 시대는흘러서 동경유학생이 도라와서 스포ー츠에대한 교육적가치를 부르짓는동시에 점차로 지도하는 사람이 생기게되여 십수년전에 비로서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여 오늘에이르럿다 이러한 가시덤불을거러온후리 스포ー츠계는이제국제적으로 웅비함은 물론이오 루지만만한 이땅의건아들은 빙상(氷上)에서『트랙』에서 또는『링』에서 모ー든그들의 전장에서 투지와히망과 축복에가득찬 새로운신년을 대담하게 호흡하려고한다 (사진은 김동철씨)

三十年前의運動寫眞 (上)蹴球 (中)鐵棒 (下)野球=갓쓰고망건쓰고나선 선수와당시의운동복이 지금의 사람의 우숨꺼리이다

者는官吏!

請어든 李人稙氏小說과 貫齋의 揷畵

오新聞社長 吳世昌氏

재 … 저도 잇섯다 … 방송하게되엿다 … 얼마어서 … 등가게되야 … 소설이어라고 … 짜러지 … 하엿다 그러나 여 미케 별로업는동안 그러설소설 의전부가 모두 지나(支那)의종 토를 취하야 저명가튼것도 일 옥(玉蓮)소주(蘇州)라 인명가튼 것도 모두지나인명으로 되여잇 음으로 재미나거보기는보나 항 상 마음한구석에 불만도는 설 섭함을 늣기게되엿다 어떠케하 면 조선의풍습 조선을 무대로 하는 소설이잇섯스면 나아가서 는 어린소설을써보고시픈 생각

허다 어욱고조선신문은 그의 겨어온개화에 대하야 말을못고처왓다 는것을 표하니선생은 아모말도업시 다만고개만 가로터로흘어 말하기를 피하려하다가

「아ー니 정신이서 끄러워저서!나가터 세상을 몰르고사는 사람이 무엇이잇겟소 정신이이제는 시끄러워저서」

아 정신이 시끄럽다는말은기억이 약해저서 모다그전일을 어저버렷다는말이다

그러나 기자의 구든청을물리치지못하야 겨우 말문을연다 그때 그는시골이 가는

워서는 … 띄게 신문의이름까지에 제 버티도록 … 개선생을 괴롭게함을 다시금 미안적게생각하엿다

「그 대한일보는 어떠케하섯습니까?」

「그것은 그때 리용구(李容九) 송병준(宋秉畯)의 일진회(一進會)에 대항하야 조선협회(大韓協會)의 말이라는 정당이 조직되엿는데 내가서때부터 부회장으로잇서 소 그협회의 기관지로 처음 창지를 내엿다가 이신문으로 발행한것인데 지금 중요소설(國話小說)터에서 해서지요」

「그때 그신문의 특색은 무엇이엇든가요?」

「관재(貫齋)리도영(李道榮)이가 그림을 잘그려서 지금의 만화(漫畫)보다도 다르고 삽화(揷畫)보다도 다른 시사삽화(時事揷畫)를 넘어다 그러내서 크이끼를 끄러젓지요」

어말을하면서 손을들어 외편 벽을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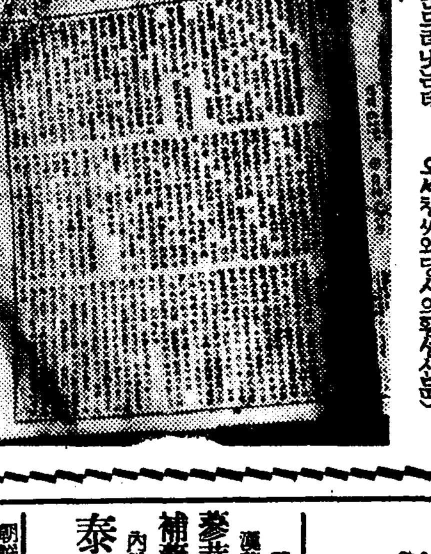
「이것이 그관재의 그림이오」

파연 관재리도영씨의 한폭넷날 그림이 벽에부터이섯다 이이상 더 선생을괴롭히지안코저 고맙게절하고 물러나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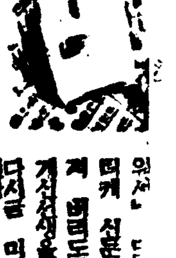
…시생각하기에 힘이드는 모양갓다 그러하인지 약 … 이야기를 해주신다

「조선에서 처음나온신문은 한성순보(漢城旬報)라는 것이엇지요 그때 정부에서 발로국(博文局)이라는 기관을 신설해가지고 여기서 정상각오랑(井上角五郎)씨의 지도를바다 처음 신문이라고 맨드러냇는데 그때신문이엇서야지요 라고 말슴이엇서야지요 요 처음은 판보가 될것이엇지요 그한 선순보에 내가 드러가 일을보앗는데 아 마 내나히가십 칠전으로 이십년대 이엇든가보이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십여세 청년시대에 발서 조선에서 처음가는 신문사에 신문기자로 잇섯습니다그려」



(사진은 대한민보 사장시대의 오세창씨와당시의황성신문)



在神佛敎觀音宗布敎所 李鶴山 金慧珠 張氏萬德華 神戶市林田區北町二丁目一一〇

中古自動車 オートバイ リヤーカー 部分品 機械 古銅、鐵、真鍮 柳老麻商店 神戶市林田區菅原通三丁目二

古物 屑物 ウエスト 製紙原料 久丸商店 主 梁亨基 本店 神戶市兵庫區松原通六ノ一〇 支店 神戶市林田區三番町三ノ一

千歲タクシー 姜丁大 通稱 山口昇 神戶市林田區千歲町三丁目七〇

在留玄風相助會 財務 徐福才 自宅 神戶市林田區苅藻通一ノ一七二

古鐵 古銅 金物 地金 古紙 製紙原料 商 孫南植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五丁目一二三

神戶市敎導委員 梅ケ香町衛生部長 酒醬油 古物商 尹三述 林田區梅ケ香町一丁目一二三

明鮮北海道 海陸物產 內外玄白米 貿易及委託 松田商會 代表 金活仁 自宅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五丁目一一八 營業所 神戶市林田區西尻池町五丁目一一三 電話兵庫6四九七〇番

神戶市林田區宮原通六丁目 漢藥商兼信用箱主 參茸唐草藥材貿易各種 補藥丸散貼藥專門 內外藥種貿易商 泰昌商會漢藥房 主 李載昊

合資會社 喜晴タクシー 林宗伯 崔尙德 營業所 神戶市林田區大橋町八ノ六一

神戶泗龍親睦會 會員一同

神戶國防青年團本部 神戶市葺合區吾妻通六丁目三四ノ一 團長 鄭今允

神戶市葺合區八幡通六丁目二九 長谷川製靴所 主 金正權

神戶市神戶區海岸通三丁目番外ノ一 古物一式 高山商店 主 高□出

日昌 主 金致龍 自宅 事務所 神戶市葺合區 四丁目三四ノ一

印刷所 李民善 神戶市 電話湊川(5)五一七二番

金有聲

丸山古物商 主 朴七介 神戶市林田區駒栄町二ノ二六

製紙原料 製綿原料 古物屑物一切 谷山商店 康斗弘 神戶市林田區梅香町二ノ一三

合資會社 天津堂洋行 代表社員 姜鎭煥 本店 神戶市新開地 支店 大阪市千日前 片倉生命京都支社代理店

古物 ヨセヤ 朴杞祚 神戶市湊東區古湊通一ノ一二

新古ゴム商 山崎實商店 主 吳君七 神戶市林田區菅原通七ノ一七八

永井ミシン加工所 運動靴 甲皮製造販賣 鄭仁朝 神戶市林田區濱添通三丁目六五 電話兵庫三三〇五

在神玄風相助會 會長 朴學洙 副會長 朴聖勳 會館 神戶市林田區苅藻通二ノ七一

002370

各種洋靴製甲所 主 李基鍾 神戶市林田區三番町三ノ一四九

金銀銅鐵 古着屑物 製紙原料 商 韓祥實 神戶市林田區濱添通一丁目五三

金正石 神戶市林田區 二丁目三ノ九

神戶保育園後援會 神戶市林田區菅原通六丁目

古物一切 ヨセヤ商 李永根 神戶市林田區菅原通七ノ一八一

神戶 劉秉淳

內外藥種 保命堂藥房 神戶市林田區濱添通五丁目九〇

神戶國際所鮮人勞工會 代表者 張吉壽 神戶市林田區三番町五ノ六

全斤壽 神戶市林田區三番町五ノ五

吳學祚 神戶市林田區四番町三ノ一〇

山中商店 神戶市林田區三番町五ノ一 電話湊川三六八四

任韓柄 神戶市林田區大橋町三ノ四二

新古ゴム商 木浦商店 朴政光 神戶市林田區御蔵町三ノ九七 電話湊川四六一〇

古物商 古鐵一切 宮本商店 主 朴在鉉 神戶市林田區北町二ノ一〇九

神戶敎導委員 バケツ製造元 安台鳳 神戶市須磨區大田町四ノ二三九

江原道平昌邑 洋品雜貨 食料品 李康薰商店 電話一九番

江原道平昌邑 醫師 睦一舜均 平昌醫院 電話四番

平昌稅務署 職員一同

平昌邑 金元模

平昌邑下里 朴亨泰

加島內梁汝亨事 土木建築 請負業 山川梁次郎 尼崎市西大物町五三 電話四五二番

阪神消費組合 尼崎市築地本町四ノ八一 電話二七六八番

東亞同住會顧問 李海史 尼崎市東向島東元町杏林堂

金海秀 尼崎市西御園町一四八

古物商 柳長洙 尼崎市築地本町三丁目六九

土木業 鄭哲根 尼崎市西向島木村組內

酒醬油 乾物衣服 日用品類 林壽龍商店 武庫村守部下灘十九ノ九

山野商店 朴昌介 尼崎市東向島東之町一二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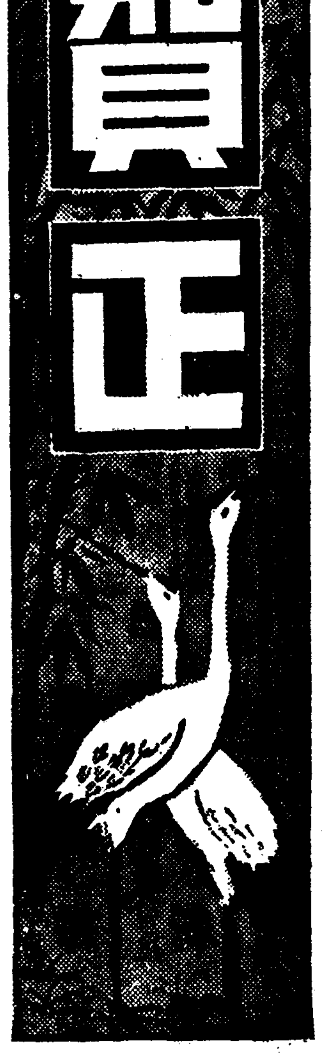
柳廷欽 尼崎市築地南濱一丁目興業藥房

金應斗 尼崎市中在家町三山堂藥房

製紙原料 古物商一切 高亨奎 尼崎市昭和通一丁目一番地

東亞同住會長 中大洲衛生部長 尹興烈 尼崎市東向島東之町一二四

洛陽相親會顧問 東亞同住會副會長 徐廷翊 尼崎市大物町一ノ八七

立花製棉所 尼崎市外立花村七松 金義達 曹又鳳

內鮮國防青年團長 尼崎出征軍人後援會幹事 曺渭尙 尼崎市築地南濱町一ノ三